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19세기 초 선전관청 발의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正廟朝王世子冊禮稧屛)》의 정치적 성격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이유정

19세기 초 선전관청 발의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正廟朝王世子冊禮稧屛)》의 정치적 성격

지도교수 장 진 성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학 전공
이 유 정

이유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박 정 호 (인)

부위원장 장 진 성 (인)

위 원 유 재 빈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正廟朝王世子冊禮稧屛)》(이하 《정묘조계병》)의 화제인 요지연도(瑤池宴圖)가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의 가례(嘉禮) 성사를 기념하여 그려졌음을 밝힌 글이다. 1800년의 왕세자 책례(冊禮)를 기념하여 선전관청(宣傳官廳)에서 발의한 《정묘조계병》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대(代)의 계병(稧屛)들 중에서 매우 이례적인 작품이다. 정조 대의 계병들에는 모두 정조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행사도가 그려졌으나 이 작품에는 서왕모(西王母)의 잔치를 주제로 한 요지연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까지 선전관청에서 궁중 계병을 발의한 사례는 없었다.

필자가 좌목(座目)을 검토한 결과 《정묘조계병》은 실제로 정조 사후 순조(純祖, 재위 1800-1834) 대 초인 1802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묘조계병》의 요지연도가 1802년 이후에 선택된 화제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정묘조계병》은 국왕의 측근 무관인 선전관에게 세자의 보호를 맡기고자 한 정조의 의도에 따라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계병이 실제로 완성된 시점은 1802년에 치러진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 이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는 본래 책례와 함께 거행되기로 기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전관들이 위축된 세력을 회복하게 된 행사였기 때문이다. 정조 사후 집권한 벽파(僻派) 세력이 정조 대의 핵심 관료들을 제거하자 선전관들의 세력 또한 약화되었다. 그러나 선전관들은 결국 가례를 기점으로 권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당시 무관들과 긴밀한 정치적 유대를 맺고 있던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이 가례를 통해 국구(國舅)가 되고 군사권을 장악하며 선전관들도 정치적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묘조계병》의 요지연도는 1802년의 가례와 관련이 깊은 그림이었다. 조선 후기에 요지연도는 혼례를 축하하기 위해 사용된 화제였다. 《정묘조계병》에도 서왕모와 동왕공(東王公)의 만남, 악기 연주와 무용 장면 등 실제 왕실 가례와 연관된 도상들이 재현되어 있다. 1802년

의 가례가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창덕궁(昌德宮)의 대조전(大造殿)에 요지연도 병풍이 설치된 바가 있었다. 이는 요지연도가 1802년의 가례를 축하하기에 적합한 그림이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대조전이 새로 왕비가 될 순원왕후가 기거할 공간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대조전의 요지연도 병풍은 순원왕후를 위해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조 대 이후 19세기 초까지는 왕실 여성을 행사의 주인공으로 강조하기 위해 서왕모가 상징적인 존재로 활용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화제로 선택된 《정묘조계병》의 요지연도는 순원왕후를 가례의 주인공으로 부각하는 의미가 담긴 그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정묘조계병》은 선전관들이 1802년의 가례를 기념하기 위해 요지연도를 화제로 선택하였으며 이들의 정치적 결속이 가시화된 그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正廟朝王世子冊禮稧屛)》, 선전관청(宣傳官廳), 요지연도(瑤池宴圖), 계병(稧屛), 가례(嘉禮), 왕실 여성
학 번: 2019-27452

목 차

Ⅰ. 서론 ····· 1

Ⅱ.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의 화제(畫題) 및 제작 시기 ···· 13
1. 정조 대 계병들과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의 제작 양상 차이 13
2. 서문과 좌목 및 그림의 제작 시기에 대한 재검토 ····· 21

Ⅲ. 순조의 책례 및 가례의 특징과 외척의 군사권 장악 ·· 32
1. 세자 보위 세력으로서의 국구(國舅)와 선전관(宣傳官) ····· 32
2. 순원왕후(純元王后)의 가례와 외척의 군사권 장악 ····· 39

Ⅳ. 요지연도(瑤池宴圖) 화제의 의미와 성격 ····· 47
1. 순원왕후의 가례와 요지연도의 관련성 ····· 47
2. 서왕모(西王母)의 상징적 의미와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의 정치적 기능 ····· 56

Ⅴ. 결론 ····· 66

참고문헌 ····· 69
도판목록 ····· 78
도판 ····· 80
Abstract ····· 98

Ⅰ. 서론

본 논문은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正廟朝王世子冊禮稧屛)》(이하 《정묘조계병》)이 책례(冊禮)를 계기로 선전관(宣傳官)들에 의해 발의된 이후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의 가례(嘉禮) 성사를 기념하여 완성되었음을 밝히는 글이다. 《정묘조계병》은 1800년 음력 2월 2일에 거행된 훗날 순조(純祖, 재위 1800-1834)가 되는 왕세자의 책례를 기념해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정묘조계병》의 화제(畫題)는 요지연도(瑤池宴圖)이며 이 계병을 발의한 선전관 19명의 이름과 품계(品階)가 좌목(座目)에 적혀 있다(도 1, 2). 《정묘조계병》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대의 다른 행사도 계병들과 다르게 책례와 관련이 없는 요지연도가 그려졌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작품이다. 필자가 《정묘조계병》의 좌목을 검토한 결과 이 계병이 실제로 완성된 시점은 순조 대 초인 1802년 이후였다. 따라서 화제인 요지연도 또한 1802년 이후에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계병이 완성된 계기는 1802년에 치러진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례는 선전관들에게 자신들의 권력이 회복되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 행사였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요지연도는 혼례와 관련된 그림이었다. 특히 1802년의 가례를 기념하여 순원왕후의 처소에는 요지연도 병풍이 설치된 바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요지연도와 가례와의 관련성 및 외척(外戚) 세도가(勢道家)가 군사권을 장악했던 정치적 상황을 고찰하여 선전관들이 1802년 가례의 성사를 기념하기 위해 《정묘조계병》을 완성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정묘조계병》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이 작품의 화제인 '요지연도'에 주목한 연구이다. 두 번째는 이 작품을 '왕세자 책례 계병'이라는 형식 측면에서 논한 연구이다. 세 번째는 화제와 왕세자 책례 계병이라는 형식이 모두 고려되어 《정묘조계병》에 요지연도가 그려진 이유를 추정한 연구이다.

첫째로 《정묘조계병》은 '요지연도' 작품군의 한 사례로써 요지연도의 화풍과 도상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기준작으로 주로 주목을 받아왔

다.[1] 《정묘조계병》은 요지연도 작품군 가운데 유일하게 제작 연대가 명확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요지연도는 도교의 여신인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곤륜산(崑崙山)의 요지(瑤池)에서 열린 연회 장면을 주제로 한 그림이다.[2] 조선 후기의 요지연도 병풍에는 신선들이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오는 해상군선(海上群仙) 도상이 함께 그려지곤 했다.[3] 《정묘조계병》

---

1) 우현수, 「조선후기 瑤池宴圖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이성훈, 「요지연도(瑤池宴圖): 천상의 잔치, 요지연의 장면」,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학고재, 2009), pp. 525-541; 박정혜 외, 『조선 궁궐의 그림』(돌베개, 2012), pp. 108-122; 오현경, 「조선 후기 瑤池宴圖 연구」(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박본수, 「朝鮮 瑤池宴圖 硏究」(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2016); 우현수, 「세상은 요지경(瑤池鏡): 조선시대 요지연도(瑤池宴圖) 이야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편, 『조선, 병풍의 나라(Beyond Folding Screens)』(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18), pp. 290-295; Hyunsoo Woo, "Displaying Authority: Screen Paintings of the Joseon Court," in *The Multivalent Screen: Materiality and Representation in East Asian Visual Culture*, eds. Foong Ping and Chelsea Foxwell (Chicago: Art Media Resources and Center for the Art of East Asia, University of Chicago, 2019), pp. 193-208.

2) 서왕모가 곤륜산에 거주한다고 여겨지게 된 것은 서한(西漢, 202 B.C.-9 A.D.) 중기부터였다. 서왕모와 곤륜산은 본래 서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서왕모의 거처와 곤륜산이 모두 세상의 서쪽 끝에 위치한다고 여겨진 점, 이 둘이 모두 장수와 불사(不死)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이들은 장수를 뜻하는 하나의 강력한 상징으로 묶이게 되었다. 서왕모와 곤륜산의 조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u Hung, *The Wu Liang Shrine: The Ideology of Early Chinese Pictorial Art*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108-141 참조. 한대(漢代) 분묘 미술에 재현된 서왕모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는 Lillian Lan-ying Tseng, *Picturing Heaven in Early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1), pp. 211-233, 293-297 참조. 서왕모는 당대(唐代, 618-907)에도 도교의 여신으로 큰 인기를 구가하였다. 서왕모를 주제로 한 시도 당대에 활발하게 쓰였다. 당대를 중심으로 도교 신앙과 시에서 서왕모가 재현된 양상을 고찰한 연구로는 Suzanne E. Cahill, *Transcendence and Divine Passion: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in Medieval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3) 팔선(八仙)과 팔선과해(八仙過海) 도상에 관한 연구는 Anning Jing, "The Eight Immortals: The Transformation of T'ang and Sung Taoist Eccentrics during the Yüan Dynasty," in *Arts of the Sung and Yüan*, eds. Maxwell K. Hearn and Judith K. Smith (New York: Department of Asian Art,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6), pp. 213-229; Shih-shan Susan Huang, *Picturing the True Form: Daoist Visual Culture in China*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2), pp. 319-325 참조. 서왕모와 군선(群仙)이 하나의 조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원(元, 1271-1368)대에 잡극(雜劇)이 유행한 이후라고 추정된다. 명(明, 1368-1644)대의 소설에서도 서왕모와 군선의 조합이 빈번하게 재현되었다. 조선의 요지연도의 경

을 단독 주제로 다룬 박본수의 연구에서도 이 작품은 서로 다른 도상이 그려진 요지연도 병풍들의 제작 시기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었다.[4] 이 연구에서는 《정묘조계병》의 서문(序文)과 좌목, 행사 과정, 도상 또한 상세하게 분석되었다.

둘째로 《정묘조계병》을 '왕세자 책례 계병'이라는 범주에서 다룬 연구들에서 이 작품은 주로 행사도가 아니라 고사인물화(故事人物畵)가 그려진 계병이라는 점에서 조명되었다.[5] 계병에는 행사도가 그려지거나 청록산수화(靑綠山水畵), 고사인물화 등의 회화가 그려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6] 기존 연구에서는 《정묘조계병》을 사례로 제시하며 왕세자와 관련된 계병에 유독 행사도가 아니라 고사인물화, 산수화와 같은 소재가 많이 그려졌다고 지적하였다.[7] 그런데 계병의 화제를 통시적인 시각에서 고찰한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개별 작품의 특수한 제작 맥락이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묘조계병》에 요지연도가 그려진 이유와 그 의미를 추정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묘조계병》을 처음 단독으로 소개한 박은순은 이 계병에 세자의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묘조계병》에 그려진 그림이 여러 길상적인 소재가 함께 그려진 신선도(神仙圖)이기 때문이다.[8] 요지연도가 기본적으로 이처

우 명대 소설에 묘사된 내용을 주로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박은순, 「17·18世紀 朝鮮王朝時代의 神仙圖 硏究」(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4), p. 47; 우현수, 앞의 논문(1995), pp. 5-20을 참조.

4) 박본수,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正廟朝王世子冊禮稧屛)》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요지연도를 중심으로」, 『고궁문화』 13(2020), pp. 137-163.

5) 계병은 왕실의 행사를 기념해 제작된 병풍이다. 계병은 행사 설행을 맡은 도감(都監)의 당상(堂上)이나 낭관(郎官) 혹은 행사에 참여한 관원 중 공통의 관직을 가졌거나 같은 임무를 수행한 관원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계병은 대체로 관료들이 문벌 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계병의 정의는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일지사, 2000), pp. 69-78 참조.

6) 계병에 그려진 두 가지 종류의 그림에 관한 내용은 박정혜, 「《顯宗丁未溫幸契屛》과 17세기의 산수화 契屛」, 『美術史論壇』 29(2009), pp. 98-99; 김수진, 「계회도(契會圖)에서 계병(稧屛)으로: 조선 시대 왕실 계병의 정착과 계승」, 『미술사와 시각문화』 27(2021), pp. 117-118 참조.

7) 김수진, 「조선 후기 병풍 연구」(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pp. 38, 101, 108-112.

8) 朴銀順, 「正廟朝 〈王世子冊禮稧屛〉: 神仙圖稧屛의 한 가지 예」, 『미술사연구』

럼 축수(祝壽)적 기능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9] 그러나 정조 대에 궁중 계병의 화제로 책례와 상관이 없는 요지연도가 선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즉 《정묘조계병》의 요지연도는 단지 축수적 기능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1800년 책례의 특수한 의미 및 선전관이라는 집단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우현수는 요지연도가 궁중 연회에서 실제로 공연되던 악장(樂章)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10] 서왕모가 등장하는 악장으로는 '헌선도(獻仙桃)'와 '오양선(五羊仙)'이 있었다. 궁중 행사에서 이러한 악장이 춤과 노래로 공연되었다는 점은 서왕모와 관련된 고사를 통해 행사가 상서로운 서왕모의 잔치에 비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현수의 연구에서는 서왕모가 등장하는 악장과 요지연도가 연관되었을 가능성만 제시되었을 뿐 《정묘조계병》의 제작 배경이 된 행사의 의미와 작품의 구체적인 제작 맥락은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이 연구는 조선 후기의 요지연도 병풍이 실제 왕실 행사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1]

4(1990), pp. 101-112. 다음의 연구들에서도 선전관들이 왕세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했기 때문에 《정묘조계병》에 요지연도가 그려졌다고 해석되었다.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硏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예술전공 박사학위 논문, 2004), pp. 321-325; 박정혜 외, 앞의 책(2012), p. 114.

9) 서왕모가 그려진 그림은 중국에서도 기복(祈福)과 축수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명(明) 말에 출판된 문진형(文震亨, 1585-1645)의 『장물지(長物志)』 중 「서화(書畫)」 편에 수록된 '현화월령(縣畵月令)'에는 특정 시기별로 혹은 달마다 걸어놓아야 하는 그림들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장수를 축하할 때는 화원화가(畵院畫家)가 그린 수성(壽星)이나 서왕모의 그림 등을 걸어놓아야 한다(稱壽則有院畵壽星王母等圖)"라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서왕모가 그려진 그림은 중국에서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기능을 가졌다. 이러한 그림들은 수요가 높아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다. 『장물지』에 관한 연구로는 Craig Clunas, *Superfluous Things: Material Culture and Social Status in Early Modern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참조. '현화월령'에 관한 내용은 James Cahill, *Pictures for Use and Pleasure: Vernacular Painting in High Qing China*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pp. 15-16 참조.

10) 우현수, 앞의 논문(1995), pp. 65-71.

11) 서윤정은 서왕모가 등장하는 악장이 연주됨으로써 조선 국왕의 위상이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었으며 궁중 행사가 이상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Seo Yoonjung, "Connecting Across Boundaries: The Use of Chinese Images in Late Chŏson Court Art from Transcultural and

《정묘조계병》에 요지연도가 그려진 이유를 선전관의 특징 및 정치적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서윤정의 연구에서는 《정묘조계병》이 정조의 정치적 의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2] 선전관은 군사에 관한 어명을 받아 전달하며 군사권의 발동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는 국왕의 직속 무관 비서였다. 서윤정은 선전관이 이처럼 왕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정조와 정치관을 공유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서윤정은 《정묘조계병》에 요지연도가 그려진 점이 정조 8년(1784)에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786)의 책봉을 기념해 제작된 《문효세자책례계병(文孝世子冊禮契屛)》에 행사도가 그려진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하였다(도 7). 이는 당시 정조가 검약을 강조하여 실제 행사가 간소하게 치러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선전관들이 상상 속의 화려한 연회 장면을 통해 간소했던 실제 행사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림 속에 연회를 향해 가고 있는 신선들이 책례에 참석한 신하들을 연상시킨다는 점도 제시되었다.[13]

그런데 선전관들이 왕과 가까운 거리에서 왕명을 받드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 외에도 이들과 1800년 책례 사이의 특수한 관련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선전관들이 《정묘조계병》을 발의한 데에는 1800년에 이루어진 세자 책례라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속의 신선들이 실제 책례의 신하들을 연상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림 속 잔치의 주인공인 서왕모와 실제 책례의 주인공인 세자 사이에는 유사점이 없다. 아울러 《정묘조계병》은 《문효세자책례계병》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정조 대에 계병이 제작된 전반적인 양상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정묘조계병》이 정조의 정치적 의도와 관련되는지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재빈의 연구에서는 정조 대의 궁중 회화가 전반적으로 분석되었으며 당시 제작된 계병들에 나타난 정조의 정치적 의도가 고찰되었다.[14]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14), pp. 209-211.

12) 위의 논문, pp. 187-198.

13) 위의 논문, pp. 196-198.

이 연구에 따르면 정조 대의 계병들에는 문효세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정조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의식, 기물, 장소 등이 상세하게 재현되어 행사의 취지와 의미가 시각적으로 강조되었다고 한다. 즉 정조와 측근 신하들 사이의 정치적 공조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행사도라는 회화와 계병이라는 매체가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정조 대의 계병들 가운데 《문효세자책례계병》은 세자의 교육을 담당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료들이 주도하여 만든 계병이다(도 7).[15] 《문효세자책례계병》에는 정조가 책봉을 내리는 선책(宣冊)과 세자가 교명(敎命)과 책인(冊印)을 받는 수책(受冊)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또한 명문화된 절차와는 다르게 정조가 친림(親臨)한 사실이 화면에 암시되어 있어 왕권의 승계라는 개념이 시각적으로 구현되었다.[16] 아울러 문효세자의 탄생과 연관된 행사를 기념해 제작된 《진하도(陳賀圖)》(1783), 문효세자의 교육과 관련된 행사 이후 제작된 《문효세자보양청계병(文孝世子輔養廳稧屛)》(1784), 문효세자의 동궁(東宮)인 중희당(重熙堂)이라는 공간이 강조된 《을사친정계병(乙巳親政稧屛)》(1785)에도 행사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도 8, 9, 10).[17]

즉 정조 대의 계병들에는 행사 장면이 상세하게 재현되어 행사의 취지뿐만 아니라 국왕과 세자, 신료들 사이의 위계질서가 시각적으로 재현되었다. 이러한 행사도 계병의 제작과 분하(分下)를 통해 정조가 구상했던 이상적인 군신 관계가 시각화되어 전파될 수 있었다.[18] 그런데 《정묘조계

---

14) 정조 대의 왕실 계병 제작 양상에 대해서는 유재빈, 「正祖代 宮中繪畵 연구」(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pp. 157-248; 유재빈, 『정조와 궁중회화: 문예군주 정조, 그림으로 나라를 다스리다』(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pp. 241-364를 참조.

15) 《문효세자책례계병》의 행사 장면과 제작 배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정혜, 「조선시대 왕세자와 궁중기록화」, 박정혜 외,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민속원, 2005), pp. 16-19; 유재빈, 「정조의 세자 위상 강화와 〈문효세자책례계병〉(1784)」, 『미술사와 시각문화』 17(2016), pp. 90-117; 유재빈, 위의 책, pp. 296-321을 참조.

16) 유재빈, 위의 논문; 유재빈, 위의 책, pp. 296-321. 유재빈에 따르면 정조가 본래의 의주(儀註)와는 다르게 중희당(重熙堂)에서 열린 수책의(受冊儀)에 친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화면에 그려진 향안(香案), 임금의 가마와 같은 요소들에 암시되어 있다고 한다.

17) 유재빈, 「正祖代 宮中繪畵 연구」, pp. 158-248; 위의 책, pp. 244-364.

병》의 화제는 상상 속의 선경(仙境)이 그려진 요지연도이다. 요지연도는 행사도에 비하여 행사의 취지와 군신의 위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에 효과적인 그림이 아니다. 따라서 《정묘조계병》의 요지연도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결정된 그림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한편 《정묘조계병》은 주문자가 선전관이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계병이다. 일반적으로 책례계병은 책례도감(冊禮都監)이나 세자시강원과 같이 세자의 책봉 및 교육과 직접 관련된 관료들이 주문하였다.[19] 그러나 선전관청은 세자나 왕세자 책봉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행사 직후 제작된 의궤에 따르면 선전관은 책례도감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행사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지도 않았다.[20] 또한 선전관들이 책례를 비롯하여 왕실의 행사를 기념해 계병을 주문한 선례도 없었다.[21] 선전관청에

---

18) 정조는 자신의 통치 철학과 업적을 병풍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김수진, 앞의 논문(2017), p. 39를 참조.

19) 예를 들어 1690년(숙종 16)에 경종(景宗, 재위 1720-1724)의 왕세자 책례를 기념해 책례도감에서 《(경종)왕세자책례도감계병[(景宗]王世子冊禮都監稧屛]》(충재박물관 소장)을 발의하였다. 《(경종)왕세자책례도감계병》의 화제는 산수화이다. 이 계병의 서문은 李沃, 『博泉集』 卷5, 「序」, '王世子冊禮都監禊屛序' 참조. 1725년(영조 1)에는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의 책례를 기념해 세자시강원에서 '춘방을사계병(春坊乙巳稧屛)'을 발의하였다. 이 계병은 실물이 남아 있지 않으나 기록에 따르면 화제가 열선도(列仙圖)였다고 한다. '춘방을사계병'의 제작 내력이 담긴 서문은 安重觀, 『悔窩集』 卷4, 「春坊乙巳禊屛叙」 참조. 위 사례들은 모두 관료들이 함께 일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계병을 제작한 경우들이다. 《(경종)왕세자책례도감계병》의 서문에는 "우리들[吾儕]"이 영의정[上相]인 권대운(權大運, 1612-1699)에게 건의하여 계병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온다. '춘방을사계병'의 서문은 안중관(安重觀, 1683-1752)이 계병이 발의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쓴 것으로 그가 책봉례 때 함께 일했던 고인(故人)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온다. 즉 이 책례 계병들은 관료들이 함께 일한 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 만든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정조 8년(1784)에 제작된 《문효세자책례계병》의 발의자도 세자시강원 관료들이지만 독특하게 이 계병의 제작에는 국왕인 정조의 의도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효세자책례계병》과 관련된 내용은 유재빈, 「정조의 세자 위상 강화와 〈문효세자책례계병〉(1784)」 참조.

20) 『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 1800年(庚申年) 正月 初4日. "같은 날 관례책저도감 낭청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 도감의 궐내에 대령할 낭청은 전례대로 입직한 무신 겸 선전관(武臣兼宣傳官)을 차하(差下)하여 번갈아 가며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同日冠禮冊儲都監郎廳, 以都提調意啓曰, 本都監闕內, 待令郎廳, 依前例, 以入直武臣兼宣傳官差下, 使之輪回察任, 何如. 傳曰, 允.)." 이 의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사 준비 과정에서 선전관이 언급된 때는 이들이 궁궐 호위를 위해 차출된 경우뿐이었다.

21) 《정묘조계병》 이전에 무관들이 왕실 행사를 기념해 계병을 만든 사례는 발견되지

서 계회도를 제작한 적은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동관계회도(同官契會圖)로 관료들의 연대와 결속이 주된 제작 목적이었다(도 11, 12).[22]

그런데 선전관은 일반적인 무관과는 다르게 출세가 보장된 청요직(淸要職)이었다. 선전관은 무반의 고위직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였다.[23] 선전관은 향후 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직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문벌이 좋은 무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니면 선전관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졌을 정도로 선전관은 무반 벌열가 출신 인물들이 장악한 직책이었다.[24] 선전관의 높은 계급과 이들이 누리던 특권은 1800년 책례의 특성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요지연도 병풍의 독특한 시각적 특징과 용례 및 의미가 분석되어 요지연도가 가례와 관련이 깊은 그림이었음이 밝혀졌다. 박은경에 따르면 19세기에 요지연도 병풍은 왕실 가례 시에 왕비가 임시로 거처한 별궁(別宮)을 장식하는 그림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25] 서윤정은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게 조선 후기의 요지연도

않는다. 무관들이 자신들끼리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모임을 가진 뒤에 자체적으로 계회도(契會圖)를 제작한 적은 있었으나 왕실 계병을 제작하지는 않았다. 《정묘조계병》은 무관들이 왕실 행사를 계기로 계병을 발의한 첫 사례로써 주목된다. 계회도와 계병이 발의된 사례들은 박정혜, 앞의 책(2000), pp. 75-80; 윤진영, 앞의 논문, pp. 176-177, p. 246; 박정혜, 앞의 논문(2009), pp. 121-124 참조.

22) 선전관청에서 계회도를 제작한 사례들은 윤진영, 「조선후기 免新禮의 관행과 宣傳官契會圖」, 『서울학연구』 54(2014), pp. 175-214를 참조. 주목되는 점은 《정묘조계병》이 제작된 이후인 19세기 이후에는 선전관청에서 궁중 계병을 발의한 사례들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가령 1844년(헌종 10)에 제작된 《헌종가례진하도병(憲宗嘉禮進賀圖屛)》은 가례를 기념하여 선전관청에서 궁중 계병을 발의한 사례이다. 《헌종가례진하도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I (국립중앙박물관, 2010), pp. 172-175 참조.

23) 선전관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궁궐을 수비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다. 선전관에 관한 연구는 박홍갑, 「朝鮮前期의 宣傳官」, 『史學硏究』, 41(1990), pp. 119-146; 장필기, 「朝鮮後期 宣傳官出身 家門의 武班閥族化 過程」, 『軍史』 41(2001), pp. 253-280; 정해은, 「조선후기 선천(宣薦)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2001), pp. 128-160; 안병일, 「조선시대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운영과 기능, 그리고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014), pp. 25-47 참조.

24) 장필기, 위의 논문, p. 258.

25) 박은경, 「朝鮮後期 王室 嘉禮用 屛風 硏究」(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pp. 31-33, 51-61. 박은경은 별궁 설치용 병풍의 화제가 19세기에 요지연도,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 백자도(百子圖) 등으로 변화한 이유는 세도가 출

병풍에는 흥겨운 잔치 장면과 신선들의 행렬이 함께 그려진 점에 주목하였다. 서윤정은 이처럼 많은 인원이 모인 흥겨운 잔치의 분위기 속에 남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그림은 실제 왕실 가례의 현장과 매우 유사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26] 이처럼 조선 후기의 요지연도 병풍은 왕실 가례에 실제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왕실 가례를 연상시키는 그림이었다.

요지연도 병풍이 실제 왕실 여성과 이들이 거주한 공간을 연상시키는 기능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유재빈은 조선 후기의 요지연도 병풍과 궁중에서 대비(大妃)가 거처한 공간 사이의 관련성을 지적하였다.[27] 조선의 요지연도 병풍은 중국의 요지연도 작품들과는 다르게 서왕모와 잔치 장면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재빈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조선 왕실에서 대비의 공간이 동쪽에 위치한다고 여겨져 '동조(東朝)'라고 불린 사실과 관련된다고 한다.[28] 아울러 조선의 요지연도 병풍에는 중국의 요지연도 전통과는 달리 연회를 준비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여성들이 화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실제로 조선 왕실에서 여성들을 위해 열렸던 내연(內宴)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이다.[29]

이처럼 요지연도는 조선 후기의 왕실 문화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가례 및 왕실 여성과 관련이 있는 그림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요지연도

신 여성들이 머물렀던 별궁이라는 공간의 특수한 성격과 관련이 깊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6) Seo Yoonjung, 앞의 논문, pp. 199-209. 서윤정은 다양한 악기와 흥겨운 연주 장면이 묘사된 요지연도는 악기만 배설되고 연주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제의 왕실 가례를 시각적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7) Yoo Jaebin, "Feminine Space in Court Paintings of Late Joseon Dynast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5 (2022), pp. 11-82. 이 논문에서 저자는 중국미술사학자 우홍(巫鴻, Wu Hung)이 제시한 '여성 공간(feminine space)'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요지연도 속 서왕모의 공간과 실제 왕실 여성들의 공간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요지연도와 같은 고사인물화 병풍과 19세기의 궁중행사도에서 '여성 공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은 왕실 여성들이 행사의 주빈(主賓)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왕실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 공간'이라는 개념이 제시된 우홍의 저서는 巫鴻, 『中国绘画中的"女性空间"』(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联书店, 2019).

28) 위의 논문, p. 23.

29) 조선 후기의 곽분양행락도 병풍도 화면에 재현된 여성 인물들이 많다는 점, 악기 연주와 무용 장면, 악기의 종류 등으로 인해 실제 왕실 가례를 연상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Seo Yoonjung, 앞의 논문, pp. 233-237.

는 단지 축수용 그림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실제 조선 왕실의 문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30] 《정묘조계병》의 요지연도 또한 당시 요지연도에 부여된 특수한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묘조계병》의 화제가 요지연도로 선택된 이유도 왕실 가례 혹은 실제 왕실 여성의 공간과 관련이 깊었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요지연도라는 화제 및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묘조계병》이 제작된 동기를 밝히고자 한다. Ⅱ장에서 필자는 이 계병을 정조 대의 계병들과 비교하며 작품의 서문 및 제작 시기를 재검토할 것이다. 이 계병은 화제 면에서 정조 대의 다른 계병들과는 극명하게 다르다. 정조 대의 계병들에는 모두 행사도가 그려졌으며 행사도는 국왕과 측근 신하들 사이의 위계질서와 정치적 공조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했다. 그러나 《정묘조계병》에는 행사도가 아니라 요지연도가 그려져 있다. 필자는 《정묘조계병》의 좌목을 검토하여 이 계병이 정조의 사망으로 미루어졌던 가례가 거행된 1802년 10월 이후에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미완성된 계병이 시간이 흐른 뒤에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완성된 사례들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정묘조계병》도 가례를 계기로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밝혀진 작품의 제작 시기는 이 작품의 화제가 정조 대의 계병들과 다른 이유를 규명할 단서가 될 것이다.

Ⅲ장에서는 순조의 책례 및 가례에 내포되었던 정치적 의미와 선전관들의 정치적 위상이 고찰될 것이다. Ⅲ장의 초점은 선전관들이 계병을 완성한 계기가 1802년의 가례였을 이유에 맞추어질 것이다. 정조는 1784년에 《문효세자책례계병》을 분하하여 자신의 측근 신하들에게 세자 보위의

---

30) 서왕모와 같이 고대의 신화에 근거를 둔 도상이나 상징은 항상 고정된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이들은 신화 텍스트(text)의 시각적 재현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징도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는 변화했다. 아울러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동일한 상징도 다르게 수용되고는 하였다. 즉 어떠한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도상의 출처가 되는 문헌이나 기원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대의 맥락에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를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을 객관적이고 고정된 지식의 반영물로 분석하기보다는 동시대의 다양한 맥락을 통해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는 Margaret Iversen, "Retrieving Warburg's Tradition," *Art History* 16, no. 4 (1993), pp. 541-553 참조.

책임을 맡긴 바가 있었다. 1800년에 선전관들 또한 측근 무관으로서 세자를 보호할 책임을 맡게 되며 책례계병의 분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세자가 열다섯 살이 되는 1804년에 양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조정의 대신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즉위 후에도 군대를 직접 지휘할 수 없었다. 이에 정조는 책례와 함께 가례를 동시에 추진하여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을 세자의 측근으로 만든 동시에 그가 군사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선전관들은 군권을 쥔 김조순과 정치적 유대를 맺었다. 그러나 정조의 사망 이후 벽파(僻派)가 집권하자 가례의 진행에는 차질이 생겼으며 정조 대의 핵심 관료들이 숙청되기 시작했다. 김조순을 비롯한 시파(時派) 관료들과 선전관들도 세력이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가례가 1802년에 성사됨에 따라 김조순이 국구(國舅)로서 군권을 갖게 되었으며 선전관들 또한 권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선전관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여 미완성 상태였던 계병을 가례를 기점으로 완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장에서 필자는 《정묘조계병》의 화제가 요지연도로 선택된 이유를 고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지연도가 1802년의 가례와 관련이 깊었으며 왕비로 책봉된 순원왕후를 연상시켰다는 점이 논의될 것이다. 요지연도는 조선 후기에 혼례에 사용되는 그림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1802년에 가례가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는 요지연도 병풍이 설치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대조전이 새로 왕비가 될 순원왕후가 거처할 곳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순원왕후의 부친인 김조순은 상의원(尙衣院) 제조(提調)를 맡아 가례 때 대조전에 배치될 기물을 관리하였다. 이는 김조순의 관여로 순원왕후의 공간에 요지연도 병풍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정조 대 말부터 순조 대까지는 서왕모가 왕실 여성을 행사의 주인으로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활용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었다. 정조는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 1735-1816)의 회갑을 맞아 서왕모와 관련된 시와 회화를 주문하였다. 순조 대에도 순원왕후가 주인공이 된 행사에서 서왕모를 활용한 비유가 사용되었다. 《정묘조계병》의 화제인 요지연도 또한 가례를 기념하는 그림이었던 동시에 순원왕후를 가

례의 주인공으로 부각할 수 있는 그림이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정묘조계병》이 차기 국왕의 친위 세력을 형성하려는 정조의 구상에 따라 선전관들에게 분하되었으나 실제로는 순원왕후의 가례가 성사된 이후에 완성되었음을 밝히는 글이다. 선전관들은 가례를 계기로 김조순이 국구가 되자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여 계병을 완성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정묘조계병》의 독특한 화제인 요지연도를 외척이 군사권을 장악하며 권력을 강화한 세도정치기(勢道政治期)로의 이행 과정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Ⅱ.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의 화제(畫題) 및 제작 시기

1. 정조 대 계병들과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의 제작 양상 차이

《정묘조계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 각각 한 점씩 소장되어 있다. 그중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정묘조계병》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제1폭의 서문과 제8폭의 좌목이 온전히 남아 있다(도 3, 4). 《정묘조계병》에 남아 있는 서문과 좌목을 통해 작품의 제작 동기가 1800년의 왕세자 책례였으며 계병의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이 선전관청의 관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2폭에서 제7폭까지는 서왕모가 주(周) 목왕(穆王)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고 여러 신선이 바다를 건너오는 모습이 연폭(連幅)에 그려져 있다(도 5, 6). 계병의 서문을 쓴 인물은 이시수(李時秀, 1745-1821)이다. 서문을 쓸 당시 그는 우의정(右議政)이었다. 이시수가 우의정이었던 시기는 1799년 4월부터 1800년 7월 4일까지이다. 이에 근거하여 《정묘조계병》도 책례 이후부터 1800년 7월 4일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왔다.[31]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에 경사스러운 큰 예식이 있을 때면 근신(近臣)들이 병풍으로 그 일을 그리게 한 다음 왼쪽에 이름을 써서 후세 사람들이 옛일[故事]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 우리 성상께서 즉위하신 지 24년(1800)이 되는 음력 2월 2일 을유일(乙酉日)에 집복헌(集福軒)에서 우리 왕세자의 책봉례를 거행하였는데 먼저 관례(冠禮)를 행하고 그다음에 왕세자 책봉례를 거행하였다. 그런 다음 유사(有司)에게 거듭 명하여 가례(嘉禮)를 행할 길일(吉日)을 택하여 올리게 해서 삼례(三禮)[관례, 책봉례, 가례]를 일시에 함께 거행하게

31) 박본수, 앞의 논문(2020), p. 146.

되었으니 이는 신묘년(1651, 효종 2)에 우리 현묘조(顯廟祖)의 (관례, 책봉례, 가례를 한 해 동안에 거행한) 아름다운 규례를 따른 것이다. 이날은 봄기운이 화창하여 구름과 해도 맑고 고왔으며 상서로운 빛과 맑은 기운이 위아래에 함께 흘렀다. 우리 춘궁(春宮) 저하께서는 현단복(玄端服)과 칠장복(七章服) 차림으로 옥인(玉印)과 죽책(竹冊)을 영광스럽게 받으시는데 용모도 엄숙하고 예의도 발라서 예를 행하는 하나하나의 동작들이 모두 법도에 맞으셨다.

대궐 뜰에 줄지어 있던 빈(賓)과 찬(贊), 집관관(執冠官), 작례관(酌醴官), 사(師)와 부(傅) 및 빈료(賓僚),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兩坊]의 관원, 공경대부사(公卿大夫士)로부터 아래로 낭청(郞廳)과 위사(衛士)들까지 모두 목을 빼고 발꿈치를 들고서 청아한 왕세자의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성대한 예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지극한 영광과 크나큰 행운으로 여겼다. 밖으로는 부녀자와 어린아이들, 하인들, 벙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앉은뱅이까지도 모두 기뻐하며 두 손 모아 성상이 계신 곳을 향해 축하를 드리니 이른바 백성의 마음[民情]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몸가짐이 매우 제때에 맞거늘 군자에게 효자가 있도다. 그 군자에게는 만년토록 천명(天命)이 항상 함께하리라"라고 하였으며, 『시경』에 또 이르기를 "아, 만년토록 하늘의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복을 받으시매 사방에서 와서 하례(賀禮)하도다"라고 하였으니 이런 경우를 말한 것일 것이다.

예식이 끝난 뒤에 선전관청(宣傳官廳)에서는 옛일을 따라(倣故事) 병풍을 만들어 내가 예전에 문신겸선전관(文臣兼宣傳官)을 맡은 적이 있다고 하여 서문(序文)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무릇 경사로는 나라에 왕세자가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예 중에는 왕세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성대한 일이다. 무관에서의 선전관은 바로 문관에서는 예문관(藝文館)[翰苑] 관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금과 매우 가까이 있는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성은을 받는다. 그러니 오늘날 송축(頌祝)하는 직책과 환호하는 마음이 또 이 근신(近臣)들만한 이가 없다. 이것이 선전관 관원들이 경사를 기록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일을 행하려는 이유이고 내가 이것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행운으로 여겨 감히 글재주가 없다는 것으로 사양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옛날에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 편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 그것에 관한 기문(記文)을 써서 함께 전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세자로 있을 때) 날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세 차례씩 한 행동[아버지 왕계(王季)를 찾아뵌 일]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으나 (문왕의) 금옥(金玉) 같은 상(相), 끊임없이 계속해 진취시켰던 공부, 선량하고 인자하며 온화하고 공손했던 덕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나라 800년의 기틀이 애당초 이 그림에 근원을 두었으니 그림 또한 도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훗날 종묘사직(宗廟社稷)이 억만년이 되도록 태산반석(泰山磐石)처럼 굳건해진 원인과 신하들이 천년에 한 번 만났던 성대함을 알고 싶어 하는 자들이 이 책례계병도(冊禮稧屛圖)를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원임(原任) 문신 겸 선전관(文臣兼宣傳官)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이시수(李時秀)가 쓰다.[32]

서문의 내용에 따르면 이 계병은 1800년 음력 2월 2일에 거행된 세자 책례를 기념하여 선전관청 관료들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이 계병은 정조 재위기의 마지막 해에 제작되었다고 여겨져 정조 대에 제작된 계병들과 함께 분류되어 연구되었다.[33]

---

32) 서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國家有大慶禮, 近列之臣, 屛以繪其事, 題名于左, 以爲後人觀故事也. 我聖上御極之二十有四年仲春初吉之越翼日乙酉, 冊我王世子於集福軒, 先行三加禮, 次行冊儲禮. 申命有司, 涓進嘉禮吉日, 三禮之並擧一時, 式遵我顯廟辛卯徽規也. 是日也, 春氣方暢, 雲日朗麗, 祥光淑氣, 上下同流. 我春宮邸下, 玄端七章, 光受寶冊, 儼若之德容, 煥乎之禮儀, 周旋折旋, 動合規度. 若賓若贊, 若執冠者, 若酌醴者, 若師傅賓僚兩坊之官, 公卿大夫士之列于庭者, 下至陛郎衛士, 莫不延頸跂足以瞻淸光, 而興盛會爲至榮大幸, 外而婦孺廝隸, 瘖聾跛躄, 亦莫不欣欣然攢手于天, 所謂民情大可見焉. 詩曰, 威儀孔時, 君子有孝子, 君子萬年, 景命有僕, 又曰, 於萬斯年, 受天之祜, 受天之祜, 四方來賀, 其是之謂歟. 禮旣成, 宣傳官廳倣故事, 作爲屛圖, 謂不佞曾有兼啣, 屬以序之. 夫慶莫大於國有元良, 禮莫盛於建我儲嗣. 武之宣傳, 則文之翰苑, 職親地密, 受恩最深, 則今日頌祝啣蹈舞之情, 又莫近臣若也. 此諸君所以有志慶飾喜之擧, 而不佞所以幸玆托名, 不敢以蕪拙辭也, 昔有以文王世子篇爲圖, 與戴記同傳, 而一日三朝之儀, 可圖也, 金玉之相, 緝熙之工, 徽柔懿恭之德, 不可圖也. 然而周家八百之墓, 未始不本於是圖, 則圖亦不爲無助, 後之欲識宗社億萬磐泰之安, 諸臣千一遭遇之盛者, 觀於冊禮稧屛圖, 庶幾得之云爾. 原任文兼宣傳官,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 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 李時秀書." 서문의 원문과 번역문은 박본수, 위의 논문, pp. 142-143에서 인용하였으며 번역문은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33) 김수진의 연구에서는 《정묘조계병》이 《순조왕세자책례계병(純祖王世子冊禮稧屛)》이라고 명명되었으며 정조 대에 마지막으로 제작된 계병으로 다루어졌다. 김수진, 앞

그런데 《정묘조계병》은 정조 대에 왕실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계병들과는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현재 전해지는 정조 대의 계병인 《진하도》, 《문효세자보양청계병》, 《문효세자책례계병》, 《을사친정계병》에는 모두 행사도가 그려져 있다(도 7, 8, 9, 10).[34] 이 점을 고려하면 정조 대의 행사를 기념해 제작된 계병에 《정묘조계병》과 같이 행사와 관련이 없는 요지연도가 그려졌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조 대의 계병들에 행사도가 그려진 이유는 행사도가 행사의 취지를 강조하고 국왕과 신하들 사이의 위계를 시각화하기에 효과적인 화제였기 때문이다. 현전하는 정조 대의 계병들에는 의례와 건물의 묘사 혹은 시점을 통해 국왕과 세자 및 신하들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시각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문효세자보양청계병》에는 원자의 자리가 화면의 위쪽에 배치되어 있어 원래 동서(東西)로 마주 보고 있어야 할 원자와 보양관(輔養官)들 사이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표현되었다(도 13).[35] 이처럼 정조 대의 계병들에는 문효세자와 관련된 의식 혹은 건물의 재현을 통해 문효세자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행사도가 그려졌던 것으로 판단된다.[36] 한편 행사도는 정조와 그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근신들 사이의 유대를 드러내고 문효세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조의 업적을 더 넓은 감상자층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제작되었다. 1795년의 화성 원행 이후에는 행사도가 병풍이나 족자의 형식으로 제작되어 정리소(整理所)에 소속되었던 관료 141명 전원에게 분하되었다.[37]

의 논문(2017), p. 38. 유재빈의 연구에서도 《정묘조계병》은 정조 대에 제작된 계병 6점 중 한 작품으로 다루어졌다. 유재빈, 앞의 책, p. 246.

34) 정조 대에 제작된 계병으로는 《진하도》(1783), 《문효세자보양청계병》(1784), 《문효세자책례계병》(1784), 《을사친정계병》(1785) 외에도 실물이 남아 있지 않은 1781년의 《행원회강도병(幸院會講圖屛)》이 있다. 이외에도 실물은 남아 있지 않으나 1781년 윤 5월 8일에 행해진 정조의 관예(觀刈)를 기념해 제작된 《친림관예도병(親臨觀刈圖屛)》이 있다. 1795년의 《화성원행도병(華城園幸圖屛)》도 정조 대의 계병에 포함된다. 정조 대의 계병들에 관한 내용은 위의 책, p. 243; 위의 논문, pp. 32-33 참조.

35) 위의 책, pp. 283-288.

36) 정조 대의 행사도 계병들에 문효세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 정조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은 위의 책, pp. 244-364 참조.

37) 《화성원행도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의 책, pp. 365-448; 박정혜, 앞의 책(2000), pp. 295-318, 385-397을 참조.

이렇게 제작된 행사도는 행사에 참여한 신하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나누어졌으나 이에 더하여 정조의 치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널리 퍼뜨리는 기능도 했을 것이다.[38] 당시 제작된 계병이 《화성원행도병(華城園幸圖屛)》이다(도 14). 이 계병에는 국왕과 측근 신하들 사이의 위계를 보여주기보다는 당시 행사가 매우 성대했음을 알리려는 목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정조 대의 행사도 계병은 정조가 자신의 치적을 시각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도 제작되었다.

이처럼 행사도가 그려진 정조 대의 계병들은 내입되어 정조가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조 9년(1785)에 정조가 직접 참석한 도목정사(都目政事)를 기념해 제작된 《을사친정계병》은 좌목에 관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이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해 나누어 가진 형식을 띠고 있다(도 10). 그러나 실제로 이 계병은 정조가 신하들에게 내사(內賜)한 병풍이었다.[39] 《을사친정계병》은 정조의 측근 신하들이 대표가 되어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면에도 국왕의 권위가 시각적으로 강조되어 있으며 병풍의 상단에 정조가 하사한 병풍이라는 글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이다.[40] 즉 도목정사를 기념해 제작된 기존의 친정계병들이 관료들끼리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다르게 《을사친정계병》은 정조의 주도로 완성되고 분하되었다.[41] 이처럼 정조 대의 계병들은 표면적으로는 신하들이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고자 자발적으로 제작한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왕인 정조가 계병을 제작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계병의 제작은 왕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42]

---

38) 김수진, 앞의 논문(2017), p. 37.

39) 유재빈, 「정조의 중희당 친림도정의 의미와 〈乙巳親政契屛〉(1785)」, 『한국문화』 77(2017), pp. 193-233.

40) 정조가 《을사친정계병》의 제작에 깊이 관여한 점과 정조가 의도했던 효과에 관한 내용은 위의 논문을 참조.

41) 조선시대에 제작된 친정도(親政圖)에 관한 내용은 홍석인, 「조선시대 親政圖 연구」(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을 참조.

42) 김수진, 앞의 논문(2017), p. 35. 정조 대의 궁중회화를 단독 주제로 다룬 유재빈의 선행 연구에서는 정조가 왕실 계병의 실질적인 제작 주체였음이 파악되었다. 국왕이 계병의 제작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은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정조 대의 특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재빈, 「正祖代 宮中繪畫 연구」, pp. 157-248; 유재빈, 앞의 책, pp. 241-364.

정조가 재위 5년(1781)에 창덕궁 이문원(摛文院)에서 강회(講會)를 가진 뒤에 이를 기념하여 주문한 계병을 통해서도 당시 정조의 면밀한 주도로 계병이 제작되던 양상을 알 수 있다. 이 계병의 실물은 남아 있지 않으나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정조가) 비망기(備忘記)를 통해 정민시(鄭民始)에게 전교하기를, "무릇 드러내 알릴만한 공적이 있으면 그림으로 그리고 병풍도 만들어서 성명(姓名)을 그중에 쓰고 사실(事實)을 그 말미에 기록하여 이를 계병(稧屛)이라고 하는데 계병이 만들어진 지는 오래되었다. 일전에 이문원의 강회에 행행한 것은 바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성대한 때였다. 더구나 이문원을 설치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그림이 없어서는 안 되고 글도 없어서는 안 된다. 계병을 만드는 옛 일에 따라(依稧屛故事) 즉시 화공(畫工)으로 하여금 규장각 강회를 그려내게(畫出閣會) 하라"라고 하였다. 이어 명하기를 "전(前) 대제학(大提學) 서명응(徐命膺)은 발문(跋文)을 짓고 연석에 참석한 각신은 각각 근체시(近體詩)와 고체시(古體詩) 중에서 한 수씩 지어 올리며 계병의 뒷면에는 이문원 강회에 참석했던 신하들의 성명을 열서(列書)하라. 병풍 한 건은 대내(大內)로 들이고 한 건은 이문원에 올리며 시임(時任) 각신(閣臣)과 발문을 쓴 대제학(大提學)에게 각 한 건을 반사(頒賜)하되 모두 어보(御寶)를 찍어 전해 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43]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정조가 매우 구체적으로 각신들에게 계

---

43) 『內閣日曆』 9冊, 1781年 3月 20日(癸巳). "以備忘記傳于鄭民始曰, 凡有可以表識之蹟, 作圖又作屛, 姓名題其中, 事實記其尾, 是謂之稧屛, 稧屛之作久矣. 日昨幸院講會, 卽千一晛際, 況是設院後初有之事, 不可無圖又不可無文. 依稧屛故事, 卽令畫工畫出閣會. 仍令前大提學徐命膺撰跋, 閣臣各賦近古體中詩一首以進之, 屛後列書陞堂諸臣姓名. 屛風一件內入, 一件院上, 時任閣臣及撰跋大提學, 各頒一件, 皆安寶以傳." 이 기록의 출처 및 원문과 번역문은 김수진, 위의 논문, p. 34에서 인용하였다. 이문원 강회를 기념해 제작된 계병에는 국왕이 책을 반사할 때 사용한 동문지보(同文之寶)가 찍혔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內閣日曆』 11冊, 1781年 5月 28日(癸巳). "直提學沈念祖以領籤啓曰, 親臨摛文院講會圖屛, 頒賜件安寶次, 請出同文之寶." 정조의 명에 따라 서명응이 지어 올린 서문과 각신들이 지어 올린 시는 『內閣日曆』 11冊, 1781年 5月 17日(己丑)에 기록되어 있다. 서명응의 서문은 그의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徐命膺, 『保晩齋集』 卷7, 「序」, '幸院會講圖屛序'.

병의 제작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계병은 각신들에게 하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에도 내입되었다. 시임과 원임(原任) 각신 16명은 감사를 표하는 전문(箋文)과 함께 계병을 정조에게 진상하였다.[44] 이문원 강회 후 제작된 계병은 실물이 남아 있지 않으나 "규장각 강회를 그려내야(畵出閣會)" 한다는 정조의 언급으로 볼 때 행사도가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1781년 윤 5월 8일에는 국왕이 친림하여 적전(籍田)에서 추수하는 광경을 보는 관예(觀刈)가 끝난 뒤에 계병이 제작되었다.[45] 정조의 관예는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대의 전례를 충실히 따른 것이었다. 정조가 신하들과 의식의 자세한 사항을 결정할 때 영조 대에 만들어진 '친경도병(親耕圖屛)'과 '관예도병(觀刈圖屛)'이 참고되기도 했다.[46] 정조가 관예를 마치자 모든 규장각 각신들은 성대한 아름다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화공(畫工)을 불러 그 일을 그려 병풍으로 만들게 한 뒤 병풍을 정조에게 진상하였다. 이에 정조는 이복원(李福源, 1719-1792)에게 계병의 서문을 지으라고 명했다.[47] 이 계병의 제작 과정을 보면 결국 계병의 최

---

44) 유재빈, 「正祖代 宮中繪畫 연구」, p. 171.

45) 당시 선농단(先農壇)에서 행해진 관예에 대해서는 『正祖實錄』 正祖 5年 閏5月 8日 참조.

46) 영조 15년(1739)에는 친경도(親耕圖) 병풍과 의궤가 영조에게 진상되었다. 영조는 영조 23년(1747)에 관예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관예의 의주를 새로 수립하였다. 이때 관예도(觀刈圖) 병풍이 제작되었으나 이 병풍의 제작과 관련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정조와 신하들이 나눈 대화 중 기미년(己未年, 1739)과 정묘년(丁卯年, 1747)의 친경도병과 관예도병을 참고하자는 기록이 있어 1747년에도 병풍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承政院日記』 正祖 5年 閏5月 5日. 영조 40년(1764)에도 친경도 족자 두 점이 제작되어 하나는 왕실에 내입되고 다른 하나는 왕세손이었던 정조의 거처인 동궁(東宮)에 배치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承政院日記』 英祖 40年 1月 8日. 영조 대의 친경 의식과 친경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지영, 「英祖代 親耕儀式의 거행과 『親耕儀軌』」, 『한국학보』 28(2002), pp. 55-86 참조.

47) 李福源, 『雙溪遺稿』 卷9, 「序」, '親臨觀刈圖屛序'. 이복원이 지은 서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我聖上五年中夏之閏, 太常寺奏籍田麥登. 上曰, 嘻, 觀刈之禮, 聖祖攸行. 予小子其敢不躬, 迺命宗伯, 諏日具儀, 司農庤田器, 太史撰樂歌, 祗遣輔臣, 告于先農氏, 維庚戌御法服法駕, 戾于農壝之側, 觀刈之臺, 有司供幄帟筐筥畢, 具樂初奏, 刈者旅進載穫, 實堅且好. 上敬受以授有司, 薦于太室, 頒勞酒于卿士庶人, 誕敷大誥, 歷叙重本厚農之義, 繼志述事之孝, 末以農師田畯之事, 勉勵長吏, 以祈屢豐. 是日也天雨新霽, 野無氛埃, 風淸日麗, 旂仗鮮耀, 艷衣巾手刜銍, 卽撫田而穫之挃挃者, 其耦二十, 揖讓周旋于臺之下田之畔, 以相其事者, 耕籍使太常官暨觀察使邑令也, 左右黼座, 覿盛光而霑渥恩者, 輔臣閣臣九卿三司也. 百僚之立于列, 六軍之環于幄者, 莫不跂足翹首, 以先覩爲快, 從邁爲榮, 而都人士女

종 검토자가 국왕인 정조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조는 병풍을 본 뒤에 서문을 지을 신하를 직접 선정하는 등 계병의 내용과 형식에도 면밀한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즉 정조 대에 제작된 계병들은 국왕이 감상하고 승인할 것을 전제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또한 영조 대의 친경도병에 행사도가 그려져 있었다는 점과 이복원이 지은 서문에 "그 일을 그리다(繪其事)"라는 표현이 쓰인 것으로 보아 정조 대의 관예도(觀刈圖) 병풍에도 행사 장면이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48]

이처럼 국왕이 계병을 제작하는 일에 관여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때는 영조 대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그 이전인 17세기까지는 관료들이 행사를 마친 뒤에 경비를 각출하여 원하는 그림으로 계병을 제작해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영조 대 이후에는 계병이 왕의 명령에 따라 제작되고 내입되는 등 왕실 차원에서 관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49] 정조 대에 접어들면 병풍이라는 매체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행사도 계병들 또한 왕실의 관리와 통제 아래 상세하게 기획되어 만들어졌다. 영조 대까지는 행사가 끝난 뒤에 제작된 그림을 뜻하는 '계화(稧畵)'의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으나 정조 대에는 병풍 형식의 계화인 계병이 주로 제

之傾城布野者, 望屬車之塵, 聞筦籥之音, 亦莫不奔走踴躍, 相告以喜, 以及八方之罷癃瘖躄, 扶杖而聽詔者, 咸有少須臾無死, 思見德化成之願, 於是乎禮成乎上. 樂洽乎下, 神祇降嘏, 耋艾騰詠. 諸閣臣謂盛美不可以無傳, 召工繪其事于屛以進, 上命臣福源序之. 臣拜手稽首敬復曰, 於乎休哉. 是禮也一擧而有三善焉. 踐其位行其禮, 以比先王觀也知稼穡之艱. 念粢盛之重, 以爲萬民先也. 野人而用君子之禮, 君子而嘗野人之食, 秩然有序者禮也. 驩然無間者樂也. 示民以禮樂而教化行於其間也. 迺若播告之辭, 原本古禮, 闡揚先休, 行縟儀而不敢專. 有三善而不自多, 盖有得乎自古在昔先民有作之遺意, 而憂民望歲, 發於至誠, 以雅頌訓誥之文, 叙畎晦塲圃之事, 儆戒勸勉, 殷勤篤厚, 藹然有三代聖王之心, 不亦休哉. 臣請因是而有祝焉. 昔我聖祖義起斯禮, 寶袤彌隆, 不懈益虔, 以之克享天心, 受祿無疆. 乃聖上新服厥命, 亦旣肯穫, 繼自今勿替, 引之永觀厥成, 配聖祖之遐福. 躋斯民於大有, 詞人之頌. 畫工之筆, 將有不勝其摹寫者矣. 詩曰, 於皇來牟, 將受厥明, 明昭上帝, 迄用康年. 又曰, 昭玆來許, 繩其祖武, 於萬斯年, 受天之祜. 我聖上有焉." 이 중 필자가 계병이 제작된 내력과 관련하여 본문에 인용한 부분에는 밑줄 표시를 하였다.

48) 영조 대의 친경도병에 친경 장면이 그려져 있었음을 밝힌 연구는 김지영, 앞의 논문, pp. 66-72.

49) 궁중행사도 계병은 18세기 이전까지는 관료들끼리 제작하고 분배하던 기념물이었다. 왕의 지시에 따라 관원들의 분배용만이 아니라 어람용 계병이 제작된 현상은 18세기 후반 이후에 나타난 변화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장은 박정혜, 앞의 책(2000), pp. 82-83, 267-295; 김수진, 앞의 논문(2017), pp. 99-100 참조.

작되었다.[50] 계화의 형식이 병풍으로 통일되었다는 점은 정조 대 왕실에서 계병이라는 매체가 갖던 중요성을 방증한다.

이처럼 정조 대 계병들이 왕실의 통제 아래 면밀하게 기획되고 제작된 명분은 계병이 감계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었다. 정조 대에 행사도 계병이 제작된 취지는 서명응이 《행원회강도병》에 지은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서문에 따르면 이 병풍은 단지 성사(盛事)를 베풀어 놓는 도구가 아니라 내각의 관료들이 보고 성찰하는 계율로 삼아야 할 그림이었다고 한다.[51] 당시 서명응을 비롯하여 계병을 분하받은 관료들은 정조의 측근인 규장각 각신들이었다. 즉 이 계병은 이들이 국왕과 정치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근신임을 보여주는 징표로 기능했다. 또한 각신들이 계병을 분하받는 행위에는 이들이 앞으로도 정조의 통치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즉 정조 대의 계병에 그려진 행사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묘조계병》의 화제는 정조 대에 왕실에서 계병을 제작한 명분인 회화의 감계적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서문과 좌목 및 그림의 제작 시기에 대한 재검토

《정묘조계병》의 화제는 기존의 정조 대 계병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묘조계병》은 정조의 명령으로 발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조 대 계병들의 서문이 작성되던 양상을 고려했을

---

50) 김수진, 앞의 논문(2021), pp. 102-127.

51) 徐命膺, 『保晩齋集』 卷7, 「序」, '幸院會講圖屛序'. "이후 내각에 임하여 일하는 자들이 (임금의) 덕의(德意)를 받들어 널리 알릴 것이니 …… 이에 이 병풍을 펼쳐 놓아 관성(觀省)할 수 있도록 갖추었습니다. (이 병풍을 보면) 반드시 격렬한 마음이 일어 스스로 바로잡고 쇄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병풍이 어찌 단지 성사를 베풀어 놓는 도구일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후일 내각의 관잠(官箴)[관리로서 지켜야 할 계율]이 될 것이니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감히 이를 내각의 신료들이 권면할 것으로 삼으니 삼가 그것에 서문을 씁니다(嗣後任閣職者對揚德意, …… 則乃展是屛, 乃備觀省. 必有激昂之心而思自振刷, 然則是屛奚但爲鋪張盛事之具哉. 其爲他日內閣之官箴, 亦不異矣. 敢以是爲閣僚勉, 謹爲之序)."

때 《정묘조계병》의 서문 작성을 지시한 주체는 정조였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조는 왕실의 행사가 끝난 뒤에 계병을 제작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문을 작성할 신하를 직접 지정하였다. 정조는 1781년 3월에 창덕궁 이문원에서 회강을 가진 뒤에 《행원회강도병》의 제작을 명하고 서명응에게 서문을 짓게 하였다. 그런데 서명응이 지은 서문에는 그에게 서문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이들이 규장각 각신들이었다고 나와 있다.

> 우리 성상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맨 먼저 규장각(奎章閣)을 세우시고 각신(閣臣) 6인을 두었는데, 직무는 임금이 지은 글을 봉안하고 도서를 담당하는 것이고, 사무는 논사(論思)에 대비하고 청아(菁莪)를 읊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각신 등이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 일은 우리 조정에서 바라던 바만이 아니라 중조(中朝)에서 천백 년간 구하던 것으로 많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그 일을 모사하여 내각의 기상(旂常)을 대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고 병풍을 만들게 한 다음 신(臣)에게 서문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52]

그러나 위의 기록과는 다르게 실제로 서명응에게 서문을 지으라고 명한

52) 徐命膺, 『保晩齋集』 卷7, 「幸院會講圖屛序」. "我聖上卽阼之初, 首建奎章閣, 置閣臣六人, 其職則奉宸藻典圖書也. 其事則備論思詠菁莪也. …… 於是閣臣等相與議曰, 是擧也不惟我朝之所稀有, 求諸中朝千百年間, 未之多見. 盍模其事以代旂常於閣也. 乃令工畵者, 爲圖爲屛, 屬臣命膺敍之." 기상(旂常)은 주(周)나라에서 훌륭한 공을 세운 공신(功臣)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그 공을 기리던 깃발을 의미한다. 이 계병에 당시 규장각 제학이었던 유언호(俞彦鎬, 1730-1796)가 쓴 또 다른 서문이 전한다. 유언호의 서문에는 "주상께서 그림을 그려 병풍을 만들고 글을 지어 서문을 지으라고 명했다(上命繪畫爲屛文以叙之)"라고 나온다. 俞彦鎬, 『燕石』 冊1, 「序」, '摛文院契屛序'. 유언호의 서문의 번역문은 유언호, 『연석(燕石)』1, 오항녕·이주형 역(흐름출판사, 2019), pp. 75-76 참조. 그런데 이 번역서에는 해당 구절이 "주상께서 그림을 그려 병풍을 만들라고 명하고 글을 지어 설명하셨다"라고 해석되어 있다. 그러나 『내각일력』의 기록과 비교하고 문맥을 검토했을 때 정조가 직접 글을 지은 것이 아니라 신하에게 서문을 지으라고 명령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유언호의 서문에는 각신들이 정조가 제작을 지시한 계병 외에도 자체적으로 별도의 계병을 제작해 나누어 가졌다(遂私相與謀, 別爲契屛以分藏)는 내용이 나와 있어 흥미롭다.

이는 정조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조는 이문원의 강회를 기념해 각신들에게 계병을 제작하라고 명한 뒤에 서명응에게 발문을 짓도록 하였다.[53] 즉 정조는 서명응에게 서문을 짓도록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다. 서명응은 규장각이 세워졌을 때 첫 번째로 제학(提學)에 임명되는 등 정조를 재위 초부터 가까이에서 보좌한 인물이었다. 정조가 서명응에게 서문을 작성하라고 명한 이유는 그가 정조의 정치를 도운 측근 신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명응이 서문에서 규장각 각신들의 부탁을 받아 서문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정조 대의 계병들이 표면적으로 신하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작되는 형식으로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대부들의 문화였던 계회도 제작의 관행을 왕실에서 전용하면서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계회도를 제작하는 방식이 유지된 결과였다.[54] 따라서 서문에 신하들이 서문을 써 주기를 부탁했다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이를 지시한 주체는 정조였다.

정조는 1781년 윤 5월 8일의 친경을 기념해 제작된 《친림관예도병(親臨觀刈圖屛)》에도 서문을 작성할 신하를 직접 지정하였다. 이때 정조가 서문의 작성을 명한 신하는 이복원이었다.[55] 이복원은 정조가 세손일 때부터 그의 보양과 교육에 관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초대 규장각 제학을 지내며 정조의 신뢰를 얻은 신하였다.[56] 이처럼 정조는 계병을 제작할 때 자신의 측근 신하 중에서 서문을 지을 신하를 직접 지정하였다.

1784년에 문효세자와 보양관들의 상견례(相見禮)를 기념해 제작된 《문효세자보양청계병》에 보양관이자 우의정이었던 이복원이 서문을 쓴 것도

---

53) 『內閣日曆』 9冊, 1781年 3月 20日(癸巳). "'전(前) 대제학(大提學) 서명응(徐命膺)은 발문(跋文)을 짓고 연석에 참석한 각신은 각각 근체시(近體詩)와 고체시(古體詩) 중에서 한 수씩 지어 올리며 계병의 뒷면에는 이문원 강회에 참석했던 신하들의 성명을 열서(列書)하라. 병풍 한 건은 대내(大內)로 들이고 한 건은 이문원에 올리며 시임(時任) 각신(閣臣)과 발문을 쓴 대제학(大提學)에게 각 한 건을 반사(頒賜)하되 모두 어보(御寶)를 찍어 전해 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 기록의 원문과 번역문은 주 42 참조.

54) 조선 후기에 왕실에서 계병 제작의 전통을 전용한 양상은 김수진, 앞의 논문(2021) 참조.

55) 李福源, 『雙溪遺稿』 卷9, 「序」, '親臨觀刈圖屛序'. 이 기록의 원문은 주 46 참조.

56) 유재빈, 앞의 책, p. 273.

정조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복원의 서문에는 “여러 관료들이 부탁하여 복원이 서문을 씁니다”라고 나와 있다.[57] 그런데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은 보양청과 국왕인 정조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제작된 병풍으로 추정된다.[58] 정조가 계병의 서문을 작성할 신하로 자신의 측근 신하를 지정하였던 정황을 고려할 때 《문효세자보양청계병》에 적힌 이복원의 서문 또한 정조의 지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조 대의 계병들에 관료들이 서문의 작성을 “부탁했다(屬)”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더라도 실제로 서문을 요구한 인물은 정조였으며 최종적으로 정조의 승인을 거쳐 서문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정묘조계병》의 서문 또한 정조의 지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시수가 지은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 예식이 끝난 뒤에 선전관청(宣傳官廳)에서는 옛일을 따라(倣故事) 병풍을 만들어 내가 예전에 문신겸선전관(文臣兼宣傳官)을 맡은 적이 있다고 하여 서문(序文)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59]

이 서문의 내용만 보면 이시수가 선전관들의 부탁으로 서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시수의 서문이 선전관들의 자발적인 부탁으로 작성되었을지는 재고가 필요하다. 우선 최고위층 문신(文臣)인 우의정이 무관들의 요청으로 서문을 작성해 줄 수 있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관들은 아무리 무반 가운데 서열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문관들에 비하면 사회적 위상이 낮았다. 즉 이들은 문관에 종속되어 있는 신분이었

---

57) “諸公屬福源爲序.”《문효세자보양청계병》의 서문은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궁중행사도』II(국립중앙박물관, 2011), p. 170; 민길홍, 「〈文孝世子 輔養廳契屛〉-1784년 문효세자와 보양관의 상견례 행사」, 『미술자료』 80(2011), p. 101 참조.

58) 정조는 대신들이 계병을 발의하게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보양청을 매개로 대신들에게 병풍을 하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유재빈, 「정조대 왕위 계승의 상징적 재현: 〈文孝世子輔養廳契屛〉(1784)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93(2017), pp. 5-31; 유재빈, 앞의 책, pp. 265-295 참조.

59) “禮旣成, 宣傳官廳倣故事, 作爲屛圖, 謂不佞曾有兼啣, 屬以序之.” 서문의 전문(全文)과 번역문은 주 31 참조.

다. 따라서 이들의 부탁으로만 우의정이 서문을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은 적다.[60] 아울러 이시수는 부친인 이복원과 대를 이어 정조 대에 국왕의 핵심 세력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61] 정조는 재위 말년에 이시수를 자신의 정치에 동조할 세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62] 이는 《정묘조계병》에 쓰인 이시수의 서문 또한 정조의 명령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임을 시사한다.[63]

서문이 작성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정묘조계병》은 본래 정조의 명으로 발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선전관청에서 계병을 발의하고 이시수가 서문을 쓴 이유는 계병의 서문에 나온 대로 선전관들이 "임금과 매우 가까이 있는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성은을 받는" "근신(近臣)"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문에는 이시수가 서문을 작성한 이유는 그가 과거에 '문신겸선전관'을 맡은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이시수가 문신겸선전관에 임명된 때는 1782년 2월이었기 때문에 책례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었다.[64] 이처럼 책례와 관련이 없었음에도 단지 선전관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우의정의 서문이 작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책례에서의 공로보다

---

60) 무관들은 중인, 향리, 서얼, 서북인 등과 함께 조선 후기의 "제2신분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무관의 종속적인 사회적 지위에 관한 내용은 황경문, 『출생을 넘어서: 한국 사회 특권층의 뿌리를 찾아서』, 백광열 역(너머북스, 2022), pp. 379-426 참조.

61) 이시수는 1781년에 초계문신(抄啟文臣)에 선발된 이후 1782년 3월부터 초계문신 친시에서 연이어 세 차례 수석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임명된 이후 약 10년간 승정원을 떠나지 않으며 정조의 명을 받들었다. 이시수가 정조 대에 활동한 양상은 박우훈, 「李時秀의 燕行長詩 「續北征」 硏究」, 『한국시가연구』 5(1999), pp. 313-317 참조.

62) 이근호, 「조선후기 어찰(御札)의 전통(傳統)과 『정조어찰첩(正祖御札帖)』」, 『동국사학』 47(2009), pp. 121-122. 정조의 어찰첩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정조어찰첩』(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참조.

63)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계병을 제작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서문을 "부탁했다(屬)"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때 서문을 작성하는 자는 같은 도감 혹은 같은 관청에서 근무한 사람이었다. 즉 궁중 행사를 위해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대표로서 서문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정묘조계병》은 행사를 위해 함께 일한 적이 없는 이들을 위해 서문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64) 이시수는 1782년(정조 6) 2월 23일에 문신겸선전관에 임명되었다. 『承政院日記』 正祖 6年 2月 23日.

는 선전관청의 정체성이 계병이 발의되는 데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정묘조계병》이 정조의 명으로 발의되었다는 정황으로 볼 때 화제가 요지연도라는 점은 더욱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정묘조계병》이 실제로 완성된 때가 1800년으로부터 몇 년 뒤였다는 것이다. 이는 좌목에 책례 당시와 품계가 일치하지 않는 인물이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작품을 발의한 선전관 중 신굉(申紘, 18세기 말-1819)의 품계는 1800년 당시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좌목에는 그의 품계와 관직이 "선략장군(宣略將軍) 선전관(宣傳官)"이라고 쓰여 있다. 선략장군은 종4품 무관의 품계이다. 그런데 책봉례가 거행되던 1800년 2월에 신굉은 선전관이 아니었다. 그는 1800년 4월 9일이 되어서야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의 후보에 제수되었으며 처음으로 종6품에 올랐다.[65] 그가 종4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이 더 필요했다.[66] 그런데 그가 종4품의 관직으로 활동한 시기는 1802년 7월에서 1803년 1월 사이였다.[67] 이를

---

65) 정조는 신굉이 무과에 급제한 것을 축하하며 그를 선전관의 후보에 추천하라고 명했다. 『日省錄』 正祖 24年(1800) 4月 9日(辛卯). 신굉이 이때 특별히 가설(加設) 선전관에 제수되어 6품이 되었다는 점은 선전관으로 복직하였던 무관인 노상추(盧尙樞, 1746-1829)의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노상추, 『(국역)노상추 일기』7, 정해은 외역(국사편찬위원회, 2019), pp. 300-301.

66) 선전관에 임명된 자들 가운데 서울의 문벌(門閥)이 높은 가문 출신들은 필요한 근무 일수를 다 채우기 전에 승진하기도 했다. 그런데 6품은 30개월이 지난 후에 5품으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5품이 4품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또 30개월이 필요했다. 선전관의 승진과 관련한 내용은 장필기, 『朝鮮後期 武班閥族家門硏究』(집문당, 2004), pp. 257-259.

67) 신굉은 1801년 12월에 종5품 무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때 병조(兵曹)에서 무관직을 새롭게 임명하고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골라 올린 문서[兵批]를 보면 신굉이 훈련판관(訓鍊判官), 즉 종5품 무관직에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承政院日記』 1845冊, 純祖 1年 12月 19日(辛酉) 13/24 기사를 참조. 이후 그가 종4품의 무관직인 훈련검정(訓鍊僉正)에 임명된 때는 1802년 7월이었다. 또 그가 종3품 무관직 훈련부정(訓鍊副正)에 임명된 시기는 1803년 1월 9일이었다. 『承政院日記』 1855冊, 純祖 2年(1802) 7月 29日(丁酉) 21/37 기사; 『承政院日記』 1862冊, 純祖 3年(1803) 1月 9日(乙亥) 39/47 기사. 한편 조선 후기에 관료들의 품계와 관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원칙적으로는 특정 관직에 해당하는 품계와 동일한 품계를 가진 관료가 임명되어야 했다. 그러나 관직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고 관료의 수는 늘어났기에 인사(人事)에 적체가 생기며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았다. 무관들은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품계를 급격히 뛰어넘어 높은 관직에 제수되기도 했다. 무관으로서 일기를 남겼던 노상추의 조부(祖父)는 종6품 혹은 종9품직인

통해 계병이 실제로 완성된 시기가 이 기간을 전후한 때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책례가 끝난 뒤 만들어진 『(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에는 계병 제작에 소모된 물력(物力)이 나타나지 않는다.[68] 이는 1800년 책례 직후에 도감의 공금을 이용해 제작된 계병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정묘조계병》이 1800년 당시에 제작되지 않았거나 이때 제작에 착수되었더라도 도감의 공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정묘조계병》은 정조 대가 아니라 순조 대 초반에 이르러 완성되었다.[69] 그렇다면 이 계병의 그림 또한 순조 대 초에 접어들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시수가 쓴 서문의 내용이 화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서문에는 이 계병의 제작이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을 그려(繪其事) 후대 사람들이 옛일을 보게 한(以爲後人觀故事也)"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적혀 있다.[70] 이처럼 행사를 후대에 전승해야 한다는 계병 제작의 명분은 《행원회강도병》, 《친림

수문장(守門將)을 지내다가 천거를 받아 품계를 뛰어넘어 종2품직인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되었다. 정조는 노상추의 조부가 지위가 높은 무관이었음을 근거로 특별히 노상추를 선전관의 명단에 추천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노상추, 『(국역)노상추일기』5, 정해은 외 역(국사편찬위원회, 2018), pp. 291-292 참조.

68) 1800년 순조의 세자 책례는 정조의 명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국립고궁박물관 편, 『(국역)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國譯)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국립고궁박물관, 2016), p. 93.

69) 좌목에 나오는 다른 선전관들을 비롯한 조선 후기의 무관들은 관직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관직은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바뀌고는 했다. 또 무관들은 동시에 여러 관직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이들이 맡은 관직의 품계는 일정하게 상승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품계와 상관없이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정묘조계병》의 좌목에 네 번째로 이름을 올린 이억(李檍, 18세기 말-19세기 초 활동)은 1796년에 이미 정3품 이상의 품계를 가지고 있었다. 『承傳受點案』(奎9887) 卷1, pp. 42-43. 그러나 그는 1800년 8월에 종6품직인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맡았다. 『承政院日記』 1826冊, 純祖 卽位年(1800) 8月 18日(戊辰) 28/45 기사. 다만 확실한 점은 신굉이 1800년 4월에 비로소 선전관에 임명되었으며 이때 처음으로 6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가 종4품인 '선략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1800년 4월로부터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했다.

70) 또 이시수는 이 계병을 보면 후대의 사람들이 종묘사직의 굳건함과 많은 신하들이 모인 성대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國家有大慶禮, 近列之臣, 屛以繪其事, 題名于左, 以爲後人觀故事也. …… 後之欲識宗社億萬磐泰之安, 諸臣千一遭遇之盛者, 觀於冊禮稧屛圖, 庶幾得之云爾." 서문의 원문과 번역문의 전문은 주 31 참조.

관예도병》이 제작되었던 명분과도 같다. 《행원회강도병》, 《친림관예도병》은 정조와 각신들이 성대한 일을 후대에 전하고 권계(勸戒)로 삼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제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시수의 서문에도 행사 당시의 모습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계병이 제작된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정묘조계병》에는 요지연도가 그려져 있다. 신선 세계의 잔치가 그려진 요지연도는 후대에 책례의 장면을 전하기에 적합한 화제가 아니다. 따라서 좌목의 작성 시기를 고려하면 서문을 이시수가 작성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 화제는 나중에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묘조계병》의 화제가 요지연도로 선택된 것은 이 계병이 정조의 어람을 전제로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병의 좌목이 작성된 형식은 정조의 어람을 전제로 제작된 계병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계병의 8번째 폭에 적힌 좌목은 다음과 같다.

1. 가선대부 선전관 이격(嘉善大夫 宣傳官 李格)
2. 절충장군 선전관 이동선(折衝將軍 宣傳官 李東善)
3. 절충장군 선전관 이신경(折衝將軍 宣傳官 李身敬)
4. 절충장군 선전관 이억(折衝將軍 宣傳官 李檍)
5. 절충장군 선전관 이응복(折衝將軍 宣傳官 李膺福)
6. 선략장군 선전관 김상순(宣略將軍 宣傳官 金相順)
7. 선략장군 선전관 이식(宣略將軍 宣傳官 李栻)
8. 선략장군 선전관 이경덕(宣略將軍 宣傳官 李景德)
9. 선략장군 선전관 신굉(宣略將軍 宣傳官 申紘)
10. 효력부위 선전관 조문석(效力副尉 宣傳官 趙文錫)
11. 효력부위 선전관 이존경(效力副尉 宣傳官 李存敬)
12. 효력부위 선전관 조윤긍(效力副尉 宣傳官 曺允兢)
13. 효력부위 선전관 이기정(效力副尉 宣傳官 李基鼎)
14. 효력부위 선전관 한계풍(效力副尉 宣傳官 韓啓豊)
15. 효력부위 선전관 이길회(效力副尉 宣傳官 李吉會)
16. 효력부위 선전관 안광찬(效力副尉 宣傳官 安光贊)
17. 효력부위 선전관 이광도(效力副尉 宣傳官 李光道)
18. 효력부위 선전관 남석구(效力副尉 宣傳官 南錫九)

19. 효력부위 선전관 안광질(效力副尉 宣傳官 安光質)[71]

위와 같이 《정묘조계병》의 좌목에는 발의자들의 이름 앞에 '신(臣)' 자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진하도》, 《문효세자책례계병》, 《을사친정계병》의 좌목에는 당시 행사와 관련된 임무를 맡은 이들의 관직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며 이름 앞에 '신(臣)' 자가 적혀 있다. 즉 이 계병들은 정조의 감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72] 그러나 이러한 선례들과는 다르게 《정묘조계병》은 어람을 전제로 제작되지 않았으며 좌목과 그림을 국왕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도 부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좌목에는 국왕 혹은 책례와의 연관보다는 오히려 선전관청이라는 동일 관청의 정체성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정묘조계병》이 어람을 전제로 제작되지 않았으며 또한 후대에 완성되었다면 화제인 요지연도는 정조의 의도와 상관없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계병은 행사 직후가 아니라 행사가 끝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기념할 만한 또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 완성되기도 했다.[73] 또 계병이

---

71) '가선대부(嘉善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효력부위(効力副尉)'는 당시 관료들에게 내려지던 품계의 명칭으로 각각 종2품, 정3품 당상관(堂上官), 종4품, 정9품을 의미한다.

72) '신(臣)' 글자가 적힌 것만으로 이 계병들이 실제로 정조에게 진상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병풍들의 관람자로 국왕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점은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유재빈, 「正祖代 宮中繪畫 연구」, p. 171. 좌목에 관직명이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은 문관(文官)과 무관의 신분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묘조계병》이 세자의 책례를 명목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례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품계명과 "선전관"만 적힌 좌목의 형식은 매우 특이하다.

73) 《순묘조왕세자탄강계병(純廟朝王世子誕降稧屛)》은 1809년에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탄생할 때 설치되었던 산실청(産室廳)의 관원들이 발의한 계병이다. 병풍의 뒷면에는 "己巳年[1809]八月初九日王世子誕降稧屛"이라는 표제(標題)가 적혀 있다. 이 계병은 명칭은 '탄강계병'이지만 '왕세자'라는 호칭이 쓰인 것으로 보아 1812년에 있던 왕세자의 책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계병은 효명세자의 탄생을 그로부터 최소 3년이 흐른 뒤에 기념하여 제작된 계병이었다. 이때 계병을 제작한 계기는 세자의 책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순종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純宗王世子痘候平復進賀稧屛)》은 1879년에 세자였던 순종(純宗, 재위 1907-1910)이 천연두에서 회복한 것을 기념해 제작되었다. 그러나 병풍에 그려진 장면은 왕세자 책봉례의 장면이다. 순종의 왕세자 책봉례가 거행된 해는 1875년이었다. 이처럼 특정한 시점에 과거의 행사를 기억하며 관료들이 계병을 제작한 사례가 19세기에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러한 사례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朴銀順,

발의되고 실제로 완성되어 나누어지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렸다.[74] 이러한 사례들은 계병이 발의되어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계병이 최종 완성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묘조계병》도 정조 사후 순조 대 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계기로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당시 있었던 중요한 행사는 1802년 10월에 거행된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였다.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는 본래 세자의 관례, 책례와 함께 거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75] 관례, 책례, 가례의 세 행사가 일 년 안에 동시에 행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책례가 끝난 직후에 이어진 세자빈(世子嬪) 간택에서 정조는 김조순의 딸을 간택하였다. 세자빈은 사실 그 전부터 김조순의 딸로 내정되어 있었다.[76] 정조는 1800년 4월에 세자빈의 재간택(再揀擇)까지 마쳤다. 그런데 삼간택을 앞두고 이해 6월에 정조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가례는 미루어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1802년 9월에 삼간택이 이루어지고 10월에 가례가 성사됨에 따라 원래 세자빈이 될 예정이던 김조순의 딸은 왕비에 책봉되었다. 이처럼 책례와 가례가 본래 함께 기획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묘조계병》은 가례 이후에 비로소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純廟朝 〈王世子誕降稧屛〉에 대한 圖像的 考察」, 『考古美術』174(1987), pp. 40-75; 김수진, 「1879년 순종의 천연두 완치 기념 계병(稧屛)의 제작과 수장」, 『미술사와 시각문화』 19(2017), pp. 98-125 참조.

74) 김수진, 위의 논문, pp. 116-117. 아울러 사대부들끼리 의견을 모아 계병을 만들 때 원하는 그림을 갖고 싶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소병(素屛)을 주문하여 그림과 좌목을 나중에 채우기도 했다. 17세기 초에 이명한(李明漢, 1595-1645)은 승정원(承政院)에서 계회가 열린 뒤에 여섯 개의 병풍을 여섯 명의 관원이 나누어 가졌으며 자신도 그중 하나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은 모두 명나라 사신을 맞이할 때의 모습을 그려 받았으나 이명한은 홀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소병을 주문하였다. 그는 얼마 후 화가 이징(李澄, 1581-몰년 미상)에게 소병 위에 '망천도(輞川圖)'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미완성 상태였던 계병에 그림이 그려진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런데 이명한은 병풍 마지막 폭의 좌목은 쓰지 않은 채로 두었다. 좌목이 쓰인 시점은 이로부터 약 10년 뒤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고 그가 잃어버렸던 병풍을 다시 찾은 때였다. 李明漢, 『白洲集』 卷16, 「稧屛後跋」. 이 기록의 원문과 번역문은 김수진, 「조선 후기 병풍 연구」, pp. 300-304 참조.

75) 1800년의 관례, 책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편, 앞의 책 참조.

76) 김태희, 「김조순 집권의 정치사적 조명」, 『대동한문학』 43(2015), pp. 5-37.

《정묘조계병》은 1800년에 정조의 지시에 따라 제작이 논의되어 우의정의 서문까지 작성되었으나 그림이 결정되기 전에 제작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병의 행사도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가 논의되다가 정조가 사망하며 화제의 선택이 미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이시수의 서문은 책례 직후에 쓰였더라도 《정묘조계병》의 그림과 좌목은 가례 이후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선전관들에게 1802년의 가례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이는 《정묘조계병》이 가례를 계기로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한다. 1802년의 가례가 선전관들에게 지녔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책례 및 가례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선전관의 정치적 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순조의 책례 및 가례의 특징과 외척의 군사권 장악

1. 세자 보위 세력으로서의 국구(國舅)와 선전관(宣傳官)

1800년 2월의 책례는 문효세자가 불과 다섯 살의 나이에 사망한 후 처음으로 치러진 책례였기 때문에 막대한 중요성을 띤 행사였다.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계기로 선전관들이 계병을 발의할 수 있었던 것은 정조가 세자를 보호할 친위 세력을 형성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정조는 1784년의 문효세자 책례 때에도 자신의 근신들을 세자시강원 관직에 임명했으며 이들에게 세자의 교육을 맡겼다. 시강원의 관료들은 《문효세자책례계병》을 발의하여 자신들이 정조의 뜻에 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77] 이처럼 정조는 세자를 책봉하기 전에 세자의 주위에 자신이 신뢰하던 신하들을 배치하였다. 따라서 1800년의 책례 때에도 정조가 자신이 신임하던 신하들을 세자의 주변에 두고자 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책례계병은 정조와 신하들 사이의 정치적 공조 관계를 드러내고 강화하는 매개로 활용되었다. 선전관들이 《정묘조계병》을 발의하였던 이유 또한 이들이 문관이 아닌 무관으로서 세자의 친위 세력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당시 주요 무관들은 1800년의 책례를 기점으로 정조의 명령에 따라 선전관에 임명되는 특혜를 받았다. 정조는 1800년에 세자의 책봉을 기념해 문과(文科)와 무과(武科)의 경과(慶科)를 실시하였다.[78] 세자 책봉 경과 이후에 정조는 과거에 급제한 고위 관료들의 아들을 선전관에 임명함으로써 이들이 대를 이어 왕실에 충성할 것을 명했다. 신굉은 첫 번째 시험인 초시(初試)를 면제받고 직부전시(直赴殿試)로 무과에 급제하였다.

---

77) 《문효세자책례계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정혜, 앞의 글(2005); 유재빈, 「정조의 세자 위상 강화와 〈문효세자책례계병〉(1784)」 참조.

78) 정조가 책봉을 기념해 경과를 실시하라고 명한 기록은 『日省錄』 正祖 24年 2月 2日; 16日.

정조는 신굉이 당시 어영대장(御營大將)이었던 신대겸(申大謙, 1746-1807)의 아들이자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대에 서인(西人) 측에서 활동한 무관이었던 신여철(申汝哲, 1634-1701)의 고손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정조는 신굉이 속한 가문의 명성을 강조하며 그를 선전관의 후보 명단에 올리라고 명했다.[79] 신굉의 가문인 평산(平山) 신씨(申氏)는 조선 후기의 유명한 무반 세습 가문이었다.[80] 당시 어영대장의 아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러한 처사는 무반 벌열가의 인물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는 정조의 조치였다. 즉 선전관이라는 청요직을 매개로 정조는 명성이 높은 무반 벌열 가문을 우대하였다.[81] 신굉이 《정묘조계병》을 발의한 선전관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그가 정조에게 신임을 받았던 관료로서 계병의 발의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조는 과거에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데 크게 공헌했던 관료의 후손을 선전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정조는 책봉경과에 급제한 서춘보(徐春輔, 1766-1825)가 서지수(徐志修, 1714-1768)의 손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를 선전관에 임명하라고 명했다.[82] 1800년의 책례 이후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즉위 이후까지 자신을 보필하였던 관료들의 자손을 선전관에 임명하였다. 이를 통해 정조는 새로 부임한 선전관들 또한 앞으로 세자를 보필해야 한다는 의미를 암시하였을 것이다.

선전관은 국왕의 직속 무관 세력으로서 왕권의 안정과 직결된 직책이었

---

79) 『日省錄』 正祖 24年(1800) 4月 9日(辛卯).

80) 평산 신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필기, 앞의 책, pp. 212-229 참조.

81) '무반 벌족 가문' 혹은 '벌열 무반'이라고도 불리는 엘리트 무반의 등장은 영조와 정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위의 책, pp. 57-84; 차장섭, 『조선 후기 벌열 연구』(일조각, 1997), pp. 203-204; 유진 Y. 박, 『조선 무인의 역사, 1600-1894년』, 유현재 역(푸른역사, 2018), pp. 89-107 참조. 한편 선전관은 다른 무관들에 비해 높은 경제적 대우를 받았다. 선전관은 교대로 근무하며 근무 일수에 따라 녹봉을 받는 체아직(遞兒職)이었다. 그러나 선전관들은 실제로 근무 일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매 계절의 첫 달에 한 번씩, 즉 세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녹봉을 받았다. 아울러 선전관은 체아직 중에서도 장번(長番)에 해당하여 교대 없이 궁궐을 숙위(宿衛)하였다. 따라서 선전관은 재임 기간에 안정적으로 녹봉을 받는 것이 보장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經國大典註解』(前集), 「兵典」, '番次都目' 참조.

82) 서지수는 정조가 세손이었을 때 그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정조가 즉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다. 정해은, 앞의 논문(2001), p. 155.

다. 이들은 군사와 관련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고 군사권의 발동과 직접 관련된 일을 했다. 왕의 문관 비서가 승지(承旨)였다면 무관 비서는 선전관이었다.[83] 선전관은 또한 무반의 고위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청요직으로서 출세와 빠른 승진이 보장되어 있었다. 선전관의 후손에게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을 하는 음관(蔭官)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다.[84] 즉 선전관은 무반 중에서도 지위가 매우 높은 특수한 무관이었다. 이러한 높은 지위와 특혜 때문에 선전관에는 아무나 임명될 수 없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무반 벌열 출신의 인물들만이 선발되었다.[85] 따라서 정조는 선전관들의 권력에 의지하여 왕권의 안정적 승계를 의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가 이처럼 세자의 주위 세력을 자신의 측근 신하들로 구성한 이유는 자신이 실행하지 못한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추왕(追王) 작업을 왕세자가 1804년에 즉위한 이후 실현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86] 정조가 4년 뒤에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사도세자의 추왕 작

---

83) 따라서 선전관은 '서반(西班)의 승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또 선전관은 한림(翰林)이나 옥당(玉堂)에 비유되기도 했다. 선전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홍갑, 앞의 논문 참조.

84) 정해은, 앞의 논문(2001), pp. 128-160; 정해은, 『조선의 무관과 양반사회』(역사산책, 2021), pp. 300-309. 조선 후기에는 관직에 처음 출사(出仕)할 때의 첫 관직이 매우 중요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승진의 경로가 고착되어 있어 처음에 좋은 관직을 갖지 못하면 청요직에 임명될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관직으로서 선전관의 자리는 문벌이 좋은 인물들에 의해 독점되었다.

85)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니면 선전관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선전관의 벌열화(閥閱化)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필기, 앞의 책, pp. 91-106. 조선 후기에는 무반 가문이 벌열이 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으며 이처럼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집안의 자제들이 선전관을 독점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공훈(功勳)을 세운 무인의 후손들이 무관직을 이어가도록 장려되었다. 국왕이나 권력 집단은 특정 가문에 무관직을 세습시키고 이렇게 강화된 군사력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렇게 형성된 가문은 "훈무세가(勳武勢家)"라고 불리기도 했다. 차장섭, 앞의 책, pp. 65-66, 85-88, 200-204. 무반 벌열가는 "military aristocracy"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유진 Y. 박, 앞의 책, pp. 89-108 참조.

86) 이러한 정조의 계획은 '갑자년(甲子年) 구상' 혹은 '갑자년 상왕 구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성환의 정의에 따르면 '갑자년 상왕 구상'은 정조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에 자신을 대신해 세자가 사도세자의 추왕 작업을 이어가게 하고자 한 계획이다. 정조가 직접 사도세자 추왕을 할 경우 이는 선왕(先王)인 영조가 천명한 '임오의리(壬午義理)'를 배반하는 행위와 같았기 때문이다. '갑자년 구상'에 관한 연구로는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신구문화사, 1996), pp. 137-138; 유봉학, 『정조대왕

업을 추진하려 한 계획은 대부분의 신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87] 1800년의 책례는 정조의 이러한 정치적 구상이 실현되기 위한 초석이었다.[88] 따라서 정조의 근신들은 새 임금이 될 왕세자를 따라 정조의 계획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책례를 기점으로 정조는 자신에게 충성하며 앞으로 세자를 보필해야 할 문관과 무관 세력을 결집하였다. 그러나 1800년에 열한 살에 불과했던 세자는 4년 뒤에 즉위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권력을 행사하여 정국을 주도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정조의 사망으로 권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세자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정조는 1800년에 이례적으로 책례와 함께 가례를 추진함으로써 김조순에게 의지하여 세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책례가 이루어지기 한 해 전인 1799년부터 김조순의 딸은 세자빈으로, 김조순은 국구로 내정되어 있었다.[89] 정조는 1799년 9월 23일에 비밀리에 김조순을 불러 그를 원자의 스승에 임명하며 원자의 보도(輔導)를 부탁하였다. 이후 정조는 원자를 불러 김조순을 그의 스승으로 섬기고 존중하라고 당부하였다.[90] 김

의 꿈: 개혁과 갈등의 시대』(신구문화사, 2001), pp. 40-57; 최성환, 「정조대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pp. 278-323;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신구문화사, 2020) 참조.

87) 金祖淳, 『楓皐集』, 「別集」, '迎春玉音記'. 김조순이 정조와 독대한 내용을 기록한 「영춘옥음기」는 그의 문집인 『풍고집(楓皐集)』의 다음 영인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金祖淳, 『楓皐集』(保景文化社, 1986), pp. 398-404. 「영춘옥음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동욱, 「정조와 김조순의 밀담, 「영춘옥음기(迎春玉音記)」」, 『문헌과 해석』 49(2009), pp. 237-261을 참조. 정조의 '갑자년 구상'을 조정의 신료들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최성환, 위의 논문, p. 279 참조.

88) 1800년의 왕세자 책례가 '갑자년 구상'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박나연, 「正祖代 후반 王世子 冊封禮와 그 意義」(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참조.

89) 김동욱, 앞의 논문, pp. 241-246; 김태희, 앞의 논문, pp. 11-13.

90) 金祖淳, 『楓皐集』, 「別集」, '迎春玉音記'. "기미년(己未年, 1799) 9월 23일. '오늘은 원자에게 매우 길한 날이다. 내가 오래도록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으나 매번 번다하여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조용하고 일진 또한 길하니 내 마땅히 말하고 싶은 바를 말해야겠다. 원자의 나이가 점차 자라 마땅히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신료들을 살펴보니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원자를 맡길 만한 자로는 너만한 사람이 없다. …… 원자를 불러 오라. …… 이 사람이 너를 가르칠 것이니, 곧 너의 스승이다. 이 사람은 나와 더불어 형제와 같으니라. 너는 반드시 아끼고 존중하여라.' …… 이날로부터 자주 부르시어 어떤 때는 가르치라 하시고 어떤 때는 글을 읽으라 하시고 어떤 때는 글자 익히는 것을 보고 어떤 때는 옛날과 지금의 일을 담론하여 이렇게 하는 것을 늘 하게 되었다." 번역문은 김동욱, 위의 논문, pp.

조순은 책례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세자시강원에서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겸보덕(兼輔德)에 임명되기도 했다.[91]

원자의 관례, 책례, 가례를 한 번에 거행하겠다는 계획은 1800년 1월 1일에 공표되었으나 이미 1799년 12월에 정조는 간택을 명하여 처자들의 단자(單子)를 올리게 하였다.[92] 이때 김조순이 올린 단자가 보이지 않자 정조는 사람을 보내 그에게 단자를 올리게 하였다. 당시 간택이 진행된다는 소문이 돌자 김조순 집안의 단자가 올라올 수 없게 방해한 이가 있었다. 이에 정조는 김조순도 단자를 올릴 수 있게 하였으며 그가 단자를 올릴 날짜까지 지정해 주었다.[93] 아울러 정조는 김조순 딸의

240-241에서 인용하였다. 「영춘옥음기」는 김조순의 입장에서 쓰인 기록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순조가 쓴 김조순의 졸기(卒記)에서 순조는 정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지금 내가 이 신하[김조순]에게 너를 부탁하노니 이 신하는 반드시 비도(非道)로 너를 보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렇게 알라"라는 말을 했다고 썼다. 또한 순조는 자신과 김조순이 사위와 장인 사이를 넘어 스승과 벗[師輔]을 겸했다고 적었다. 즉 이 기록을 보면 정조가 생전에 김조순에게 세자의 보도를 맡긴 일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다. 『純祖實錄』 純祖 32年 4月 3日; 이경구, 「조선 후기 안동 김문의 의리관」, 『조선시대사학보』 64(2013), p. 148.

91) 『正祖實錄』 正祖 24年 1月 1日.

92) 정조는 가례를 책례 이전에 거행하려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정조가 가례를 먼저 실시하려고 생각했다는 점은 정조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드러난다. "가령 관례나 가례의 경우는 자전(慈殿)이나 자궁(慈宮)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하는 도리로 볼 때 내년을 넘기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책례 이전에 먼저 행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마는 이미 국조(國朝)에 근거할 만한 예가 없는 이상 그것도 용이하게 의논할 수가 없다(而至若冠禮嘉禮, 則其在殿宮承歡之道, 有難踰明年, 冊禮前先行固好, 而旣無國朝可據之例, 亦不可容易議到矣.)." 『正祖實錄』 正祖 23年(1799) 11月 26日(庚辰). 한편 가례를 준비하기 위해 민간의 결혼을 금지하던 금혼령(禁婚令)은 18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즉 관례 및 책례와 함께 사실상 가례의 준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正祖實錄』 正祖 24年(1800) 1月 1日(甲寅).

93) 金祖淳, 『楓皐集』, 「迎春玉音記」. "기미년(1799) 12월에 간택을 명하시어 처자의 단자를 올리려 하였다. 경조낭청(京兆郎廳)이 홀연히 알고 오부(五部)에 맡기어 처자 중 부모가 모두 무고(無故)한 연후에야 단자를 받게 하였다. 당시 신(臣)은 아내가 모친상을 당해 상복을 벗지 못한 고로 감히 단자를 올리지 못하였다. 상께서 여러 단자를 열람하다가 신의 집 단자를 보지 못하자 사람을 시켜 그 까닭을 물었다. 신이 사실대로 아뢰니 상께서 즉시 명을 내려 처자 중에서 어머니가 상중(喪中)인 자도 모두 단자를 올리라 하시고 이에 편지를 보내 말씀하시었다. '인심이 무섭기가 이와 같도다. 입맛이 써서 할 말이 없구나.' 그리고 해가 바뀌면 3일에 단자를 올리라고 하시었다. 초삼일이 되어 비로소 단자를 올리니 상께서 즉시 편지로 간략히 말씀하시었다. '단자가 들어왔으니 귀하고 귀하도다. 이 편지는 신변에 감추고 기다려라.'"

사주를 고쳐 가면서까지 간택과 가례를 추진하였다.[94] 1800년 2월 2일에 책봉례가 끝난 뒤 2월 26일에 행해진 세자빈의 초간택(初揀擇)에서 정조는 이미 내정되어 있던 김조순의 딸을 간택하였다. 이때 정조는 재간택과 삼간택이 남아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할 것이며 김조순에게 그가 이제 나라의 원구(元舅)로서 이전과는 처지가 달라졌으니 앞으로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다.[95]

정조가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간택한 데에는 김조순에게 군사권을 맡기려는 의도도 있었다. 국구가 되는 사람은 앞으로 국왕의 호위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의 군사권을 관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왕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군영인 호위청(扈衛廳)의 수장인 호위대장(扈衛大將)은 주로 국구가 맡았다.[96] 병조판서(兵曹判書), 훈련대장(訓鍊大將)과 같은 고위 무관직에도 국구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97]

정조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대부 가문과의 국혼(國婚)을 성사시키고 국구에게 군영을 지휘하게 하여 장래의 안정적인 무력 기반을 구축하였다.[98] 정식으로 국구가 되기 전부터 김조순에게는 군권이 주어졌다.[99] 김조순은 책례 다음날인 1800년 2월 3일에 구전정사(口傳政事)로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임명되었으며 4일에는 오위(五衛)의 호군(護軍)을 맡았다.[100] 2월 26일에 초간택장에 입시(入侍)할 때 김조순은 오위의 무관

기록의 원문과 번역문은 김동욱, 앞의 논문, pp. 241-242 참조.

94) 金祖淳, 『楓皐集』, 「迎春玉音記」.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위의 논문, pp. 242-245를 참조.

95) 『正祖實錄』 正祖 24年(1800) 2月 26日(己酉). 간택을 마친 뒤에 정조는 안동 김문이 특히 김상헌(金尙憲, 1570-1652), 김수항(金壽恒, 1629-1689), 김창집(金昌集, 1648-1722), 김제겸(金濟謙, 1680-1722)을 배출한 명망 있는 덕문(德門)임을 강조하였다.

96) 오수창, 「권력집단과 정국 운영」,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편, 『조선정치사 1800-1863』(下)(청년사, 1990), p. 594.

97) 국구가 병조판서 및 주요 군영대장을 맡았던 관행에 대해서는 오종록, 「중앙 군영의 변동과 정치적 기능」, 위의 책, pp. 463-483 참조.

98) 국왕이 국구에게 군권을 쥐어주는 관행은 조선시대에 종종 일어났으나 세도정치기에는 이 관행이 더 보편화되고 당연시되었다. 이경구, 앞의 논문, p. 150.

99) 오수창, 「정국의 추이」,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편, 앞의 책, pp. 78-79. 한편 정조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미 앞으로 김조순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리라고 믿고 김조순의 주위에 결집한 세력이 있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성환, 앞의 논문, p. 308.

직(武官職)인 행호군(行護軍)이었다.[101] 김조순은 정조 사후에도 군문대장에 제수되었다. 이는 정조가 생전에 김조순에게 군권을 맡기려는 뜻을 남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102] 순조가 즉위한 후 1800년 8월에 김조순이 장용대장에 임명되었던 것도 그가 국구가 될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103]

김조순은 강력한 군권을 바탕으로 세자를 보필해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104] 당시 주요 무반 가문들 또한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 김문 및 시파(時派) 세력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105] 이를 통해 무반 명문가 출신들로 구성된 선전관들도 김조순과 정치적 유대를 맺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선전관들은 국구와 함께 수년 뒤에 왕이 될 세자를 보호할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정묘조계병》은 장차 왕이 될 세자를 보위할 친위 무관 세력을 마련하고자 한 정조의 기획으로 인해 발의되었다. 그런데 《정묘조계병》의 화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서문에 명시된 계병의 제작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

100)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3日; 4日.

101) 『正祖實錄』 正祖 24年 閏 4月 9日.

102) 『純祖實錄』 純祖 6年 6月 25日. "이보다 앞서 정묘(正廟) 경신년(1800)에는 왕세자의 대혼(大婚)을 김조순의 딸에게 정하여 이미 재간택을 행하였다. 정묘께서 승하하자 정순대비(貞純大妃)께서 김조순이 마땅히 폐부지친(肺腑之親)을 삼을 만하다는 생각으로 융원(戎垣)[군문대장]에 발탁 제수하였다."; 『純祖實錄』 純祖 32年 4月 3日. "명경왕비(明敬王妃)[순원왕후]가 재간택을 받기에 미쳐서 정묘께서 승하하자 정순대비께서 선왕의 유지(遺志)로 인하여 융원(戎垣)[군문대장]에 발탁하여 제수하였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길이 어렵고 위태로웠어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대혼이 이루어지자 임금이 드디어 사심 없이 맡겼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김조순을 위시한 시파 세력이 벽파를 제거하고 실권을 잡은 뒤에 쓰인 것이므로 주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조가 김조순을 국구로 내정했다는 점, 국구가 된 인물이 강력한 군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조의 유지에 따라 김조순이 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위의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03) 이태진, 『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韓國硏究院, 1985), pp. 301-302.

104) 선행 연구에 따르면 김조순은 유주(幼主)의 왕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아 큰 권력을 쥐게 되었다고 한다. 안동 김문은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외척 가문이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대를 이어 왕실과 인척 관계를 맺어 세도를 장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위의 책, pp. 298-302 참조.

105) 위의 책, pp. 428-429. 예를 들어 평산 신씨의 신대현(申大顯, 생년 미상-1812)은 대표적인 김조순 계열의 무관으로 분류된다. 그는 1801년에 벽파가 시파를 탄압할 때 시파의 대표 인물인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을 섬겼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純祖實錄』 純祖 1年 5月 17日.

다. 《정묘조계병》이 실제로는 순조 대 초반에 완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병의 화제는 책례 이후에 거행된 왕실 행사를 계기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순조 대 초인 1802년에는 책례와 함께 거행되기로 계획되었던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가 이루어졌다. 1802년의 가례가 선전관들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면 《정묘조계병》은 가례를 계기로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1802년에 가례가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과 함께 가례의 성사가 선전관들에게 가졌을 정치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검토될 수 있다.

2. 순원왕후(純元王后)의 가례와 외척의 군사권 장악

선전관들을 비호해 주던 정조가 사망하자 이들은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김조순과 더욱 강한 유대를 맺기 시작하였다. 정조의 사망 이후 김조순이 군사권을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조가 자신의 친위군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권력자 한 명에게 군사권이 집중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조 사후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자 군사권은 김조순에게 이동해 갔다.[106]

김조순은 무관의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107] 당시 한 무관이 작성한 일기에는 자신이 일종의 인사 고과인 도목정사를 앞둔 때인 1800년 8월에 급격한 승진을 통해 막 병조판서에 제수된 김조순을 찾아간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108] 그가 인사를 앞둔 시기에 김조

106) 세도정치기에 세도 가문 출신의 권력자가 정예 군부대를 직접 거느렸던 현상은 정조가 시작한 군영정책에서 이어진 면이 있다고 한다. 오수창, 「오늘날의 역사학, 정조 연간 탕평정치, 그리고 19세기 세도정치의 삼각 대화」,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정조와 정조 이후: 정조 시대와 19세기의 연속과 단절』(역사비평사, 2017), p. 183.

107) 오종록, 앞의 글, 463-473. 김조순이 실제로 당시 조정의 인사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은 윤민경, 「세도정치기 安東 金門의 정치적 기반 –국왕, 유력 가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5), pp. 18-25에도 나와 있다.

108) "병조판서에 김조순이 전임 참판으로서 특별히 자급을 뛰어넘는 승진으로 제수되었다. 김 대감은 지금 나이가 37세라고 한다. …… (나의 동생이) '병조판서가 제가 명함을 바쳤다는 말을 듣고서 묻기를 '자네가 정말 노(盧) 아무개[노상추]의 동생인

순을 방문한 이유는 무관이 관직을 얻는 데 군권을 가진 중앙의 권세가와의 인맥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109] 또한 선전관청은 병조판서의 관할 아래 운영되었기에 병조판서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110] 이를 통해 선전관들이 순조 즉위 직후에 병조판서가 된 김조순과 정치적 유대를 맺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111]

실제로 당시 선전관들과 안동 김문 사이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무반 벌족 가문인 전주(全州) 이씨(李氏) 출신의 이득제(李得濟, 생년 미상-1819)는 선전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으며 김조순 계열의 무신이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은 모두 김조순이 훈련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군영대장이나 포도대장(捕盜大將)에 중용되었다.[112] 《정묘조계병》의 좌목에 첫 번째로 이름이 등장하는 이격(李格, 1748-1812)은 부인이 안동 김씨로 안동 김문과 혼맥으로도 연결된 무관이었다.[113]

그런데 가례가 성사되기 전까지 김조순이 속한 시파를 비롯하여 그와 가까웠던 선전관들의 세력은 매우 약화되어 있었다. 순조가 즉위한 이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벽파가 득세하였으며 이들이 정조 대의 핵심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114] 벽파의 주도로 일어난 1801년의 신유박해(辛酉迫害)[또는 신유사옥(辛酉邪獄)]로 인해 풍산(豐山) 홍씨(洪氏) 일가,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恩彦君[李祖],

---

가'라고 하셔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이외에도 노상추가 병조판서인 김조순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해 몇 번이나 돌아온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노상추, 앞의 책(2019), pp. 360-363.

109) 정해은, 「조선 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 《盧尙樞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3(2008), pp. 315-316.

110) 丁若鏞, 『經世遺表』 卷2, 「夏官兵曹」. “선교국(宣敎局)이란 선전청(宣傳廳)이며 그 대사(大使)는 병조판서가 전례에 따라 겸임한다(宣敎局者, 宣傳廳也. 其大使, 兵曹判書例兼也).”

111) 선전관들의 선발에는 당파나 정치적 이해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정해은, 앞의 책, p. 307. 따라서 선전관들이 김조순과 정치적 유대를 맺었다는 점은 이들의 정치적 입장이 시파와 가까웠을 것임을 시사한다.

112) 오종록, 앞의 글, p. 470.

113) 李裕元, 『嘉梧藁略』 冊16, 「墓碣銘」, ‘副捻管贈左參贊李公墓碣銘.’

114)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고 벽파가 집권한 후에 정조 대에 권력의 핵심층을 차지했던 인물들에게 공격이 가해졌다는 점은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 탕평과 세도정치: 숙종조-고종조』(동방미디어, 2000), pp. 259-266; 김정자, 「조선후기 정조 말-순조 초의 정국과 통공정책」, 『한국학논총』 40(2013), p. 88 참조.

1754-1801), 사도세자의 추숭에 동조하여 정조 대에 권력을 얻은 서유린(徐有隣, 1738-1802), 심노숭(沈魯崇, 1762-1837), 윤행임(尹行恁, 1762-1801) 등이 탄압을 받았다.[115] 안동 김문의 김건순(金建淳, 1776-1801)도 신유박해로 인해 사사되었다.[116] 마찬가지로 안동 김문의 김이재(金履載, 1767-1847), 김이익(金履翼, 1743-1830), 김이교(金履喬, 1764-1832)도 유배형을 받았다.[117]

벽파 세력은 또한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가 성사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순조의 가례는 본래 책례가 끝나고 같은 해 안에 거행될 예정이었으나 정조의 사망으로 인해 미루어졌다.[118] 1801년 6월에 대사헌(大司憲)이었던 권유(權裕, 1729-1804)는 은언군과 홍낙임(洪樂任, 1741-1801)을 사사한 직후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는 순조와 김조순 딸의 국혼을 막으려는 공작이었다.[119] 권유는 이후 "대혼(大婚)을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사사되었다.[120] 아울러 순원왕후의 조카였던 김병기(金炳冀, 1818-1875)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심환지가 권유와 함께 순원왕후의 왕비 책봉을 방해했다고 기록하였다.[121] 정순왕후의 친가이자 벽파의 핵심 인물이던 경주 김씨의 김일주(金日柱, 18세기 중반-19세기 초) 등도 순원왕후의 간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순조 6년(1806)에 사사되었다.[122] 경주 김문이 안동 김문을 정치적으로 견제하였다는 사실은

---

115) 김정자, 「정조 후반 순조 초반 정치세력과 정국의 동향 -정조 16년(1792)-순조 6년(1806)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50(2018), pp. 468-469.

116) 『純祖實錄』 純祖 1年 4月 20日.

117) 『純祖實錄』 純祖 卽位年 12月 25日; 김정자, 앞의 논문(2013); 이경구, 『조선후기 安東 金門 연구』(일지사, 2007), p. 173.

118) 정조의 하교에 따라 관례 및 책례가 끝난 뒤에 관례책저도감(冠禮冊儲都監)은 가례도감(嘉禮都監)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례를 준비하는 업무를 주관하였다. 『正祖實錄』 正祖 24年 1月 1日.

119) 권유는 "대대로 내려온 큰 가문(世族巨閥)" 중에 역적인 은언군과 관계된 자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純祖實錄』 純祖 4年 5月 19日(丁未); 5月 20日(戊申); 6月 7日(甲子).

120) 『純祖實錄』 純祖 4年 5月 26日(甲寅); 6月 6日(癸亥).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임혜련, 「19세기 垂簾聽政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 전공 박사학위 논문, 2008, pp. 167-168 참조.

121) 金炳冀, 「誌文」, 『純元王后國葬都監儀軌』(奎13686) 卷4.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변원림, 『순원왕후 독재와 19세기 조선사회의 동요』(일지사, 2012), pp. 50-51 참조.

122) "김일주는 역적 김한록(金漢祿)이 아비이고 역적 김관주(金觀柱)가 형으로 척리(戚

김조순도 직접 언급한 바가 있다. 경주 김문의 김성길(金聖吉, 19세기 초 활동)은 1814년에 그의 증조부인 김한록(金漢祿, 1722-1790)의 무죄를 주장하며 안동 김씨 일문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김조순은 "이 무리들이 우리 집안을 멸하게 하려는 뜻을 항상 보였으니 사적인 원수[私讎]"라고 하였다.[123]

이득제, 신대현(申大顯, 생년 미상-1812), 이광익(李光益, 생년 미상-1811), 장현택(張鉉宅, 1768-1821) 등 김조순과 친밀했던 무관들도 모두 이때 파직되거나 유배를 가게 되었다.[124] 당시 정치적 탄압을 받은 무관에는 《정묘조계병》의 좌목에 첫 번째로 이름이 등장하는 이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당시 이미 사망한 지 오래였던 그의 동생인 이벽(李檗, 1754-1785)이 천주교도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았다.[125] 본인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이격이 탄핵을 당한 이유는 그가 정조의 비호를 받았던 동시에 안동 김문과 가까운 세력으로서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126] 즉 이 사례는 이격이 안동 김문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했던 무관이었음을 알려 준다. 한편 벽파 세력은 정조가 설치했던 장용영을 혁파하고자 하였다. 이는 벽파가 정조와

里)로서의 위세를 빙자하고 초선(抄選)의 이름을 얻고자 도모하여 흉악한 심보를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김일주는 천부적으로 악한 기운을 받고 태어나 유현(儒賢)의 이름을 빌려 멀리서 조정의 권한을 쥐고 오래도록 난적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근래 갖가지 변괴가 층층이 발생한 것은 모두 이 역적이 최초에 악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만들고자 도모한 것과 지난날 국혼(國婚)을 저지하려 한 것은 곧 저들 부자 형제가 집안에서 전수한 흉계이니 한 꿰미에 꿴 듯 서로 맥락이 관통하는 것입니다."『日省錄』, 純祖 6年 6月 1日.

123) "此輩於吾家, 常有湛滅意, 卽私讎也." 이 기록의 원문과 번역문은 정원용, 『수향편: 四祖 정승 정원용이 기록한 조선의 통치 시스템』, 신익철 외 역(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pp. 239-240을 참조. 김성길의 상소와 관련된 실록의 기록은 『純祖實錄』 純祖 14年 7月 20日(戊申)을 참조. 김성길의 상소에 따르면 경주 김문은 1806년을 기점으로 몰락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조순은 김성길의 옥사가 관대하게 처리되기를 바랐다. 이는 김조순이 혹여나 있을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장남인 김유근(金逌根, 1785-1840)을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24) 오종록, 앞의 글, p. 470.

125) 『純祖實錄』 純祖 1年(1801) 3月 11日(丁亥); 3月 13日(己丑); 3月 15日(辛卯); 3月 18日(甲午).

126) 이격이 정조 대에 형성된 왕의 친위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배되었다는 주장은 장필기, 「朝鮮後期 別軍職의 組織과 그 活動」, 『史學硏究』 40(1989), p. 316.

시파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던 군사 집단을 해체하고자 한 조치였다.[127]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김조순을 국구로 미리 내정해 두었다는 사실은 가례가 거행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128] 1802년 9월이 되어 비로소 정조의 유지에 따라 삼간택이 이루어지고 10월에는 가례가 거행되었다. 김조순은 정조의 권위를 앞세워 정당한 명분을 구축해 가례를 성사시키고 외척 가문으로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129]

1802년에 가례의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김조순은 무관의 최고위직인 군영대장을 연임해 갔다. 군영대장은 정치 권력의 강화를 위해 중요한 관직이었으며 주로 국왕의 장인이 맡았다.[130] 김조순은 가례 한 달 전인 1802년 9월 2일에 어영대장(御營大將)이 되었으며 가례를 불과 며칠 앞둔 10월 7일에는 훈련대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그는 1809년 4월까지 훈련대장을 연임하였다.[131] 아울러 김조순은 1802년 10월에 국구가 되자마자 호위대장을 맡았으며 그 후 약 30년간 호위대장직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호위청의 군사력이 안동 김문의 사병(私兵)처럼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32] 이처럼 순조의 즉위 이후에 중앙의 군사권은 외척인

---

127) 장용영 혁파를 벽파가 시파를 탄압한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한 연구로는 이태진, 앞의 책, pp. 302-306 참조.

128) 19세기 초에 정조의 뜻을 계승한다는 명분이 하나의 강력한 권위가 되었던 현상에 대해서는 노대환, 「19세기에 드리운 정조의 잔영과 그에 대한 기억」,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정조와 정조 이후: 정조 시대와 19세기의 연속과 단절』(역사비평사, 2017), pp. 136-161 참조.

129) 국구는 최고위 관료로서 정국 운영에 참여할 지위와 권력, 명예를 보장받았다. 19세기에 국혼은 안동 김문이 외척으로서 정치적 기반을 얻고 가세(家勢)를 유지한 수단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임혜련, 「19세기 國婚과 安東 金門 家勢」, 『韓國史學報』 57(2014), pp. 227-259 참조.

130) 오종록, 앞의 글; 임혜련, 앞의 논문(2014); 나영훈, 「조선 후기 訓鍊大將의 성격과 정치적 위상」, 『청계사학』 23(2021), pp. 171-215.

131) 훈련도감은 중앙의 오군영(五軍營) 중 가장 세력이 강한 곳이었다. 따라서 훈련대장은 여러 군영대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김조순과 같이 국구가 된 이들이 훈련대장직을 장기간 맡게 되는 현상은 18세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다. 아울러 19세기 전반에 훈련도감은 사실상 외척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세도정치기에 중앙의 군사력은 왕보다는 실권을 장악한 권세가의 권한에 더 강하게 좌우되고 있었다. 오종록, 위의 글, p. 456.

안동 김문에 의해 점유되며 이들의 권력 기반이 되고 있었다.

정치적 위기 속에서 가례가 성사된 것은 선전관들에게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기회였다. 선전관들은 정조 사후 벽파가 집권한 이후에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가례의 실시가 확정된 후에는 김조순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며 선전관들도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133] 김조순은 가례가 행해진 1802년 10월부터 1832년 4월까지 종신으로 국왕의 장인에게 내려지는 벼슬인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라는 비변사(備邊司)의 최고위직을 차지하며 비변사를 문중의 인사들로 채웠다.[134] 비변사에서는 주요 무관직의 추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위 무관의 추천권은 김조순에게 있었다. 이를 통해 김조순과 가까웠던 선전관들이 주요 관직에 진출하기가 더욱 유리해졌음을 알 수 있다.

김조순은 국구가 된 이후에 무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도 했다. 순조의 장인이 되어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에 오른 김조순은 1803년 음력 7월에 무관 108명에게 현재의 창신동(昌信洞)인 자줏골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당시 잔치의 장면은 그림 한 폭과 서문과 시로 기록되었다. 이때 제작된 화첩이 《탑동연첩(塔洞宴帖)》이다(도 15).[135] 임유린(林有麟, 19세기 초 활동)이라는 인물이 작성한 서문에 따르면 당시 훈련대장이었던 영안부원군 김조순이 특별히 은택을 베풀어 108명의 무관들에게 쌀 세 섬을 내려 주었다고 한다. 즉 김조순은 국구가 된 후에 무관들을 크게 후원하여 이들을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삼았다.[136]

---

132) 위의 글, pp. 434-435.

133) 대표적인 김조순 계열의 무관이던 이득제는 벽파의 탄압을 받아 귀양을 갔다가 가례가 성사되고 나서야 정계에 복귀하였다. 임혜련, 앞의 논문(2014), p. 238.

134) 비변사는 본래 군대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으나 순조 즉위 이후에는 척족(戚族)인 문벌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으로 변질되었다. 오종록, 「비변사의 조직과 직임」,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편, 『조선정치사 1800-1863』(下)(청년사, 1990), pp. 515-520.

135) 《탑동연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편, 『탑골에서 부는 바람』(서울역사박물관, 2015), p. 21 참조.

136) 외척이 주요 무장(武將)들과 가까이 지낸 이유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훈련도감이나 금위영(禁衛營)과 같은 주요 군영에서는 재정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이러한 군영에는 철물(鐵

한편 이시수는 순조 대 초에 안동 김문 및 노론 시파와 함께 벽파 정권에 맞서 반격을 도모한 인물이다.[137] 그는 벽파가 몰락한 이후 벽파의 핵심인 김한록(金漢祿, 1722-1790)과 김귀주(金龜柱, 1740-1786) 세력을 역적이라고 칭하며 제거하였다.[138] 또한 이시수는 정순왕후가 철렴한 이후 다시 수렴청정을 시도하려고 하자 이를 앞장서서 반대하여 막았다.[139] 이시수는 1800년 7월에 좌의정이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영의정에 임명되는 등 벽파 집권기에도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으나 벽파의 세력이 위축된 뒤에는 본격적으로 이들을 향한 반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시수는 정조의 측근 신하로서 성장하여 김조순을 위시한 세력과 정치적 이해를 공유한 인물이었다.[140] 따라서 이시수의 서문이 《정묘조계병》이 완성된 순조 대 초에 변함없이 쓰인 것은 선전관들과 이시수의 정치적 동류의식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02년의 가례는 선전관들이 위축되었던 권력을 회복한 기점이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정묘조계병》은 1802년의 가례를 계기로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조순과 정치적 유대를 맺었던 선전관들이 가례를 통해 세력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여 계병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즉 《정묘조계병》의 화제는 정조 사후 결정되지 않고 있다가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가 성사된 이후에 요지연도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한편 정조 대에 행사도 계병이 연달아 제작된 이후 요지연도가 궁중 계병의 화제로 채택된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였다. 따라서 《정묘조계병》에 그려진 요지연도의 의미는 순원왕후의 가례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요지연도가

物)을 다루는 전문 장인이 소속되었기 때문에 대량의 화폐가 주조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영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 이익이 상당히 컸다. 이는 19세기에 외척이 고위 무장들과 가까이 지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종록, 「중앙 군영의 변동과 정치적 기능」, pp. 471-472. 19세기에 군영의 재정이 운영된 상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광우, 「19세기 전반기 삼군문(三軍門)의 재정 운영 실태」, 『군사』 89(2013), pp. 75-113; 최우혁, 「19세기 진찬의례와 군문의 재정 활용」, 『국학연구』 45(2021), pp. 231-275 참조.

137) 김정자, 앞의 논문(2018), pp. 468-469.

138) 『純祖實錄』 純祖 7年 8月 22日; 최성환, 앞의 책, p. 482.

139) 『純祖實錄』 純祖 4年 6月 23日.

140) 이시수와 김조순이 매우 친밀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박우훈, 앞의 논문, p. 314 참조.

실제로 활용된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요지연도(瑤池宴圖) 화제의 의미와 성격

1. 순원왕후의 가례와 요지연도의 관련성

요지연도는 19세기 이전까지는 왕실의 가례와 상관이 없는 그림이었다. 19세기 이전까지 가례 의식의 공간이나 신부가 임시로 머무는 거처인 별궁(別宮)에 배설(排設)된 병풍은 십장생도(十長生圖), 화초도(花草圖), 영모도(翎毛圖), 연화도(蓮花圖) 등이었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이자 인조(仁祖) 5년(1627)에 제작된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에 따르면 당시 신랑과 신부가 교배(交拜) 의식을 마치고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는 의례인 동뢰연(同牢宴)에는 10폭짜리 십장생도 병풍과 10폭짜리 화초도 병풍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복식을 갈아입는 공간인 개복청(改服廳)에는 모란도(牡丹圖) 10폭 병풍이 설치되었다. 아울러 신부가 거처한 별궁에는 10폭짜리 연화도 병풍이 배설되었다.[141] 이후 영조 20년(1744)에 시행된 사도세자의 가례 때까지 가례용 병풍의 화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142]

그런데 1802년 10월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순원왕후가 거처할 공간에 요지연도 병풍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143] 이는 요지연도라는 화제가 당시의 가례와 밀접한 연관이

---

141) 김세은, 「1627년(인조5) 昭顯世子의 嘉禮와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서울대학교규장각 편,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3(서울대학교규장각 2005), p. 382. 왕실 가례에 사용된 병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李成美·姜信沆·劉頌玉, 『藏書閣所藏 嘉禮都監儀軌』, 韓國精神文化硏究院 藝術硏究室 편(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박은경, 「朝鮮後期 王室 嘉禮用 屛風 硏究」(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를 참조하였다.

142) 사도세자의 가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세은, 「1744년(영조 20) 思悼世子의 嘉禮와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 서울대학교규장각 편,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3(서울대학교규장각 2005), pp. 412-413.

143) 선행 연구에서도 이 기록을 근거로 요지연도가 왕실 가례에서 선호된 화제였음을 밝혔다. Seo Yoonjung, 앞의 논문, pp. 199-205. 한편 기존의 연구자들은 1802년부터 가례에 사용되는 병풍의 종류가 확연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하였다. 1802년 10월의 가례 당시 별궁에 영모도 병풍과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 병풍이 설치된 이후로 별궁에는 백동자도와 요지연도 병풍 등이 설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은

있었다는 점을 알려 준다. 순원왕후의 삼간택은 1802년 9월 6일에 이루어졌으나 왕실에서의 가례 준비는 그보다 이른 8월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수렴청정을 하고 있던 정순왕후는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에 앞서 2년간 비어 있었던 창덕궁(昌德宮)의 대조전(大造殿)을 전면적으로 수리할 것을 명했으며 동뢰연의 장소는 대조전으로 정하라고 명했다.[144]

가례를 앞두고 대조전의 수리 작업에 동원된 이이순(李頤淳, 1754-1832)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대조전에는 요지연도 병풍이 설치되었다고 한다.[145] 이이순은 1802년 8월 15일에 창덕궁에 입궐하였으며 대조전의 본격적인 수리 작업은 8월 17일에 시작되었다. 그는 대조전 정당(正堂)의 북벽(北壁) 앞에 요지연도 10폭 병풍이 설치되었으며 그 앞에 용상(龍牀)이 배치되었다고 기록하였다.[146] 이는 대조전에 들어섰을 때 정면에 요지연도 병풍이 가장 먼저 보이도록 배치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요지연도 병풍이 대조전에 설치된 사실과 관련하여 대조전이라는 공간의 성격이 주목된다. 대조전은 새로 왕비가 된 여성이 평생 거처해야 할 장소였다. 대조전은 왕과 왕비의 침전(寢殿)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왕은 고정된 침소가 없었다. 반면에 왕비는 입궐(入闕) 후에 대조

경, 앞의 논문, pp. 30-33.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미 1704년에 연잉군(延礽君)[영조]의 가례에서 10첩 왜장(倭粧) 병풍으로 꾸며진 곽분양행락도 대병풍(大屛風) 1좌(坐)와 백동자도 중병풍(中屛風) 1좌가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즉 최소한 1704년부터 왕실의 가례에는 곽분양행락도와 백동자도 병풍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802년을 기점으로 가례용 병풍의 종류가 확연하게 바뀌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연잉군의 혼례에 곽분양행락도와 백동자도 병풍이 사용된 것은 사가(私家)의 전통이 왕실에 유입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수진, 앞의 논문(2017), pp. 83-84 참조.

144) 『純祖實錄』 純祖 2年(1802) 8月 10日(戊申); 8月 30日(戊辰).

145) 李頤淳, 『後溪集』 卷5, 「雜著」, '大造殿修理時記事'. 이이순의 기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선표, 「조선시대 궁궐의 그림 치장」, 김홍남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동아시아의 궁중미술』(한국미술연구소CAS, 2013), pp. 226-227; 정병설, 『권력과 인간: 사도세자의 죽음과 조선 왕실』(문학동네, 2012), pp. 405-426; Seo Yoonjung, 앞의 논문, pp. 199-201 참조.

146) 李頤淳, 『後溪集』 卷5, 「雜著」, '大造殿修理時記事'. "堂之北壁當中, 設金箋屛兩片, 著以廣頭釘. 其前設瑤池宴屛十帖, 置龍牀."

전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147] 아울러 이이순은 “대조전은 중궁전이 임어(臨御)하는 곳인데 가례일이 가까워져 수리한다”라고 하며 대조전이 왕비가 될 순원왕후를 위한 공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148] 동뢰연이 거행될 장소가 대조전으로 정해진 이유 또한 동뢰연이 왕비나 대비의 처소, 즉 왕실 여성의 공간에서 열리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149] 즉 대조전은 동뢰연이 열릴 곳인 동시에 장차 왕비가 될 순원왕후가 앞으로 거처할 장소였다.[150] 따라서 당시 설치된 요지연도 병풍은 앞으로 왕비가 될 여성을 위한 공간이라는 대조전의 성격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8월에 가례 준비를 위해 정순왕후가 신하들을 소견한 자리에서 김조순이 상의원(尙衣院) 제조(提調)로서 참여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때의 기록을 보면 김조순이 가례에 쓰일 물건을 만들거나 조달하는 일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대왕대비전께서 김조순에게 하교하기를 “주상께서 지금 이미 장성하였는데도 중전의 자리가 오래 비어 있어 항상 근심이었다. 돌아보건대 지금 경례(慶禮)가 머지않았으니 한없이 기쁘다”라고 하였다. 김조순이

147) 『궁궐지(宮闕志)』에는 창덕궁의 대조전이 “곤전정당(坤殿正堂)”, 즉 왕비의 처소라고 나와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金用淑, 『朝鮮朝 宮中風俗 硏究』(一志社, 1987), pp. 166-167.

148) 李頤淳, 『後溪集』 卷5, 「雜著」, ‘大造殿修理時記事’. “蓋大造殿, 卽中宮殿臨御之所也. 嘉禮日近, 故將修理.”

149) 동뢰연은 창경궁(昌慶宮)의 통명전(通明殿), 경희궁(慶熙宮)의 광명전(光明殿), 창덕궁의 대조전 등 왕비와 대비의 처소에서 주로 행해졌다. 한영우, 『昌德宮과 昌慶宮 조선왕조의 흥망, 그 빛과 그늘의 현장』(열화당·효형출판, 2003), pp. 204-205; 이미선, 「조선의 국모가 되는 가장 까다롭고도 화려한 행사: 왕비의 간택과 책봉」, 신명호 외, 『조선의 역사를 지켜온 왕실 여성』(글항아리, 2014), p. 81.

150) 동뢰연이 진행될 때에도 요지연도 병풍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뢰연의 장소가 주로 가례를 통해 새롭게 왕비가 될 여성을 위한 공간이었다는 점, 대조전의 수리와 장식 작업이 곧 이곳에서 거처할 순원왕후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지연도 병풍이 설치된 것은 순원왕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조선 왕실 가례의 동뢰연에서 사용된 병풍이 주로 ‘십장생도’나 ‘화조도’, ‘영모도’ 혹은 소병(素屛)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뢰연이 열릴 대조전에 요지연도 병풍이 설치된 점은 주목된다. 동뢰연에 사용된 병풍에 관한 내용은 박은경, 앞의 논문, pp. 64-67; 김문식, 「1823년 明溫公主의 가례 절차」, 『朝鮮時代史學報』 56(2011), p. 144 참조.

아뢰기를 "몇 년 동안 간절히 바라던 터에 대례(大禮)의 길일(吉日)이 머지않았으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다행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전께서 이르기를 "오늘 상의원 제조를 소견(召見)한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이다. 삼간택을 한 뒤에 별궁(別宮)으로 나아갈 때 으레 덩[德應]을 탔다.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한다면 기한에 맞춰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김조순이 아뢰기를 "경신년(1800)에 재간택을 할 때 선조(先朝)께서 정미년(丁未年, 1787)에 사용하던 것에 색을 칠하여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의 덩을 갖추어 집례문(集禮門) 행각에 모셔 두었으니 이번에 그것을 쓸지 말지는 하교를 받들고 난 뒤에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전께서 이르기를 "예전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여 모든 일에 되도록 폐단을 줄이고자 한다. 따라서 동뢰연(同牢宴)에 사용하는 교배석(交拜席) 등과 같은 물건은 예전 것을 가져다가 색칠만 다시 해서 쓰려고 한다. 그러나 덩은 꼭 새로 만들어서 쓰고자 하니 15일부터 일을 시작하도록 하고 덩의 모양은 정미년에 쓰던 것과 똑같이 하라."[151]

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김조순은 가례의 성사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다행"이라고 하며 이 가례가 자신에게 사적으로도 중요한 행사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혔다. 상의원의 제조는 이처럼 왕비의 아버지인 국구가 주로 맡는 자리였다. 또한 상의원은 국구가 관장하는 부서라고 인식되고 있었다.[152] 상의원은 왕실의 재화와 복식, 보물 등 귀중품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상의원에 보관된 물품에는 선대의 귀중품을

151) 『日省錄』 純祖 2年 8月 13日(辛亥). "大王大妃殿敎祖淳曰, 主上今旣長成而壹位久曠常以爲悶. 顧今慶禮不遠欣忭何極. 祖淳曰, 幾年顒祝之餘大禮吉日不遠, 公私慶幸萬萬. 大王大妃殿曰, 今日召見尙衣提調者, 蓋有所欲言耳. 三揀擇後詣別宮時例爲乘德應矣. 方欲新造果能及期造成否. 祖淳曰, 庚申再揀擇時先朝欲以丁未年所用件取色用之. 今其舊件奉於集禮門行閣, 今番之用不用須承下敎然後可以擧行矣. 大王大妃殿曰, 仰念昔日聖意, 凡百務欲省弊. 故如同牢席等物亦欲以舊件改色用之, 而德應則必欲新造用之, 自十五日始役, 而體樣則一依丁未年所用件可也."

152) 이은주, 「궐내각사 상의원의 위치와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고찰」, 『한국복식』 43(2020), pp. 78-82. 상의원은 특별히 왕비의 아버지인 국구들이 관여한 기관이었다. 국구들은 상의원의 제조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이들은 군사권을 관할하는 병조판서나 오위도총부 등의 고위 관원으로 있었을 때 상의원 제조를 겸직하였다.

비롯하여 왕실에 수장된 서화류와 왕실의 병풍이 있었다.[153] 아울러 가례를 비롯한 궁중 의례 때는 상의원에서 기물이 조달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대조전의 기물과 병풍을 준비한 일에도 상의원 제조였던 김조순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당시 대조전의 수리 작업을 실제로 총괄한 이는 호조참판(戶曹參判)인 박종보(朴宗輔, 1760-1808)였다.[154] 박종보는 순조 대 초에 국구인 김조순과 매우 친밀하여 정사에 함께 참여하고 국가의 중대사[機密]도 논의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155] 즉 당시 대조전의 수리와 장식 작업은 김조순과 박종보의 총괄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대조전에 요지연도 병풍이 설치된 것도 이들이 관여한 결과였을 것이다.

당시 대조전은 명백하게 왕비의 공간이었다. 이 점으로 볼 때 대조전의 수리 및 장식 작업은 앞으로 대조전에 기거할 순원왕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가례의 의식 때 대조전에 설치되거나 사용될 기물을 조달하는 일은 왕비의 아버지인 김조순이 담당하였다. 즉 자신의 딸이 왕비에 책봉된 것을 기념하려는 목적에서 김조순이 순원왕후의 공간에 요지연도 병풍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요지연도는 1802년의 가례를 기념할 수 있는 그림이었던 동시에 순원왕후와 관련이 깊은 그림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지연도는 사대부가의 혼례에 실제로 사용되는 그림이기도 했다.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이 지은 세시풍속지(歲時風俗志)인 『경도잡지(京都雜誌)』 중 혼례 풍습에 관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

---

153) 송수환, 「조선 전기의 尙衣院」, 『경희사학』 21(1997), pp. 68-70. 궁중의 상례(喪禮)에 관한 제도가 정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따르면 상례에서 병풍을 대여해 올 기관 가운데 상의원이 있었다. 한편 왕실의 행사에 사용된 병풍은 하나의 단독 기관에 의해 관리되지 않았다. 병풍의 관리는 호조(戶曹) 및 병조(兵曹) 산하의 계병소(稧屛所), 병풍조성소(屛風造成所), 상의원, 장흥고(長興庫), 내탕고(內帑庫), 제용감(濟用監), 내섬시(內贍寺)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김수진, 「조선 후기 병풍 연구」, p. 12 참조.

154) 李頤淳, 『後溪集』 卷5, 「雜著」, '大造殿修理時記事'. "伊時監役戶曹堂上參判朴宗輔. 嘉順宮兄也."; 정병설, 앞의 책, p. 410.

155) 『純祖實錄』 純祖 7年 10月 29日(丁酉). "경신년(1800) 초에는 원구(元舅)[김조순]의 지친(至親)으로서 (정사에) 참여해 듣고 기밀에도 참여하였다(庚申初以元舅之親與聞密勿)……."

다.

> 벽에는 종규(鐘馗)가 귀신 잡는 그림, 신선이 사슴을 탄 그림을 건다. 병풍에는 금강산 일만이천봉 혹은 관동팔경을 그린다. 작은 병풍에는 꽃, 새, 나비 등을 그리고 혼인에 쓰는 병풍에는 '백자도'나 '곽분양행락도', '요지연도'를 그린다. 관청의 잔치용이나 제용감(濟用監)의 모란대병은 사대부가의 혼례에서 또한 빌려 사용하였다.[156]

『경도잡지』는 대략 1790년대 후반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157] 유득공의 기록은 당시 사대부가의 혼례에서 요지연도 병풍을 사용하는 관습이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려 준다.[158] 주목되는 점은 사대부가의 혼례 때 왕실의 제용감에서 모란대병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이다. 제용감은 왕실에서 쓰이는 의복과 직물 등을 담당한 관청이다. 이는 사대부가와 왕실 사이에서 회화가 비교적 쉽게 공유되던 양상을 보여준다.[159] 유득공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요지연도는 사가(私家)에서 이미 혼례에 적합한 그림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왕실에 출입하던 사대부들 또한 요지연도가 혼례와 어울리는 그림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묘조계병》의 요지연도는 시각적으로도 가례를 연상시킨다. 조선 후기의 요지연도는 서왕모와 동왕공(東王公)의 만남이라는 주제가 중심을 이룬다. 즉 요지연도는 두 남녀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그림이었다.[160] 《정묘조계병》에도 서왕모와 동왕공이 만난 장면이 화면

---

156) 柳得恭, 『京都雜志』 卷1, 「風俗」, '書畵'. "壁揭鐘馗捕鬼仙人騎鹿圖, 屛畵金剛一萬二千峯惑或關東八景, 小屛花鳥蛺蝶, 婚屛百子圖, 郭汾陽行樂圖, 瑤池宴圖, 公燕用濟用監牧丹大屛士族婚禮亦借用."

157) 『경도잡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윤조, 「『京都雜誌』 연구 - 저술 과정과 이본 검토 -」, 『동양한문학연구』 32(2011), pp. 183-206 참조.

158) 유득공의 기록을 인용하여 요지연도 병풍이 사대부층의 혼례에서 사용되었음을 지적한 연구로는 박은경, 앞의 논문, p. 60; Seo Yoonjung, 앞의 논문. p. 205; 김수진, 「조선 후기 병풍 연구」, p. 192 참조.

159) 김수진, 위의 논문, p. 70.

160) 조선 후기의 요지연도는 일본의 서왕모 그림과 마찬가지로 서왕모와 동왕공의 만남이 주된 주제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에는 잔치의 분위기가 더 강하게

의 중심 주제로 그려졌다(도 16). 또한 《정묘조계병》에는 한 쌍을 이룬 동물들의 조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잔치 장면의 주위에는 암수 한 쌍의 사슴, 봉황, 공작, 학이 그려져 있다(도 17). 이처럼 쌍을 이룬 동물 도상은 두 남녀의 만남을 상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161] 또한 이러한 동물들의 도상은 서왕모와 동왕공의 만남이라는 요지연도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였을 것이다. 특히 한 쌍의 봉황은 혼인을 통해 결합한 부부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조선 후기의 왕실에서 빈번하게 활용된 도상이었다.[162] 봉황 한 쌍과 아홉 마리의 새끼가 그려진 그림인 〈구추봉도(九雛鳳圖)〉가 1802년의 가례를 앞두고 창덕궁 대조전에 설치되었을 만큼 봉황 한 쌍의 도상은 당시 혼례 및 부부의 화합이라는 의미를 지녔다.[163] 즉 서왕모와 동왕공의 만남 장면과 동물 도상들은 《정묘조계병》이 가례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묘조계병》에 재현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여성들 또한 실제 왕실의 가례를 연상시키는 요소였다. 《정묘조계병》에는 편경(編磬), 편종(編鐘), 박(拍), 비파(琵琶), 피리, 북과 같은 악기들이 그려져 있으며 시녀들이 이 악기들을 연주하고 있다(도 16). 화면에 재현된 악기들은 실제로 왕실 진연(進宴)이나 진찬(進饌)에서 여악(女樂)에 의해 연주되고 의궤의 도식(圖式)에 그려진 악기들과 매우 흡사하다(도 18).[164] 아울러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왕모가 만난 인물은 동왕공이 아니라 주 목왕 혹은 한(漢) 무제(武帝)였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Seo Yoonjung, 앞의 논문, pp. 206-207 참조. 논문 심사에서 요지연도가 서왕모와 동왕공의 만남을 통해 두 남녀의 결합을 드러내는 그림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해 주신 유재빈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61) 제임스 캐힐은 청대 회화에 반복적으로 그려진 암수 한 쌍의 동물 도상이 남녀의 결합을 상징하는 모티프였을 것이라는 해석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James Cahill, 앞의 책, pp. 42-55 참조.

162) 우현수,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소장 〈봉황·공작도〉 쌍폭에 대하여」, 국립고궁박물관 편, 『궁궐의 장식그림』(국립고궁박물관, 2009), pp. 110-119; 김현지, 「한국과 중국 鳳凰圖의 도상과 상징 연구」, 『미술사연구』 26(2012), pp. 15-51; 정병설, 앞의 책, pp. 420-421; 이재은, 「19세기 궁중 서수도의 양상과 특징」, 『미술사학연구』 292(2016), pp. 83-110.

163) 李頤淳, 『後溪集』 卷5, 「雜著」, '大造殿修理時記事'. "東上房, 正寢三間. 東壁, 立牧丹屛. 北壁, 付九雛鳳圖."

164) 기존 연구에서도 조선의 요지연도 병풍과 곽분양행락도 병풍에는 왕실 가례를 연상시키는 요소가 많다고 주장되었다. 요지연도와 곽분양행락도 병풍은 왕실 가례 시

서왕모와 주 목왕 앞에서 춤을 추는 두 여성은 궁중 정재(呈才)에서 볼 수 있던 여령(女伶)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처럼 연회를 준비하거나 음악과 춤을 공연하는 여성들은 실제 궁중 가례와 관련된 요소들이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요지연도》에는 여악과 여령의 모습 외에도 서왕모의 뒤에 그려진 오봉병(五峯屛)이 주목된다(도 19). 이 병풍은 왕실 의례에서 왕이나 대비의 뒤에 놓였던 일월오봉병(日月五峯屛)을 연상시킨다(도 20). 실제로 순원왕후의 뒤에 일월오봉병이 설치된 사례가 있다. 1827년에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존호(尊號)를 올린 상존호례(上尊號禮)에서는 순원왕후의 뒤에 일월오봉병이 설치되었다고 한다(도 21).[165] 서왕모의 뒤에 오봉병이 그려진 위와 같은 사례는 조선 후기의 요지연도 병풍에 왕실의 실제 행사를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의도적으로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묘조계병》에도 왕실 가례와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됨으로써 이 계병이 실제로 거행된 가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시각적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정묘조계병》에는 이전 시기의 요지연도에 비해서 실제 조선 왕실의 궁중 연향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 《정묘조계병》보

별궁에 설치되고는 하였다. 한편 왕실 혼례에서는 음악은 연주되지 않고 악대만 갖추어지는 "진이부작(陳而不作)"의 원칙이 준수되었다. 요지연도와 같이 많은 여악과 여령이 등장하는 잔치 장면의 그림은 왕실 가례에서 실제로는 연주되지 않았던 음악과 춤을 대체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Seo Yoonjung, 앞의 논문, pp. 207-209 참조. 왕실 혼례 때 진설된 악기들에 관한 내용은 신병주 외, 『왕실의 혼례식 풍경』(돌베개, 2013), pp. 91-97 참조. 이처럼 조선의 요지연도에는 여령, 여악, 여관(女官) 등 연회를 준비하거나 가무를 벌이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아울러 조선의 요지연도 병풍에는 중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악기 연주 혹은 무용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크다. 이러한 특징들을 근거로 요지연도 병풍이 실제 왕실 여성을 위해 열렸던 내연(內宴)을 연상시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Yoo Jaebin, 앞의 논문, p. 25 참조.

165) 당시 제작된 의궤인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의 〈전내도(殿內圖)〉에서 화면의 좌측이 순원왕후의 자리이며 우측이 순조의 자리이다. 왕비의 뒤에 일월오봉병이 놓이는 경우는 왕비가 사망하고 혼전(魂殿) 뒤에 설치되는 경우뿐이었다. 아울러 1827년의 상존호례에서 이전과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왕과 왕비가 나란히 앉았다는 것이었다. 일월오봉병에 관한 내용은 명세나, 「조선시대 흉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오봉병 연구」, 『美術史論壇』 28(2009), pp. 37-60 참조. 1827년의 상존호례에서 순원왕후의 뒤에 일월오봉병이 설치된 사례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Yoo Jaebin, 위의 논문, p. 34 참조.

다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지연도들에는 악기 연주와 여령의 가무 장면이 이처럼 많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지연도 6폭 병풍》은 현재 전하는 요지연도 병풍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도 22).[166] 이 작품에는 《정묘조계병》에 그려진 편경이나 편종, 쌍으로 무용을 공연하는 여령이 보이지 않는다. 즉 《요지연도 6폭 병풍》에는 실제 연향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묘사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역시 1700년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지연도〉에도 연회와 관련된 요소는 그려지지 않았다(도 23).[167] 도화서 화원들에 의해 약 1720년대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진 《고사인물화보(故事人物畫譜)》에도 〈요지연도〉가 포함되어 있다(도 24).[168] 그런데 이 그림에도 연향과 관련된 악기나 무용 장면은 재현되지 않았다.

순원왕후의 거처가 될 창덕궁의 대조전에는 가례를 앞두고 요지연도 병풍이 설치되었다. 대조전이라는 공간의 성격상 요지연도 병풍은 가례를 축하하는 동시에 순원왕후의 왕실 입성을 기념하는 그림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당시 요지연도는 사대부가에서 이미 혼례에 적합한 병풍 그림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정묘조계병》에 묘사된 서왕모와 동왕공의 만남, 한 쌍을 이룬 동물들, 악기와 무용 장면 등 시각적 요소들 또한 가례를 기념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정묘조계병》의 요지연도는 1802년 가례를 기념하는 뜻을 보이기 위해 선택된 화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

166) 이 작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고사인물화』2(국립중앙박물관, 2016), pp. 238-240 참조.

167) 이 작품이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대 궁중 화원에 의해 그려졌을 것이라는 추정은 이성훈, 앞의 글, pp. 529-530 참조.

168) 이 화첩에는 정조의 장서인(藏書印)인 '홍재(弘齋)'와 '중광지장(重光之章)'이 찍혀 있어 정조가 이 그림을 감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화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미나, 「18세기 전반의 詩文 故事 書畫帖 考察 -《萬古奇觀》 帖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4(2005), pp. 123-155; 삼성미술관 Leeum 편, 『조선화원대전』(삼성미술관 Leeum, 2011), p. 365를 참조.

2. 서왕모(西王母)의 상징적 의미와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의 정치적 기능

요지연도 속 잔치의 주인인 서왕모는 조선시대 왕실 의례에서 주인공으로 자리한 왕실 여성을 비유하는 고사 속 인물이었다. 특히 정조는 그의 모친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서왕모의 상징적 의미를 그림에 활용하여 혜경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서왕모라는 상징과 요지연도 병풍은 이후 왕실 여성이 주빈(主賓)으로 참석한 진찬(進饌)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즉 서왕모는 궁중 연향에서 왕실 여성을 잔치의 주인으로 높이려는 목적에서 활용되었다.

서왕모는 조선 전기부터 대왕대비(大王大妃)의 생일에 장수를 축원하거나 왕비 혹은 세자빈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책문(哀冊文)에서 왕실 여성을 비유하는 고사 속 인물이었다.[169] 그런데 정조는 서왕모라는 상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정조는 재위 18년(1794) 6월 22일에 "서쪽을 바라보니 서왕모가 요지로 내려오다(西望瑤池降王母)"라는 차비대령화원(差備待令畫員)의 녹취재(祿取才) 화제(畫題)를 인물(人物) 화문(畵門)에 출제하였다.[170] 흥미로운 점은 이로부터 나흘 전인 6월 18일이 혜경궁 홍씨의 생일이었다는 것이다. 즉 정조는 혜경궁의 생일 직후에 서왕모와 관련된 녹취재 화제를 출제하였다. "서쪽을 바라보니 서왕모가 요지로 내려오다"라는 녹취재 화제는 계절마다 세 차례 치러지는 시험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재차방(再次榜)으로 이루어졌다. 재차방 시험의 화문과 화제는 규장각 각신들에 의해 출제되었다. 아울러 차비대령화원의 업무는 국왕이 추진하고 있거나 규장각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171]

따라서 이 녹취재 화제는 정조와 각신들의 계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

169) 박본수, 앞의 논문(2016), p. 28.

170)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상)』(돌베개, 2001), pp. 153-155. 이 구절은 당나라의 시인 두보(杜甫, 712-770)가 쓴 시 「추흥(秋興)」에 나온다.

171) 유재빈, 앞의 책, pp. 52-55. 녹취재 시험의 시행 규정에 관한 내용은 강관식, 위의 책, pp. 69-73 참조.

출제된 것이었다. 또한 1794년 6월은 혜경궁의 회갑을 맞아 거행될 화성(華城) 원행(園幸)을 앞둔 시점이었다. 1795년 윤 2월에 정조는 대규모의 화성 원행을 거행하였으며 혜경궁의 회갑을 축하하고자 봉수당(奉壽堂)에서 진찬을 열었다.[172] 원행 일 년 전에 정조와 규장각 각신들은 화원들에게 서왕모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이다. 이는 이들이 서왕모와 혜경궁의 연관성을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173]

또한 정조는 1795년 12월에 초계문신들에게 "진연 제1작의 치사(進宴第一爵致詞)"로 "왕모가 신선의 복숭아를 바치다(王母獻仙桃)"라는 주제를 칠언장편(七言長篇)이나 칠언율시(七言律詩) 형식에 맞추어 짓게 하였다. 즉 신하들에게 진연에서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을 축하하는 글을 쓰게 한 것이다. 이 친시(親試)는 정조가 그해 6월에 치르고자 했으나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치르게 된 것이었다. 정조는 시권(試券)을 자신이 직접 채점하기도 했다.[174]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해 6월에 있었던 진연은 혜경궁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진찬연(進饌宴)이었다. 이미 윤 2월에 화성 행궁에서 혜경궁의 회갑연이 열렸으나 혜경궁의 탄신일에도 또 한 번 회갑연이 개최된 것이다. 이때 혜경궁은 북쪽에 앉아 남면(南面)하였으며 정조는 혜경궁의 동쪽에 앉았다. 즉 이 행사에서 혜경궁은 신하들 위에서 잔치의 주인으로 자리하며 높은 위상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6월의 회갑연에도 봉수당 진찬 때와 같이 혜경궁의 친인척 다수가 참석하였으며 참석자의 규모는 오히려 봉수당 진찬 때보다 컸다.[175] 아울러 회갑연에서

---

172) 정조의 을묘년(1795) 원행에 관한 연구로는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8일』(효형출판, 1998) 참조.

173) 정조는 모친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회화 제작에 관심을 기울였다. 정조는 세종이 양로연(養老宴)을 처음으로 실시한 후에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반포했듯이 자신도 자궁(慈宮)의 주갑(週甲)을 만나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편찬한다고 말했다. 『正祖實錄』 正祖 21年(1797) 1月 1日; 유재빈, 「烈女圖에 담긴 폭력과 관음의 이중 굴레」, 『大東文化硏究』 118(2022), p. 44, 주9에서 재인용.

174) 『日省錄』 正祖 19年 12月 11日(戊子). "考下抄啓文臣六月朔親試試券. 御題進宴第一爵致詞, 七言長篇或律詩, 頭辭則依例書之王母獻仙桃, 韻依原韻."

175) 혜경궁의 회갑연에 관한 내용은 임혜련, 「1795년(정조 19) 혜경궁의 화성 행차와

혜경궁에게 치사(致詞)와 함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린 이는 정조였다.[176] 즉 "왕모가 신선의 복숭아를 바치다"라는 시험 주제는 정조가 혜경궁을 행사의 주인으로 드높였던 의도를 유추하도록 출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월의 회갑연이 끝나고 난 뒤 12월에도 정조는 서왕모의 의미를 초계문신들에게 각인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서왕모는 혜경궁을 연상시키는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정조는 이를 통해 신하들이 서왕모와 혜경궁을 다시 한 번 연관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편 1795년 윤 2월의 화성 원행은 정조가 혜경궁을 향한 자신의 효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혜경궁이 중심이 된 행사였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화성의 현륭원(顯隆園)에 행차하는 원행에 혜경궁을 모셨으며 혜경궁을 위한 진찬연을 기획했다. 또 정조는 자신이 직접 행사의 순서와 의례들을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계획된 행사의 순서가 나와 있는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따르면 이 원행에서 첫 번째로 거행될 행사는 혜경궁 홍씨의 수복을 기리는 봉수당에서의 진찬연이었다. 진찬연이 가장 첫 번째 행사로 기획된 것은 정조가 전체 행사에서 혜경궁 홍씨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컸음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177]

봉수당 진찬에서도 서왕모의 상징적 의미가 활용되었다. 을묘년 원행이 끝난 뒤에는 당시의 행사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된 8폭 병풍인 《화성원행도병(華城園幸圖屛)》이 제작되어 왕실에 내입(內入)되고 신하들에게도 분하되었다(도 14). 행사의 여덟 장면 중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에는 여령이 은쟁반 위에 올려진 선도(仙桃)를 혜경궁에게 바치는 헌선도(獻仙桃)의 순간이 혜경궁의 자리 가장 가까이에 묘사되어 있다(도 25, 26). 헌선도는 서왕모가 곤륜산의 요지에서 삼천 년에 한 번 열린다는 복숭아를 행사의 주인에게 바치는 것을 표현한 정재 의식이다. 〈봉수당진찬도〉에 그려진 헌선도의 장면은 서왕모와 혜경궁 사이의 관련성

봉수당 진찬의 특징」, 『藏書閣』 40(2018), p. 243 참조.

176) 『日省錄』 正祖 19年 6月 18日(丁酉).

177) 유재빈, 앞의 책, pp. 398-399.

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그려졌을 것이다.[178] 한편 진찬연에서는 여러 정재들이 공연되었으나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봉수당진찬도〉 도설(圖說)에는 가장 첫 번째 정재였던 헌선도무(獻仙桃舞)만이 재현되었다(도 27).[179] 이는 봉수당 진찬에서 공연된 여러 정재들 중 헌선도가 가장 중요한 정재였음을 드러낸다.[180] 이처럼 행사 공간을 상서로운 선계(仙界)로 만드는 헌선도가 재현된 그림은 진찬의 주인공과 서왕모 사이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냈을 것이다.

서왕모라는 상징은 혜경궁을 의도적으로 잔치의 주인공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봉수당 진찬은 선례를 찾기 어려운 행사였기 때문이다. 왕의 생모였으나 대비는 아니었으며 엄밀하게 말해 세자빈이었던 혜경궁에게 진찬을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시도였다. 따라서 정조는 여러 방식을 통해 혜경궁의 지위를 높여야만 했다.[181] 이때 서왕모를 활용한 비유가 눈에 띄게 많이 활용되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조가 당시 거행된 진찬과 낙남헌(落南軒)에서의 양로연(養老宴) 등이 모두 혜경궁의 공덕이라고 강조하였다는 것이

178) 〈봉수당진찬도〉에 재현된 헌선도가 독특한 이유는 1829년에 제작된 《기축진찬도병(己丑進饌圖屛)》(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829년의 진찬 중 내진찬(內進饌)에서도 헌선도가 공연되었다. 그런데 완성된 행사도인 《기축진찬도병》의 〈자경전내진찬도(慈慶殿內進饌圖)〉에는 어좌에서 멀리 떨어진 화면 중앙에 헌선도가 재현되었다. 따라서 〈봉수당진찬도〉에서 헌선도가 혜경궁의 자리 가장 가까이에 묘사된 것은 의도적인 회화적 연출로 해석할 수 있다.

179) 유재빈, 앞의 책, pp. 404-405.

180) 도설에 헌선도무가 재현된 것은 당시 정재의 순서 때문일 수도 있으나 진찬연에서 헌선도무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진찬연을 직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조는 특히 여령들이 맡은 정재에 신경을 썼다. 원래 정재는 신하들이 정해서 올리면 왕이 재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공연될 정재를 자신이 직접 선정하여 명령을 하달하였다. 아울러 봉수당 진찬이 있기 2일 전인 윤2월 11일에 정조는 "모레의 진찬은 처음 있는 성대한 행사인 관계로 거행하는 절차가 정식에 맞을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여령에게 달려 있다"라며 연습을 철저하게 하도록 명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정해득, 「1795년 을묘년 원행의 성격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79(2016), pp. 534-536을 참조.

181) 진찬은 주로 왕, 왕비, 대비, 대왕대비에게 치러졌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미치지 못한 혜경궁에게 진찬을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혜경궁은 엄밀히 따지면 세자빈의 지위에 해당했다. 그러나 화성 원행 때 혜경궁에게는 세자빈보다 높고 왕비보다는 낮은 지위의 의장(儀仗)이 갖추어졌다. 아울러 정조는 혜경궁에게 진찬을 올리기 위해 대왕대비의 회갑연에서 그 선례를 찾았다.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임혜련, 앞의 논문(2018), pp. 233-234 참조.

다.[182] 즉 혜경궁을 진찬의 주인으로 부각하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신선 세계에서 잔치를 연 주인공인 서왕모를 활용한 비유 역시 빈번하게 나타났다.[183]

서왕모를 통해 왕실의 여성을 잔치의 주인으로 격상시키는 방식은 정조 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순조 9년(1809) 2월 27일에 혜경궁의 관례 60주년을 축하하여 창경궁(昌慶宮) 경춘전(景春殿)에서 열린 진찬에서도 서왕모가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진찬을 위해 지어진 악장(樂章)에는 서왕모가 찾아와 술잔을 올렸다는 구절이 있다.[184] 아울러 심상규(沈象奎, 1766-1838)가 지은 순조가 혜경궁에게 올린 치사(致詞)에는 "큰 복을 서왕모에게서 받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185] 즉 순조 대에도 궁중 행사에서 지위가 높은 왕실 여성을 서왕모에 비유하는 경향은 지속되었다.

《정묘조계병》은 이처럼 서왕모가 왕실 여성을 행사의 주인으로 강조

---

182) 『園幸乙卯整理儀軌』 卷1, 「筵說」, 乙卯 閏2月 14日.

183) 통치자가 시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자신의 어머니를 신적인 존재에 비유한 사례는 명나라 황실에서도 있었다. 명나라의 만력제(萬曆帝, 재위 1572-1620)는 궁녀 출신이며 자신의 생모인 자성황태후(慈聖皇太后, 1546-1614)를 구련관음(九蓮觀音)의 화신(化身)으로 이상화했다. 1586년 음력 7월 7일에 자성황태후의 처소인 자녕궁(慈寧宮)에는 이중으로 핀 연꽃이 만개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력제는 화가들에게 연꽃을 그리게 했다. 또 그는 자성황태후의 모습을 닮은 구련관음의 그림과 구련관음의 모습이 새겨진 석비(石碑)를 주문했으며 그 탁본(拓本)을 제국 전역에 배포했다. 자성황태후는 자신이 관음보살로 이상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틀림없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마샤 와이드너(Marsha Weidner), 「九蓮菩薩像과 明 萬曆帝 皇后(Images of the Nine-Lotus Bodhisattva and the Wanli Empress Dowager)」, 『중국사연구』 35(2005), pp. 245-280 참조.

184) "만년의 앞날 경하드리니, 천수 더욱 평안하리라. 태묘의 금모[서왕모] 찾아와 술잔 올릴 제, 요지(瑤池)의 복숭아 안주 알알이 향기 진동하도다(慶萬年, 壽彌康, 太妙金母來捧觴, 瑤桃佐肴顆顆香)." 국립국악원 편, 『(역주)기사진표리진찬의궤』(국립국악원, 2018), p. 58. 번역문은 필자가 한국고전종합DB에 게시된 『일성록』의 번역문과 대조하여 일부 수정하였음. 『日省錄』 純祖 9年 2月 27日.

185) "국왕은 삼가 가경(嘉慶) 14년 2월 27일 효강자희정선휘목혜빈(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 저하의 길한 날을 만나 술잔을 올리며 경사스러운 해가 다시 돌아옴을 송축합니다. 화락함은 주(周)나라의 작례(酌醴)와 같이 무르익었고 기쁨은 한(漢)나라 때의 즐거움을 이었습니다. 큰 복을 왕모[서왕모]에게 받았으니(受介福于王母) 경사로움이 후손들에게도 넘칠 것입니다. 삼가 천천세의 수를 누리소서." 위의 책, p. 61. 번역문은 필자가 한국고전종합DB에 게시된 『일성록』의 번역문과 대조하여 일부 수정하였음. 『日省錄』 純祖 9年 2月 27日.

하기 위한 상징으로 인식되던 분위기 속에서 제작되었다. 흥미롭게도 《정묘조계병》이 제작된 이후 순조 대에 순원왕후도 서왕모에 비유되었다. 예를 들어 순조 12년(1812)경에는 원자였던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에 《순묘조왕세자탄강계병(純廟朝王世子誕降稧屛)》이 제작되었다(도 28). 병풍 뒷면에는 이 계병의 명칭과 좌목이 적혀 있다(도 29). 이 병풍은 세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탄강계병이며 화제는 요지연도이다. 그런데 효명세자가 탄생한 시점은 그가 아직 세자로 책봉되기 전이었으나 계병에는 "왕세자탄강계병"이라는 명칭이 적혀 있다. 즉 이 계병은 효명세자가 왕세자로 책봉된 1812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186]

《순묘조왕세자탄강계병》을 발의한 주체는 1809년에 효명세자가 탄생했을 때 임시로 근무하였던 산실청(産室廳) 관원들이었다. 산실청에서 근무했던 관원들이 몇 년 뒤인 세자 책례 이후 다시 모여 계병을 제작한 것이다. 한편 당시 산실청에서 일했던 관원들에는 김조순과 김근순(金近淳, 1772-몰년 미상)과 같은 안동 김문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병의 좌목에도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중 김조순은 산실청에서 실직(實職)을 맡지는 않았으나 별입직(別入直)으로 참여하였다. 순조 대 이후로는 왕실의 위급한 사건을 앞두고 약원제조(藥院提調) 외에 왕실의 인척 중 가까운 인물이 별입직이라는 명목으로 궁궐에 불려 대기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187] 즉 김조순과 김근순이 좌목에 포함된 이유는 이들이 순원왕후 친정의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원자가 세자로 책봉되어 국왕의 공식 후계자가 됨으로써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쪽은 그의 모친인 순원왕후였다. 친아들이 왕의 공식 후계자로 확정됨에 따라 순원왕후는 왕실의 최고 서열인 대비가 된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녀의 친정인 안동 김문 또한 계속해서 왕실에서 외척 가문

186) 이 병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朴銀順, 앞의 논문(1987) 참조.
187) 이러한 현상은 정조 대까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순조 대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내용은 오수창, 「권력 집단과 정국 운영」, p. 597을 참조.

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188]

《순묘조왕세자탄강계병》은 계병을 주문한 관청인 산실청의 성격으로 보아 세자보다는 세자를 출산한 어머니와 관련이 깊었다. 아울러 계병의 발의자들 중에는 순원왕후의 친정인 안동 김문의 인사들이 있었다. 세자가 탄생한 지 3년여 뒤에 산실청에서 계병을 발의한 이유는 세자가 책봉되며 순원왕후와 안동 김문의 위상이 강화된 것이 기념할만한 일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강계병의 화제로 요지연도가 채택된 이유는 서왕모가 세자를 낳은 순원왕후를 부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1828년(순조 28)에 효명세자가 순원왕후의 사순(四旬)을 맞아 진작의례(進爵儀禮)를 기획하며 직접 창작한 악장에도 서왕모를 활용한 비유가 등장한다. 효명세자는 주류(珠旒)를 늘어뜨린 순원왕후가 남면(南面)하여 여러 신선[羣仙]의 절을 받는다고 표현하였다.[189] 이러한 표현은 조선 후기의 요지연도 병풍에서 서왕모를 향해 신선들이 요지의 잔치에 참석하러 오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를 통해 순원왕후는 서왕모와 동일시되었을 것이다. 또한 효명세자는 "서왕모의 병풍이 깊이 놓이니 꽃은 나날이 향기롭다(王母屛深花日薰)"라는 구절도 창작하였다.[190] 서왕모의

188) 순원왕후는 친정인 안동 김문과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동 김문의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일조를 하였다. 순원왕후는 특히 수렴청정기에 친정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안동 김문의 세력이 강화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은 박주, 「조선 후기 순원왕후와 안동 김문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 『韓國思想과 文化』 89(2017), pp. 209-239을 참조.

189) 翼宗, 『敬軒集』 卷6, 「樂章」, '進爵先唱樂章.' "珠旒面南羣仙拜."

190) 翼宗, 『敬軒集』 卷6, 「樂章」, '進爵先唱樂章.' 이 문집에 실린 선창악장(先唱樂章)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류를 늘어뜨리고 남쪽을 향하여 여러 신선의 절을 받으니, 궁전을 새벽에 열어서 봉래산의 구름을 맞이하였다. 공작선을 낮게 부치니 밝고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고, 서왕모의 병풍이 깊이 놓이니 꽃은 나날이 향기롭다. 상서로운 아지랑이는 비단 자리에 감돌고, 반도 복숭아는 구슬 술잔에 비추었다. 청아한 노래 느즈러지고 춤추는 채색의 옷소매 번쩍이는데, 관 쓰고 패옥 찬 조정의 관료들이 빽빽하게 서서 천세 만세를 외치니, 백 척 높은 누대에 향불 연기 자욱하도다(珠旒面南羣仙拜, 金殿曉開蓬萊雲. 孔雀扇低璇風轉, 王母屛深花日薰. 瑞靄籠錦筵, 蟠桃暎玉樽. 淸歌緩, 彩袖翻, 冠佩簇立呼千歲, 樓臺百尺香烟昏)." 『순조실록』에 실린 효명세자의 악장에는 '薰' 자가 '曛' 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순조 사후에 편찬된 실록보다는 효명세자의 문집인 『경헌집(敬軒集)』에 실린 내용이 더욱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순원왕후의 사순 기념 진작의례에 관한 내용은 박나연, 「純祖代 孝明世子

병풍, 즉 요지연도 병풍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초에는 순원왕후 김씨가 주빈이 된 행사에서 순원왕후가 서왕모와 동일시되기까지 했다.[191] 아울러 1828년의 진작의례가 열릴 장소는 효명세자의 명에 따라 창경궁의 자경전으로 정해졌다.[192] 자경전은 정조가 혜경궁 홍씨를 위해 지었던 건물로 그 이후에 대비전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일반적으로 진작의례는 외연(外宴)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19세기에는 여성들의 처소에서 열리는 내연(內宴)이 행사의 중심이 되었으며 행사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193] 즉 1828년 순원왕후의 사순을 기념한 진작의례는 공간의 선택에서도 대비인 순원왕후가 중심에 있었던 행사였다.

서왕모와 요지연도는 왕실의 여성을 행사의 주인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징이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특히 정조 대에 혜경궁 홍씨가 서왕모에 비유된 이후 순조 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파

관련 王室儀禮 연구」(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1), pp. 86-102를 참조.

191) 북송(北宋, 960-1127)대에는 황후가 직접 성모(聖母)와 서왕모의 이미지를 활용해 자신의 권위를 높인 사례가 있었다. 산서성(山西省) 태원(太原)에 위치한 진사(晋祠)의 성모전(聖母殿)에 안치된 성모상(聖母像)은 당시 황후였던 류 황후(劉皇后, 섭정 1020-1033)와 서왕모를 연상시켰던 것으로 해석된다. 류 황후의 초상화에도 서왕모의 도상이 활용되었다. 성모상과 류 황후의 초상에 서왕모 도상이 결합된 양상에 대해서는 Hui-shu Lee, *Empresses, Art, and Agency in Song Dynasty Chin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0), pp. 52-61 참조. 조선에서도 19세기 중반에 서경순(徐慶淳, 1804-몰년 미상)이 자신이 연행을 떠나 중국의 서화 시장에서 보게 된 청나라 황후의 초상이 서왕모 상만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 문인들 사이에 황후를 서왕모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서경순의 기록은 徐慶淳, 『夢經堂日史』編4, 「紫禁瑣述」, "二十二日" 참조. 아울러 조선 전기에 제작된 제석천도(帝釋天圖)의 자세 및 착의법(着衣法)은 성모나 서왕모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 황후의 초상에 나타난 모습과도 유사하다. 이 점은 제석천(帝釋天)이나 서왕모를 여성 통치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그림이 조선 전기부터 이미 익숙한 이미지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석천도의 도상이 황후와 서왕모를 연상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박은경, 『조선 전기 불화 연구』(시공사, 2008), pp. 295-300을 참조.

192) 무자년(戊子年, 1828)의 진작의례에 관한 내용은 박나연, 앞의 논문(2021), pp. 86-102 참조.

193) 내연이 19세기에 들어 행사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내연이 중요해지고 왕실 여성들이 행사의 주인으로 대접을 받은 현상과 함께 일어난 변화였다. 이는 왕실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Yoo Jaebin, 앞의 논문, p. 13.

악된다. 즉 정조 대 말부터 순조 대까지는 왕실 여성을 행사의 주인으로 부각하기 위한 상징으로 서왕모가 활용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려진 《정묘조계병》의 요지연도는 잔치의 주인공으로서의 왕실 여성이라는 서왕모의 상징적 의미와 무관하게 선택된 그림이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즉 《정묘조계병》의 요지연도는 가례의 성사를 축하하는 동시에 서왕모의 도상을 통해 순원왕후의 위상을 강조할 수 있는 그림이었다. 김조순의 딸이 왕비에 책봉되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녀의 가문인 안동 김문과 그 주위의 세력이 권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선전관들은 1802년의 가례 성사를 기념하는 한편 순원왕후를 주인공으로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이 계병을 완성하는 의미를 공유했을 것이다.

현재 《정묘조계병》은 두 점이 전해지기 때문에 당시 이 계병이 여러 점 제작되어 분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계병을 분하받아 소장한 사람들은 선전관 관원들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사인물화가 그려진 계병은 장식적인 기능만을 했을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관료들이 시간이 지나 과거의 정치적 결속을 떠올리고 회상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다.[194] 즉 고사인물화 계병도 일종의 정치적인 상징물로 활용될 수 있었다.[195]

---

194) 1720년에 숙종이 사망한 이후 왕릉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산릉도감(山陵都監)에서 발의한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계병은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고사인물화 계병의 한 예이다. 서원아집도는 문인들의 이상적인 모임이 주제인 그림이다. 1720년의 서원아집도 계병은 노론계 문신들의 결속을 드러내는 매개로써 제작되었다. 1720년으로부터 일 년 뒤의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인해 산릉도감의 도제조였던 이건명(李健命, 1663-1722) 등이 사사되었다. 이후 이 계병은 그림에 그려진 고사 속의 인물들처럼 한때 같은 당파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의 결속을 상기시키는 매개로 인식되었다. 이 계병의 제작에 관한 기록은 李縡, 『陶菴集』 卷24, 「跋」, '山陵都監稧屛跋'; 任聖周, 『鹿門集』 卷21, 「題跋」, '題庚子山陵稧屛後' 참조. 한편 심미적인 감상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미술 작품들도 실제로는 보는 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또 어떤 미술품들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정치적 충성(political allegiance)을 가시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론에 관한 내용은 Janet Hokins, "Agency, Biography and Objects," in Christopher Tilley et al., eds., *Handbook of Material Culture* (London: SAGE, 2006), pp. 74-84 참조.

195) 정치적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적 결속이 가시화된 상징물을 필요로 한다. 이때 비정치적(nonpolitical)으로 보일수록 상징은 오히려 더 강

요지연도를 비롯하여 고사인물화를 주제로 한 계병은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감상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고사인물화 계병도 관료들이 집단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매체로 기능하였다. 또한 당시 관료들이 공유하던 문화에 따라 계병의 화제에 내포된 의미는 달라졌다. 19세기 초에 조선 왕실에서 요지연도는 가례와 관련이 있는 동시에 왕실 여성을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순원왕후의 책비(冊妃)와 가례 이후에 완성된 《정묘조계병》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선전관들은 순원왕후가 왕비로 책봉되며 자신들도 정치적 이익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여 행사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요지연도를 화제로 선택했을 것이다.

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시각 예술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징주의(Political Symbolism)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Michael Walzer, "On the Role of Symbolism in Political Though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82, no. 2 (1967), pp. 191-204 참조.

V. 결론

《정묘조계병》은 19세기 초 선전관들과 외척 세력이 긴밀한 유대를 맺었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정묘조계병》의 화제(畫題)인 요지연도는 이전 시기에 제작된 정조 대 계병들의 화제와 성격이 매우 다르다. 기존의 정조 대 계병들의 화제는 국왕의 정치적 의도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행사도였다. 그러나 《정묘조계병》의 화제인 요지연도는 책례와 관련이 없었으며 행사도 계병의 시각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정조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 그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묘조계병》에 이러한 화제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이 계병이 책례가 끝나고 수년 뒤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요지연도라는 이례적인 화제 또한 이때 비로소 선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전관청에서 《정묘조계병》을 완성한 계기는 1802년에 치러진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요지연도는 당시 혼례를 축하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이었으며 왕실에 들어올 순원왕후의 처소에도 설치되는 등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와 관련이 깊은 그림이었다.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는 정조 사후 세력이 위축되었던 선전관들이 권력을 회복하게 되는 정치적 의미가 담긴 행사이기도 했다. 가례의 성사를 통해 이들과 정치적 유대를 맺고 있던 김조순이 국구가 되어 군사권을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선전관들은 가례 이후 자신들의 권력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고자 《정묘조계병》을 완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묘조계병》이 정조 대의 다른 왕실 계병들과 비교했을 때 보이는 차이점들과 서문 및 좌목을 검토한 결과 이 작품은 실제로 순조 대 초에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우의정이자 정조의 측근 신하였던 이시수가 무관들을 위해 서문을 작성해 주었다는 점은 이 계병의 발의를 지시한 이가 정조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정조 대의 다른 계병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정조 대의 계병들에는 모두 행사도가 그려져 정조가 기획한 행사의 취지 및 군신의 위계가 시각화되어 전달되

었다. 반면에 《정묘조계병》에는 이러한 효과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지연도가 그려져 있다. 한편 좌목에 기록된 선전관의 품계를 검토해 본 결과 《정묘조계병》의 좌목과 그림은 순조 대 초에 비로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화제인 요지연도는 순조 대 초에 선택된 그림이었다. 이는 《정묘조계병》이 정조 대의 계병들과 화제 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선전관들이 《정묘조계병》을 완성한 계기는 1802년에 성사된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전관들은 훗날 세자를 보필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으며 책례계병(冊禮稧屛)을 발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조 사후 벽파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정조 대의 핵심 관료들이 제거되었으며 선전관들의 세력 또한 위축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는 선전관들이 권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가례를 통해 당시 군사를 관장하고 선전관들과 정치적 유대를 맺고 있던 시파의 김조순이 국구가 됨으로써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례가 성사된 이후에 김조순과 가까웠던 무관들은 다시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즉 선전관들이 《정묘조계병》을 완성한 이유는 이들이 계병을 완성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 회복을 기념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묘조계병》의 화제인 요지연도는 1802년의 가례 및 새로 왕비로 책봉된 순원왕후와 관련이 깊은 그림이었다. 1802년의 가례를 앞두고 창덕궁의 대조전에는 요지연도 병풍이 설치되었다. 조선 후기에 요지연도 병풍은 혼례를 축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조전의 요지연도 병풍 또한 1802년의 가례를 축하하기 위해 설치되었을 것이다. 한편 대조전은 앞으로 궁궐에 기거할 순원왕후를 위한 공간이었다. 대조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요지연도는 순원왕후와 관련이 깊은 그림이었다. 또한 대조전의 요지연도 병풍은 당시 가례의 기물을 관리했던 상의원 제조인 김조순이 딸의 왕실 입성을 기념하고자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요지연도의 주인공인 서왕모는 궁중 행사에서 왕실 여성을 잔치를 베푼 주인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사 속 인물이었다. 정조는 혜경궁 홍씨

의 회갑을 기념하여 서왕모에 관한 시와 회화를 주문하였다. 이후 순원왕후 김씨가 중심이 된 왕실 행사에서도 서왕모를 활용한 비유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정묘조계병》은 이처럼 궁중 행사에서 서왕모가 왕실 여성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던 분위기 속에서 완성되었다. 이는 《정묘조계병》의 요지연도 또한 가례의 주인공인 순원왕후와 관련이 깊었음을 시사한다.

《정묘조계병》은 선전관들에게 세자의 보도(輔導)를 맡기고자 한 정조의 구상에 따라 발의된 계병이었다. 그러나 계병의 그림과 좌목이 실제로 결정되고 완성된 시기는 순원왕후가 왕비에 책봉되어 가례가 성사된 이후였다. 즉 《정묘조계병》은 본래의 발의 목적과는 다르게 순원왕후의 가례를 기점으로 권력을 회복하게 된 선전관들의 정치적 결속이 가시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經國大典註解』(前集)
『內閣日曆』
『純祖實錄』
『承傳受點案』(奎9887)
『承政院日記』
『日省錄』
『正祖實錄』

『純元王后國葬都監儀軌』(奎13686)
『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
『園幸乙卯整理儀軌』

金祖淳, 『楓皐集』
徐慶淳, 『夢經堂日史』
徐命膺, 『保晩齋集』
安重觀, 『悔窩集』
柳得恭, 『京都雜志』
俞彦鎬, 『燕石』
李明漢, 『白洲集』
李福源, 『雙溪遺稿』
李沃, 『博泉集』
李裕元, 『嘉梧藁略』
李頤淳, 『後溪集』
李縡, 『陶菴集』
翼宗, 『敬軒集』
任聖周, 『鹿門集』
丁若鏞, 『經世遺表』

2. 국문 논저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상)』, 돌베개, 2001.

국립고궁박물관 편, 『(국역)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國譯)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 국립고궁박물관, 2016.

국립국악원 편, 『(역주)기사진표리진찬의궤』, 국립국악원, 2018.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궁중행사도』Ⅰ, 국립중앙박물관, 2010.

_____ 편, 『조선시대 궁중행사도』Ⅱ, 국립중앙박물관, 2011.

_____ 편, 『조선시대 고사인물화』2, 국립중앙박물관, 2016.

김동욱, 「정조와 김조순의 밀담, 「영춘옥음기(迎春玉音記)」」, 『문헌과 해석』 49(2009), pp. 237-261.

김문식, 「1823년 明溫公主의 가례 절차」, 『朝鮮時代史學報』 56(2011), pp. 125-160.

김수진, 「조선 후기 병풍 연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_____, 「1879년 순종의 천연두 완치 기념 계병(稧屛)의 제작과 수장」, 『미술사와 시각문화』 19(2017), pp. 98-125.

_____, 「계회도(契會圖)에서 계병(稧屛)으로: 조선 시대 왕실 계병의 정착과 계승」, 『미술사와 시각문화』 27(2021), pp. 102-127.

김세은, 「1627년(인조5) 昭顯世子의 嘉禮와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서울대학교규장각 편,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3, 서울대학교규장각, 2005, pp. 371-382.

_____, 「1744년(영조 20) 思悼世子의 嘉禮와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 서울대학교규장각 편,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3, 서울대학교규장각, 2005, pp. 398-413.

金用淑, 『朝鮮朝 宮中風俗 硏究』, 一志社, 1987.

김윤조, 「『京都雜誌』 연구 - 저술 과정과 이본 검토 -」, 『동양한문학연구』 32(2011), pp. 183-206.

金祖淳, 『楓皐集』, 保景文化社, 1986.

김지영, 「英祖代 親耕儀式의 거행과 『親耕儀軌』」, 『한국학보』 28(2002), pp. 55-86.

김태희, 「김조순 집권의 정치사적 조명」, 『대동한문학』 43(2015), pp. 5-37.
김현지, 「한국과 중국 鳳凰圖의 도상과 상징 연구」, 『미술사연구』 26(2012), pp. 15-51.
나영훈, 「조선 후기 訓鍊大將의 성격과 정치적 위상」, 『청계사학』 23(2021), pp. 171-215.
노대환, 「19세기에 드리운 정조의 잔영과 그에 대한 기억」,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정조와 정조 이후: 정조 시대와 19세기의 연속과 단절』, 역사비평사, 2017, pp. 136-161.
노상추, 『(국역)노상추 일기』5, 정해은 외 역, 국사편찬위원회, 2018.
_____, 『(국역)노상추 일기』7, 정해은 외 역, 국사편찬위원회, 2019.
명세나, 「조선시대 흉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오봉병 연구」, 『美術史論壇』 28(2009), pp. 37-60.
민길홍, 「〈文孝世子 輔養廳契屛〉 -1784년 문효세자와 보양관의 상견례 행사」, 『미술자료』 80(2011), pp. 97-114.
박나연, 「正祖代 후반 王世子 冊封禮와 그 意義」, 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_____, 「純祖代 孝明世子 관련 王室儀禮 연구」,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1.
박본수, 「朝鮮 瑤池宴圖 硏究」, 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2016.
_____,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正廟朝王世子冊禮稧屛)》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요지연도를 중심으로」, 『고궁문화』 13(2020), pp. 137-163.
박우훈, 「李時秀의 燕行長詩 「續北征」 硏究」, 『한국시가연구』 5(1999), pp. 311-346.
박은경, 『조선 전기 불화 연구』, 시공사, 2008.
박은경, 「朝鮮後期 王室 嘉禮用 屛風 硏究」,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박은순, 「17·18世紀 朝鮮王朝時代의 神仙圖 硏究」,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4.
_____, 「純廟朝 〈王世子誕降稧屛〉에 대한 圖像的 考察」, 『考古美術』 174(1987), pp. 40-75.
_____, 「正廟朝 〈王世子冊禮稧屛〉: 神仙圖稧屛의 한 가지 예」, 『미술사연구』

4(1990), pp. 101-112.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_____ 외,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2005.
_____, 「《顯宗丁未溫幸契屛》과 17세기의 산수화 契屛」, 『美術史論壇』 29(2009), pp. 97-128.
_____ 외,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2012.
박주, 「조선 후기 순원왕후와 안동 김문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 『韓國思想과 文化』 89(2017), pp. 209-239.
박홍갑, 「朝鮮前期의 宣傳官」, 『사학연구』 41(1990), pp. 119-146.
삼성미술관 Leeum 편, 『조선화원대전』, 삼성미술관 Leeum, 2011.
서울역사박물관 편, 『탑골에서 부는 바람』, 서울역사박물관, 2015.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정조어찰첩』,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송수환, 「조선 전기의 尙衣院」, 『경희사학』 21(1997), pp. 53-93.
신병주 외, 『왕실의 혼례식 풍경』, 돌베개, 2013.
안병일, 「조선시대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운영과 기능, 그리고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014), pp. 25-47.
오수창, 「정국의 추이」,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편, 『조선정치사 1800-1863』(上), 청년사, 1990, pp. 71-125.
_____, 「권력집단과 정국 운영」,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편, 『조선정치사 1800-1863』(下), 청년사, 1990, pp. 575-633.
_____, 「오늘날의 역사학, 정조 연간 탕평정치, 그리고 19세기 세도정치의 삼각 대화」,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정조와 정조 이후: 정조 시대와 19세기의 연속과 단절』, 역사비평사, 2017, pp. 162-188.
오종록, 「중앙 군영의 변동과 정치적 기능」,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편, 『조선정치사 1800-1863』(下), 청년사, 1990, pp. 425-490.
_____, 「비변사의 조직과 직임」,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편, 『조선정치사 1800-1863』(下), 청년사, 1990, pp. 491-531.
오현경, 「조선 후기 瑤池宴圖 연구」,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우현수, 「조선후기 瑤池宴圖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_____,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소장 〈봉황·공작도〉 쌍폭에 대하여」, 국립고

궁박물관 편, 『궁궐의 장식그림』, 국립고궁박물관, 2009, pp. 110-119.
_____, 「세상은 요지경(瑤池鏡): 조선시대 요지연도(瑤池宴圖) 이야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편, 『조선, 병풍의 나라(Beyond Folding Screens)』, 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18, pp. 290-295.
유미나, 「18세기 전반의 詩文 故事 書畫帖 考察 -《萬古奇觀》 帖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4(2005), pp. 123-155.
유봉학, 「楓皐 金祖淳 硏究」, 『韓國文化』 19(1997), pp. 251-307.
유언호, 『연석(燕石)』1, 오항녕·이주형 역, 흐름출판사, 2019.
유재빈, 「정조의 세자 위상 강화와 〈문효세자책례계병〉(1784)」, 『미술사와 시각문화』 17(2016), pp. 90-117
_____, 「正祖代 宮中繪畫 硏究」,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_____, 「정조대 왕위 계승의 상징적 재현: 〈文孝世子輔養廳契屛〉(1784)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93(2017), pp. 5-31.
_____, 「정조의 중희당 친림도정의 의미와 〈乙巳親政契屛〉(1785)」, 『한국문화』 77(2017), pp. 193-233.
_____, 「烈女圖에 담긴 폭력과 관음의 이중 굴레」, 『大東文化硏究』 118(2022), pp. 39-72.
_____, 『정조와 궁중회화: 문예군주 정조, 그림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유진 Y. 박, 『조선 무인의 역사, 1600-1894년』, 유현재 역, 푸른역사, 2018.
윤민경, 「세도정치기 安東 金門의 정치적 기반 –국왕, 유력 가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5.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_____, 「조선후기 免新禮의 관행과 宣傳官契會圖」, 『서울학연구』 54(2014), pp. 175-214.
이경구, 『조선후기 安東 金門 연구』, 일지사, 2007.
_____, 「조선 후기 안동 김문의 의리관」, 『조선시대사학보』 64(2013), pp. 133-160.
이광우, 「19세기 전반기 삼군문(三軍門)의 재정 운영 실태」, 『군사』 89(2013),

pp. 75-113.
이근호, 「조선후기 어찰(御札)의 전통(傳統)과 『정조어찰첩(正祖御札帖)』」, 『동국사학』 47(2009), pp. 93-130.
이미선, 「조선의 국모가 되는 가장 까다롭고도 화려한 행사: 왕비의 간택과 책봉」, 신명호 외, 『조선의 역사를 지켜온 왕실 여성』, 글항아리, 2014, pp. 35-86.
이방섭, 「正祖의 壯勇營 운영과 정치적 구상」, 『조선시대사학보』 53(2010), pp. 45-82.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 탕평과 세도정치: 숙종조-고종조』, 동방미디어, 2000.
李成美·姜信沆·劉頌玉, 『藏書閣所藏 嘉禮都監儀軌』,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이성훈, 「요지연도: 천상의 잔치, 요지연의 장면」, 안휘준·민길홍 엮음,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 학고재, 2009, pp. 524-541.
이은주, 「궐내각사 상의원의 위치와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고찰」, 『한국복식』 43(2020), pp. 71-101.
이재은, 「19세기 궁중 서수도의 양상과 특징」, 『미술사학연구』 292(2016), pp. 83-110.
이태진, 『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硏究院, 1985.
임혜련, 「19세기 垂簾聽政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 전공 박사학위 논문, 2008.
_____, 「19세기 國婚과 安東 金門 家勢」, 『韓國史學報』 57(2014), pp. 227-259.
_____, 「1795년(정조 19) 혜경궁의 화성 행차와 봉수당 진찬의 특징」, 『藏書閣』 40(2018), pp. 224-249.
장필기, 「朝鮮後期 別軍職의 組織과 그 活動」, 『史學硏究』 40(1989), pp. 279-326.
_____, 「朝鮮後期 宣傳官出身 家門의 武班閥族化 過程」, 『軍史』 41(2001), pp. 253-280.
_____, 『朝鮮後期 武班閥族家門 硏究』, 집문당, 2004.
정병설, 『권력과 인간: 사도세자의 죽음과 조선 왕실』, 문학동네, 2012.
정원용, 『수향편: 四祖 정승 정원용이 기록한 조선의 통치 시스템』, 신익철 외 역,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정해득, 「1795년 을묘년 원행의 성격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79(2016), pp. 515-543.
정해은, 「조선후기 선천(宣薦)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2001), pp. 128-160.
_____, 「조선 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 《盧尙樞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3(2008), pp. 293-323.
_____, 『조선의 무관과 양반사회(무과급제자 16,643명의 분석 보고서)』, 역사산책, 2020.
차장섭, 『조선 후기 벌열 연구』, 일조각, 1997.
최성환, 「정조대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_____,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최우혁, 「19세기 진찬의례와 군문의 재정 활용」, 『국학연구』 45(2021), pp. 231-275.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편, 『조선정치사 1800-1863』(上·下), 청년사, 1990.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8일』, 효형출판, 1998.
_____, 『昌德宮과 昌慶宮 조선왕조의 흥망, 그 빛과 그늘의 현장』, 열화당·효형출판, 2003.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홍석인, 「조선시대 親政圖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홍선표, 「조선시대 궁궐의 그림 치장」, 김홍남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동아시아의 궁중미술』, 한국미술연구소CAS, 2013, pp. 207-227.
황경문, 『출생을 넘어서: 한국 사회 특권층의 뿌리를 찾아서』, 백광열 역, 너머북스, 2022.

3. 영문 논저

마샤 와이드너(Marsha Weidner), 「九蓮菩薩像과 明 萬曆帝 皇后(Images of the Nine-Lotus Bodhisattva and the Wanli Empress Dowage

r)」, 『중국사연구』 35(2005), pp. 245-280.

Cahill, James. *Pictures for Use and Pleasure: Vernacular Painting in High Qing China*.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Cahill, Suzanne E. *Transcendence and Divine Passion: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in Medieval China*.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Clunas, Craig. *Superfluous Things: Material Culture and Social Status in Early Modern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Foong, Ping and Chelsea Foxwell, eds. *The Multivalent Screen: Materiality and Representation in East Asian Visual Culture*. Chicago: Art Media Resources and Center for the Art of East Asia, University of Chicago, 2019.

Hokins, Janet. "Agency, Biography and Objects." In Christopher Tilley et al., eds. *Handbook of Material Culture*, pp. 74-84. London: SAGE, 2006.

Huang, Shih-shan Susan. *Picturing the True Form: Daoist Visual Culture in Traditional China*.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2.

Iversen, Margaret. "Retrieving Warburg's Tradition." *Art History* 16, no. 4 (1993), pp. 541-553.

Jing, Anning. "The Eight Immortals: The Transformation of T'ang and Sung Taoist Eccentrics during the Yüan Dynasty." In Maxwell K. Hearn and Judith K. Smith, eds. *Arts of the Sung and Yüan*, pp. 213-229. New York: Department of Asian Art,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6.

Lee, Hui-shu. *Empresses, Art, and Agency in Song Dynasty China*. Seattle;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0.

Seo, Yoonjung. "Connecting Across Boundaries: The Use of Chinese Images in Late Chŏson Court Art from Transcultural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14.

Tseng, Lillian Lan-ying. *Picturing Heaven in Early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1.

Walzer, Michael. "On the Role of Symbolism in Political Though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82, no. 2 (1967), pp. 191-204.

Wu, Hung. *The Wu Liang Shrine: The Ideology of Early Chinese Pictorial Art*.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Yoo, Jaebin. "Feminine Space in Court Paintings of Late Joseon Dynast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5 (2022), pp. 11-82.

4. 중문 논저

巫鸿,『中国绘画中的"女性空间"』,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联书店, 2019.

도판 목록

도 1.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正廟朝王世子冊禮稧屛)》, 1802년 이후 추정, 비단에 채색, 각 145.0×54.0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正廟朝王世子冊禮稧屛)》, 1802년 이후 추정, 비단에 채색, 각 113.0×47.7cm, 서울역사박물관
도 3. 도 1의 제1폭(서문)
도 4. 도 1의 제8폭(좌목)
도 5. 도 1의 제2, 3, 4폭
도 6. 도 1의 제5, 6, 7폭
도 7. 《문효세자책례계병(文孝世子冊禮稧屛)》, 1784년, 비단에 채색, 전체 110.0×421.0cm, 서울대학교박물관
도 8. 《진하도(陳賀圖)》, 1783년, 비단에 채색, 전체 153.0×462.4cm, 국립중앙박물관
도 9. 《문효세자보양청계병(文孝世子輔養廳稧屛)》, 1784년, 비단에 채색, 각 136.5×57.0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0. 《을사친정계병(乙巳親政稧屛)》, 1785년, 비단에 채색, 각 118.0×47.8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1. 〈선전관계회도(宣傳官契會圖)〉, 1620년대, 비단에 수묵 및 담채, 92.4×57.6cm, 호림박물관[윤진영, 「조선후기 免新禮의 관행과 宣傳官契會圖」, 『서울학연구』 54(2014), p. 190, 도 3]
도 12. 〈선전관계회도(宣傳官契會圖)〉, 1789년, 종이에 채색, 115.0×74.3cm, 서울대학교박물관[윤진영, 「조선후기 免新禮의 관행과 宣傳官契會圖」, 『서울학연구』 54(2014), p. 202, 도 11]
도 13. 도 9의 세부
도 14. 《화성원행도병(華城園幸圖屛)》, 1795-1796년, 비단에 채색, 각 151.2×65.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5. 《탑동연첩(塔洞宴帖)》(그림 부분), 1803년, 종이에 수묵 및 담채, 전체 17.0×196.0cm, 서울역사박물관
도 16. 도 1의 세부
도 17. 도 1에 재현된 동물 도상들

도 18. 도 1의 악기들과 『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1809)의 악기(樂器) 도식(圖式) 비교

도 19. 《요지연도(瑤池宴圖)》, 19세기 전후, 비단에 채색, 전체 156.0×504.0cm, 국립고궁박물관

도 20. 도 19의 세부

도 21.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 중 〈전내도(殿內圖)〉, 1827년

도 22. 《요지연도 6폭 병풍》, 17세기 말-18세기 초, 비단에 채색, 각 148.8×61.2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3. 〈요지연도〉, 약 1700년경, 비단에 채색, 151.5×122.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4. 《고사인물화보(故事人物畫譜)》 중 〈요지연도〉, 1720년대, 비단에 채색, 47.2×36.2cm, 국립중앙박물관(前 리움미술관)

도 25.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1795-1796년, 비단에 채색, 151.5×66.4cm, 동국대학교박물관

도 26. 도 25의 세부[헌선도(獻仙桃)]

도 27.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봉수당진찬도〉, 17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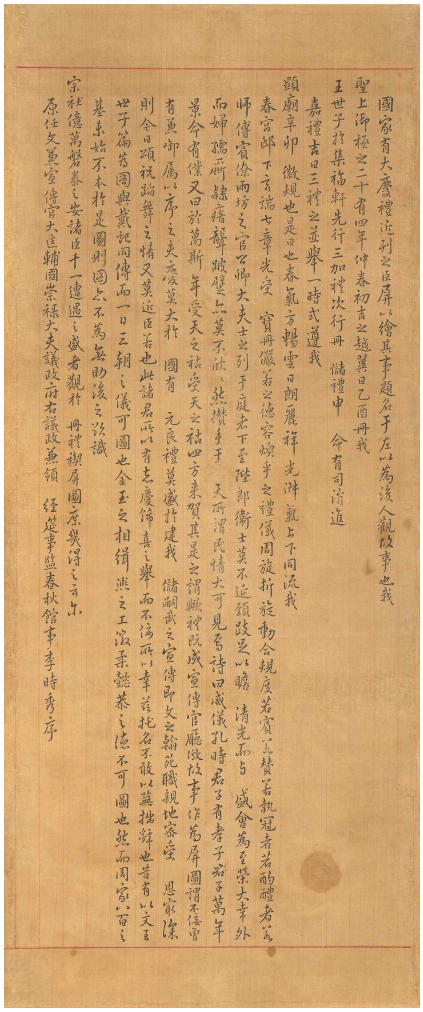
도 28. 《순묘조왕세자탄강계병(純廟朝王世子誕降稧屛)》, 1812년경, 비단에 채색, 전체 97.0×437.6cm, 개인 소장[박은순, 「純廟朝 〈王世子誕降稧屛〉에 대한 圖像的 考察」, 『考古美術』 174(1987), p. 62-63, 도 4~11]

도 29. 도 28 뒷면의 묵서(墨書)[박은순, 위의 논문, p. 61, 도 3]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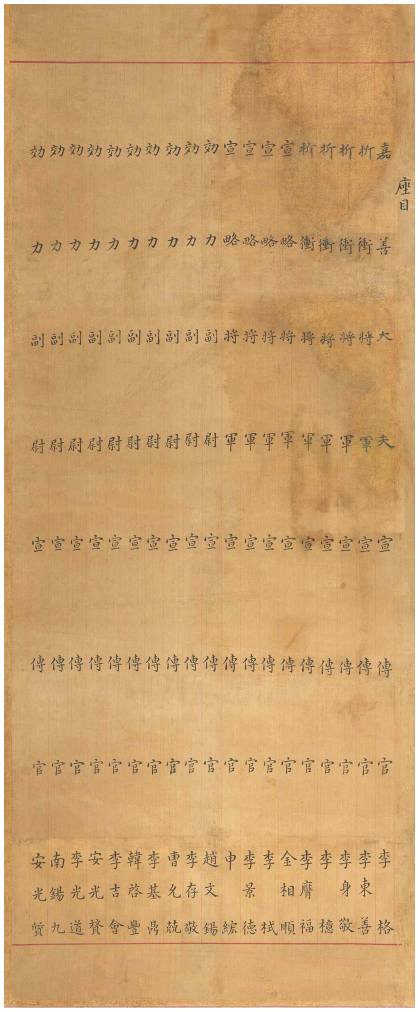
도 1.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正廟朝王世子冊禮稧屛)》, 1802년 이후 추정, 비단에 채색, 각 145.0×54.0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正廟朝王世子冊禮稧屛)》, 1802년 이후 추정, 비단에 채색, 각 113.0×47.7cm, 서울역사박물관



國家有大慶禮沈利之臣屏以繪其事題名于左以爲後人觀改事也我
聖上御極之二十有四年仲春初吉之越翼日乙酉冊我
王世子於集福軒先行三加禮次行冊儲禮中 命有司脩道
嘉禮去日三禮之並舉一時式遵我
顯廟辛卯徽規也是日也春氣方暢雲日朗麗祥光洴氣上下同流我
春宮邸下方端七章光受寶冊徽若之德容嶼乎之禮儀周旋折旋動合規度若賓玉贊若執冠者若酌禮者爲
帥傅賓僚兩坊之官也帥大夫士之列于庭走下至陛郎衛士莫不近頷跂足以瞻清光而占盛會爲至榮大幸外
而婦孺所繡痛稱跳躍之莫不歡忭於懽手 天所謂民情大可見者詩曰威儀孔時君子有孝子孫子萬年
景今有僕又曰於萬斯年受天之祜受天之祜四方來賀其是之謂歟神既成宣傳官廳後故事作爲屏圖謂不佞嘗
有兼卿屬以序之夫後葉大祚 國有 元良禮莫盛於建我 儲嗣武之宣傳即文之翰苑職親地密受 恩家深
則今日頌祝踏舞之情又莫近臣若也此諸君所以有志慶傳喜之舉而不倦所以筆筆托名不敢以蕪拙辭也昔有以文王
世子篇爲圖與戴記同傳而一日三朝之儀可圖也金玉之相稱燕之工溢柔懿恭之德不可圖也然而周家八百之
基業始不本於是圖則國之不爲無助後之欲識
宗社億萬磐泰之安諸臣千一遭遇之盛者觀於冊禮禊屏圖庶幾得之矣
原任文兼宣傳官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李時秀序

도 3. 도 1의 제1폭(서문)



嘉 座目

効効効効効効効効効効宣宣宣宣宣析析析析

善衛衛衛衛衛衛衛衛衛衛衛略略略略略略略略略略

大將將將將將將將將將將將副副副副副副副副副副副

夫軍軍軍軍軍軍軍軍軍軍軍尉尉尉尉尉尉尉尉尉尉尉

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宣

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傳

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官

李李李李李李全李李李中李李趙李曹李李韓李安李安李南

東身膺祖景文存允基啓吉賛會豐鼎航敬錫鎔德栻順福穩敬善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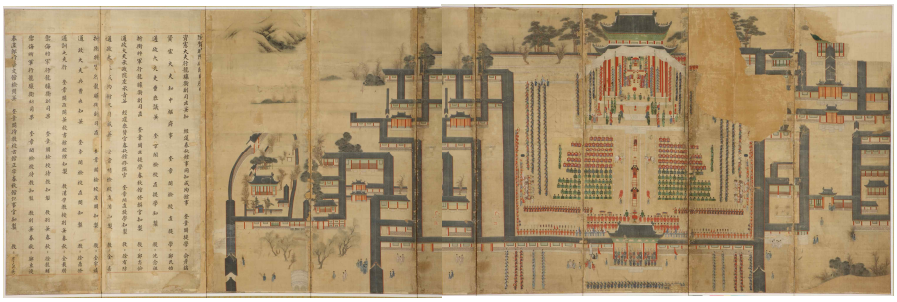
身光光光光光錫光

質九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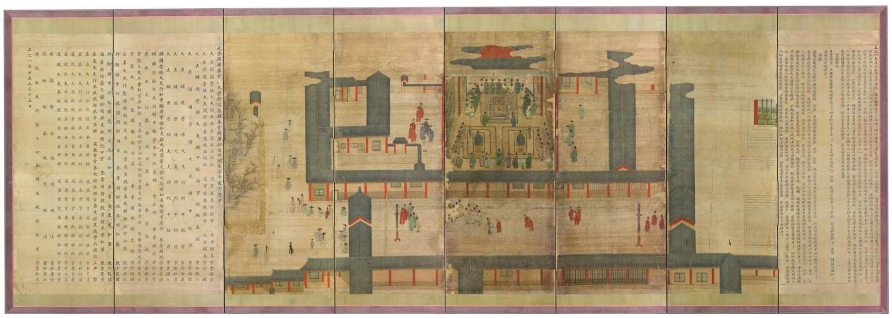
도 5. 도 1의 제2, 3, 4폭

도 6. 도 1의 제5, 6, 7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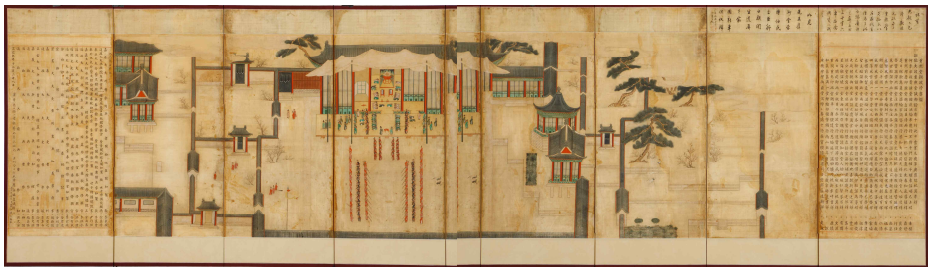
도 7. 《문효세자책례계병(文孝世子冊禮稧屛)》, 1784년, 비단에 채색, 전체 110.0×421.0cm, 서울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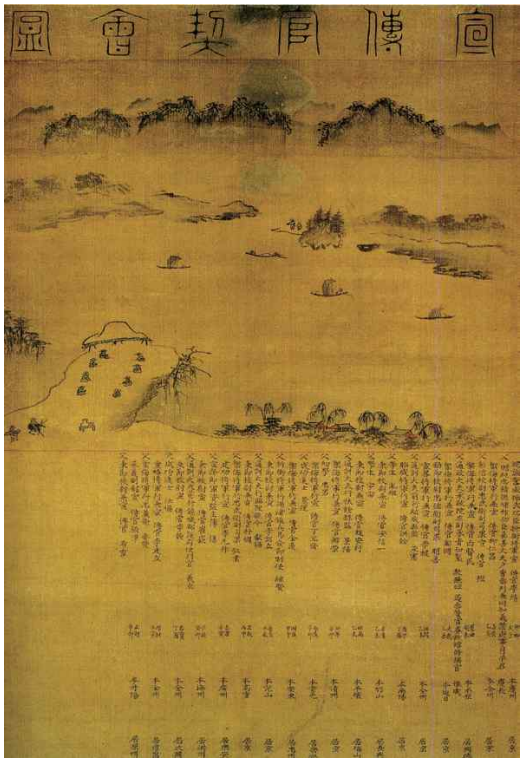
도 8. 《진하도(陳賀圖)》, 1783년, 비단에 채색, 전체 153.0×462.4cm, 국립중앙박물관



도 9. 《문효세자보양청계병(文孝世子輔養廳稧屛)》, 1784년, 비단에 채색, 각 136.5×57.0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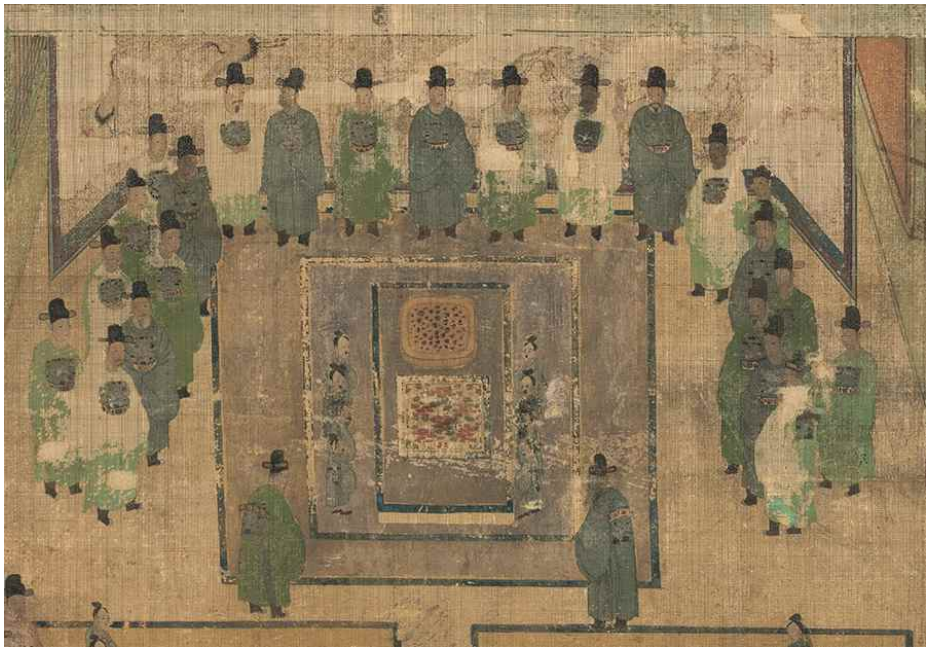


도 10. 《을사친정계병(乙巳親政稧屛)》, 1785년, 비단에 채색, 각 118.0×47.8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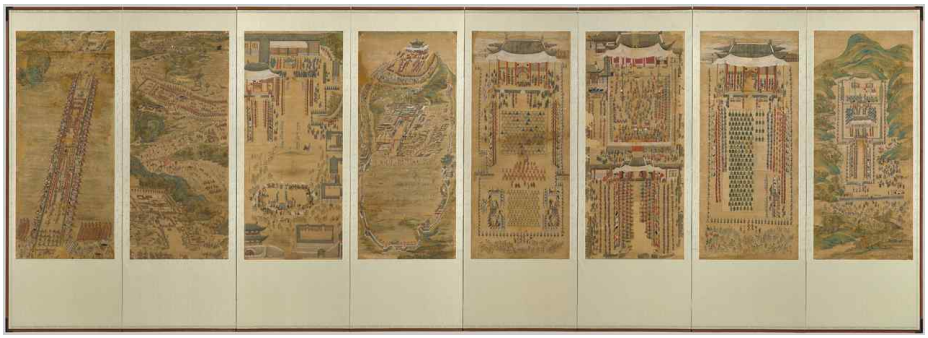


도 11. 〈선전관계회도(宣傳官契會圖)〉, 1620년대, 비단에 수묵 및 담채, 92.4×57.6cm, 호림박물관[윤진영, 「조선후기 免新禮의 관행과 宣傳官契會圖」, 『서울학연구』 54(2014), p. 190, 도 3]

도 12. 〈선전관계회도(宣傳官契會圖)〉, 1789년, 종이에 채색, 115.0×74.3cm, 서울대학교박물관[윤진영, 「조선후기 免新禮의 관행과 宣傳官契會圖」, 『서울학연구』 54(2014), p. 202, 도 11]



도 13. 도 9의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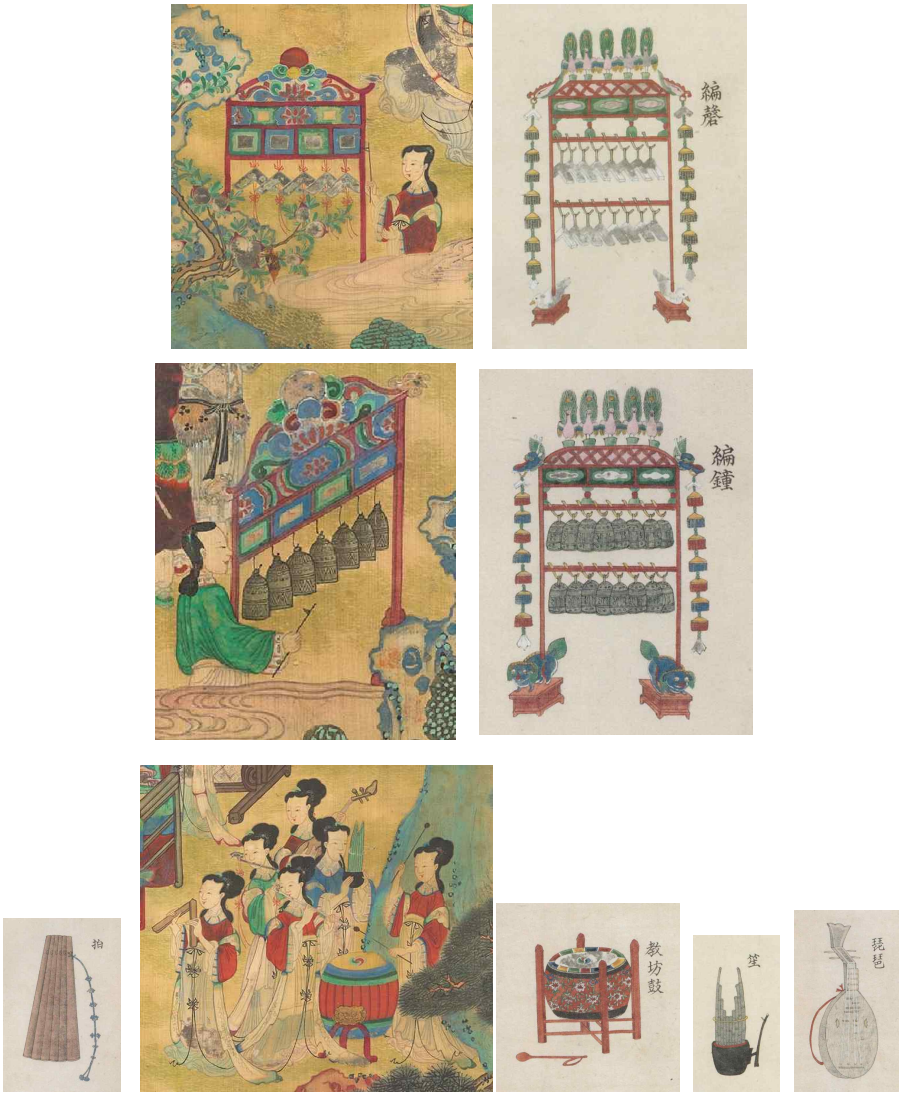


도 14. 《화성원행도병(華城園幸圖屛)》, 1795-1796년, 비단에 채색, 각 151.2×65.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5. 《탑동연첩(塔洞宴帖)》(그림 부분), 1803년, 종이에 수묵 및 담채, 전체 17.0×196.0cm, 서울역사박물관

도 16. 도 1의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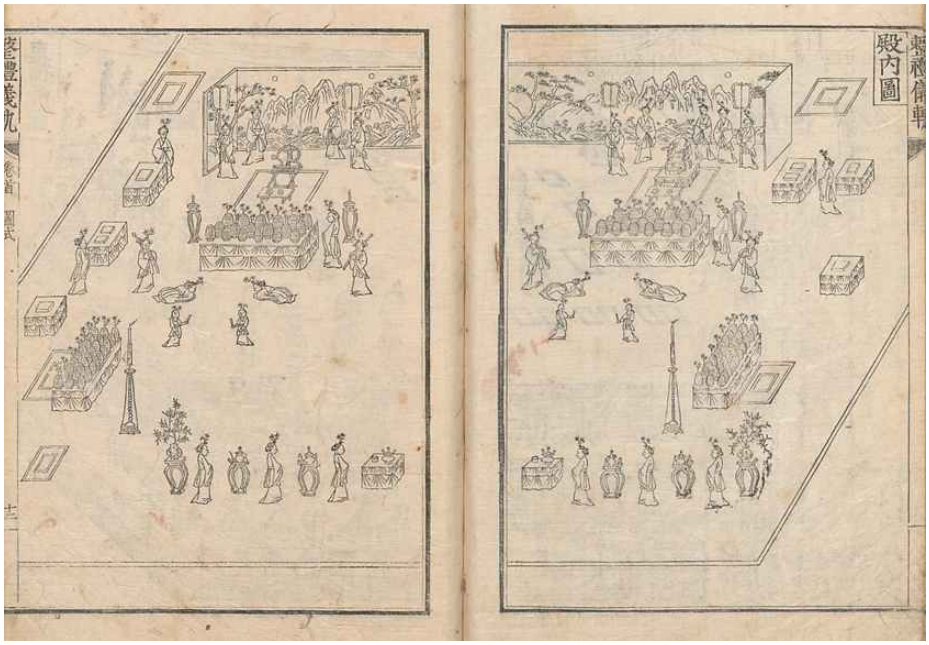
도 17. 도 1에 재현된 동물 도상들



도 18. 도 1의 악기들과 『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1809)의 악기(樂器) 도식(圖式) 비교

도 19. 《요지연도(瑤池宴圖)》, 19세기 전후, 비단에 채색, 전체 156.0×504.0cm, 국립고궁박물관

도 20. 도 19의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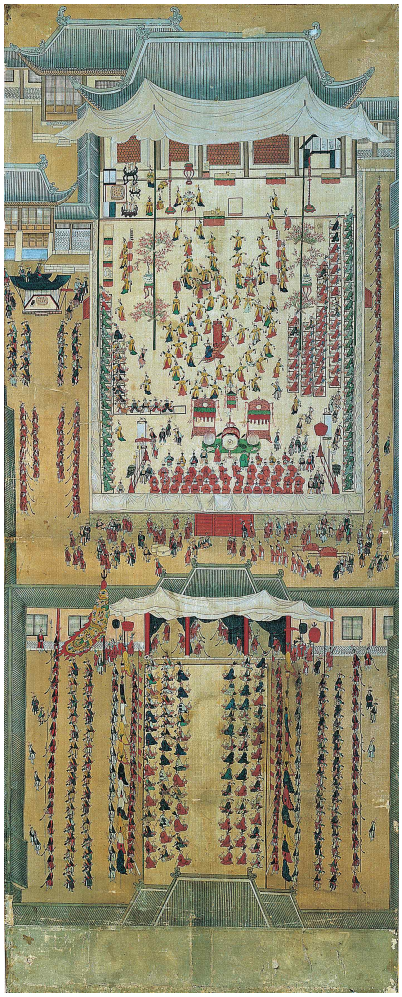


도 21.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 중 〈전내도(殿內圖)〉, 18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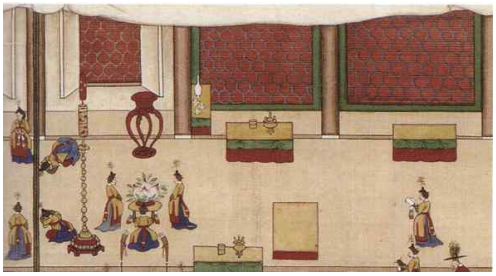
도 22. 《요지연도 6폭 병풍》, 17세기 말-18세기 초, 비단에 채색, 각 148.8×61.2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3. 〈요지연도〉, 약 1700년경, 비단에 채색, 151.5×122.7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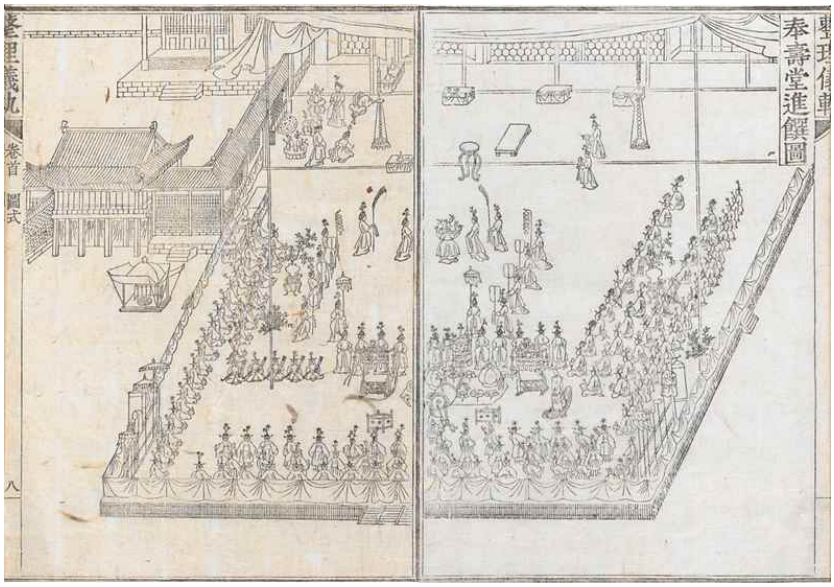
도 24. 《고사인물화보(故事人物畫譜)》 중 〈요지연도〉, 1720년대, 비단에 채색, 47.2×36.2cm, 국립중앙박물관(前 리움미술관)



도 25.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1795-1796년, 비단에 채색, 151.5×66.4cm, 동국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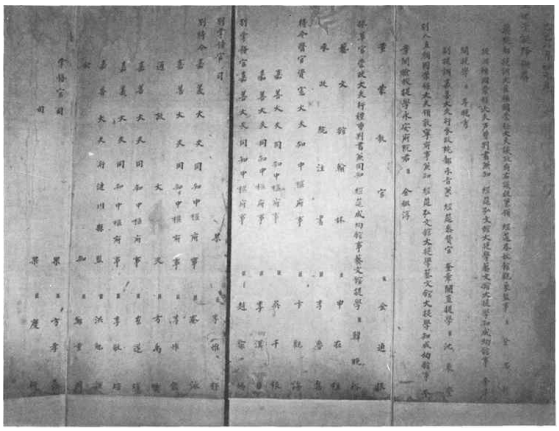


도 26. 도 25의 세부[헌선도(獻仙桃)]



도 27.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봉수당진찬도〉, 1796년

도 28. 《순묘조왕세자탄강계병(純廟朝王世子誕降禊屛)》, 1812년경, 비단에 채색, 전체 97.0×437.6cm, 개인 소장[박은순, 「純廟朝 〈王世子誕降禊屛〉에 대한 圖像的 考察」, 『考古美術』 174(1987), p. 62-63, 도 4~11]



도 29. 도 28 뒷면의 묵서(墨書)[박은순, 위의 논문, p. 61, 도 3]

Abstract

A Study of *The Commemorative Folding Screen of the Crown Prince's 1800 Investiture Ceremony* and Its Political Significance

Lee, Yoojeong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function of *The Commemorative Folding Screen of the Crown Prince's 1800 Investiture Ceremony* (*The Screen of the Investiture Ceremony*), a folding screen created in the early 19th-century Joseon court and commissioned by the Office of Heralds (*Seonjeongwan-cheong*). This painting is highly unusual in its subject, because it depicts "The Banquet of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a mythic banquet of immortals, which shows no relation to the investiture ceremony.

By reexamining the creation date of *The Screen of the Investiture Ceremony*, this study reveals that the work was actually completed after 1802. This newly discovered fact strongly suggests that "The Banquet of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on the screen was

painted after 1802 as well. Furtherm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creen of the Investiture Ceremony* was completed to celebrate the royal wedding ceremony of 1802, which was the marriage between King Sunjo (r. 1800-1834) and Queen Sunwon (1789-1857), as it marked the reclaiming of power for the Office of Heralds. The Office of Heralds could restore their power owing to the political alliance with Kim Josun (1765-1832), Queen Sunwon's father, who had control over the military.

In addition,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Banquet of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on *The Screen of the Investiture Ceremony* symbolically represented the royal wedding of 1802.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folding screens depicting "The Banquet of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were commonly used to celebrate wedding ceremonies, suggesting that the theme of *The Screen of the Investiture Ceremony* was also chosen to commemorate the royal wedding of 1802. *The Screen of the Investiture Ceremony*, indeed, is laden with iconographic elements that signal its relation to a wedding ceremony. Additionally,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a Daoist female deity, served as a visual and literary symbol representing royal women as female hosts of royal banquets. Notably, the folding screen of "The Banquet of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was installed in Queen Sunwon's living quarters, implying that *The Screen of the Investiture Ceremony* also highlighted her as a female protagonist of the wedding. In all likelihood, *The Screen of the Investiture Ceremony* served as a visualized political symbol for the Office of Heralds to commemorate the royal wedding ceremony, which was a significant milestone in reclaiming their power and authority.

keywords: *The Commemorative Folding Screen of the Crown Prince's 1800 Investiture Ceremony*, the Office of Heralds (*Seonjeongwan-cheong*), The Banquet of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commemorative folding

screens, royal wedding ceremony, royal women

***Student Number*: 2019-27452**